



문제를 사진 찍고  
해설 강의 보기  
Google Play | App Store



EBS*i* 사이트  
무료 강의 제공

# 수능특강

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도덕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교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힌 후 활용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HWP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침해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파일은 EBS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HWP문항파일로서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사에게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 저작권은 EBS에 있으며, 파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파일 편집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및 평가자료에 활용할 때 주의 바랍니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09
01부	인간과 윤리 사상	
01강	인간과 윤리 사상	

#장	01	#쪽	009	#번	001	#문항코드	25014-0001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가기에 적합한 존재이다. 우연이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 없이도 사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국가는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공동체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이다.

- ① 감각적 쾌락의 극대화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 ②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 ③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불변의 이상 세계를 추구한다.
- ④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위해 초월적 존재에게 귀의한다.
- 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인간의 특성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이며, 인간은 국가 속에서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더 좋은 삶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 쾌락의 극대화를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세상은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 초월적 존재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강	01	#쪽	009	#번	002	#문항코드	25014-0002
----	----	----	-----	----	-----	-------	------------

### [문제]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④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중세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함으로써,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을: 자아는 신 앞에서 자아라는 사실에 의해 새로운 성질과 자격을 갖게 된다. 자아가 신 앞에 단독자로서 현존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자아는 '무한한 자아'가 된다.

####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① 인간은 원죄(原罪)를 가진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며, ②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은은 ③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게 되며, ④ 절망의 극복은 윤리적 실존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갑과 은은 모두 ⑤ 신 없이는 이상적인 삶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①
- ② ②
- ③ ④

④ ⑤

⑤ ⑥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아우구스티누스와 키르케고르가 강조한 인간의 특성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며,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지상의 나라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④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극복과 참된 실존의 회복은 윤리적 실존이 아니라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원죄를 가지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늘 불안을 느끼며,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참된 행복의 실현과 키르케고르가 설명한 참된 실존의 회복은 모두 초월적 존재인 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강	01	#쪽	009	#번	003	#문항코드	25014-0003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애(渴愛)가 조건이 되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조건이 되어 존재하며, 존재가 조건이 되어 태어나고, 태어남이 조건이 되어 늙으며, 병들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뇌하고, 괴로워한다. 갈애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이 소멸한다.



- ① 중도(中道)를 실천하여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깨우쳐야 한다.
- ②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생사의 세계를 반복하기 위해 무명(無明)과 애욕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윤회(輪迴)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극단적 쾌락을 피하고 극단적 고행을 선택해야 한다.
- 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무상(無常)하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자아만은 무상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석가모니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법을 강조하며, 중생들이 겪는 고통에도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석가모니는 연기의 법에 따라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립적일 수 없으며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 ③ 석가모니는 생사는 고통이므로 생사의 세계를 반복하는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명과 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석가모니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모두 피하고 중도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며,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스스로를 결정하는 자기일 뿐만 아니라 자아와 동시에 전 인류를 선택하는 입법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인간은 자신의 전적인, 그리고 심각한 책임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엄격한 개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보 기 >

- ㄱ.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책임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존재이다.
- ㄴ. 인간은 미리 정해진 삶의 목적 없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이다.
- ㄷ. 인간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다.
- ㄹ. 인간은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사르트르가 강조한 인간의 특성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ㄴ.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으며,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ㄷ.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ㄹ.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유롭기를 거부할 수는 없는,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이러한 선

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불성실이라고 하였다.

#장	01	#쪽	010	#번	005	#문항코드	25014-000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둘의 옥좌에 매여 있다. 이 두 주인들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온갖 노력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확인해 줄 뿐이다.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 < 보 기 >

- ㄱ.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뛰어넘는 공동선을 의미한다.
- 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자연적 사실로부터 쾌락 추구의 당위가 도출될 수 있다.
- ㄷ. 행위의 결과에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인간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ㄹ.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도덕 원리는 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결정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벤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자연적 사실로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가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 ㄷ.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 즉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에 따라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ㄱ. 벤담은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벤담은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도덕 원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의 원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	01	#쪽	010	#번	006	#문항코드	25014-000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는 분쟁의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 첫째, 경쟁심은 사람들을 무엇인가 얻기 위해 공격하게 만든다. 둘째, 자기 확신의 결핍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하게 만든다. 셋째, 영광에 대한 욕구는 명성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 <보기>

- ㄱ.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존재이다.  
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다.  
ㄷ.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지닌 능력의 불평등 때문에 사회 계약을 맺는 존재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홉스의 사회사상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흑스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세운 하나의 인격, 즉 리바이어던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흑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대체로 평등하며 이러한 능력의 평등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똑같은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로 같은 것을 원할 경우 서로 적이 되어 상대편을 무너뜨리거나 굴복시키려 하는 경쟁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장	01	#쪽	010	#번	007~008	#문항코드	
----	----	----	-----	----	---------	-------	--

## [07~08] [지문]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性)은 여울물과 같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니, 인성(人性)에 선(善)과 불선의 분별이 없는 것은 물에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타고난 그대로를 일러 성이라 하며, 식색(食色)이 성이다.

을: 물이 동서로 나누어짐이 없다고 해서 상하로 나누어짐까지 없겠는가? 인성이 선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 산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어찌 물의 본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이다.

#장	01	#쪽	010	#번	007	#문항코드	25014-0007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인간의 본성은 선 또는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② 갑: 무위를 통해 인간 내면의 의(義)를 확충해야 한다.
- ③ 을: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동은 사단에 어긋나 있다.
- ④ 을: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후천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고자와 맹자의 인간 본성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② 고자는 인간의 본성에 의가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수양의 방법으로 무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③, ④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강조하며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인 사단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⑤ 맹자와 고자 모두 인간은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장	01	#쪽	010	#번	008	#문항코드	25014-000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소인(小人)이어서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천자(天子)처럼 귀해지고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성정(性情)으로서는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욕심을 따른다면 그 욕심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에 옛 임금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곧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하나로 조화되는 도(道)이다.

- ① 갑에게: 끊어버린 본심을 되찾아[求放心] 선행을 해야 함을 간파하고 있다.  
② 갑에게: 후천적이고 인위적 노력에 의한 인간의 선행 가능성을 간파하고 있다.  
③ 을에게: 인간의 선행은 타고난 본성을 지키고 가꾼 결과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④ 을에게: 인간에게는 도덕 인식 능력과 도덕 실천 능력이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⑤ 갑과 을에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함을 간파하고 있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순자가 고자와 맹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후천적, 인위적 노력을 통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간에게는 도덕 인식 능력과 도덕 실천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인위적 노력을 통하여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와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을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순자가 맹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고자와 순자 모두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② 고자는 인간의 선행은 본성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혹은 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 ⑤ 고자와 맹자 모두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	01	#쪽	011	#번	001	#문항코드	25014-0009
----	----	----	-----	----	-----	-------	------------

### [문제]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늘이 부여한 선한 도덕적 본성을 잊지 않고 가꾸어 나가야
- ②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에 대한 분별을 통해 편견을 극복해야
- ③ 인의(仁義)의 덕(德)을 통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보존해야
- ④ 성인(聖人)이 제정한 예(禮)를 바탕으로 성정(性情)을 교화시켜야
- ⑤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장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방해하며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때 무엇에도 얹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장자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좌망을 제시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장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도덕적 본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장자는 분별 의식을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장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규범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장자는 성정의 교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예를 통한 성정의 교화를 강조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강	01	#쪽	011	#번	002	#문항코드	25014-001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의무의 개념은 행위에서는 객관적으로 법칙과의 합치를 요구하고, 행위의 준칙에서는 주관적으로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식인 법칙에 대한 존경을 요구한다. 의무에 맞게 행위했다는 의식과 의무로부터, 다시 말해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행위했다는 의식 사이의 구별은 바로 이 점에 의거한다.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성의 법칙이다. 그러나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법칙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은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이다.		∨	∨		∨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덕 법칙의 지배만을 받는 존재이다.		∨		∨		∨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도덕 법칙이 언제나 완전히 일치하는 이성적 존재이다.				∨	∨	∨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 추구보다 도덕적 의무 이행을 우선할 수 있는 존재이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칸트가 강조한 인간의 특성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칸트는 도덕 법칙은 인간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며, 인간은 이러한 자율적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칸트는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극복하고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선의지에 따라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두 번째 입장. 칸트는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입장. 칸트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와 도덕 법칙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젖먹이 아기도 칭찬을 들으면 기쁜 내색을 하고, 어린아이도 욕하며 꾸짖으면 내심 부끄러워한다. 선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기쁜 내색을 하는 것이다. 악이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으면 내심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性)을 부여하였다. 만약 이성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예로부터 한 사람도 아주 조금의 선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을 따르라고 말하고, 덕성을 존중(尊崇)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이 성을 보배로 여겨 감히 이를 잊지 않으려는 것도 이 까닭이다.

- ①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마음에 지니고 태어나는 도덕적 존재이다.
- ②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지녀 선과 악을 자신의 공(功)과 과(過)로 여길 줄 아는 존재이다.
- ③ 수양을 통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악행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선행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 ⑤ 본성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정약용이 강조한 인간의 특성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정약용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선은 자신의 공(功)이, 악은 자신의 과(過)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는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 ⑤ 정약용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회가 강제와 통제라는 방법으로 개인을 대하는 태도를 절대적으로 규제하는 지극히 단순한 원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뿐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이다.

을: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 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나의 현재의 존재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물려받은 존재이다.

### < 보기 >

- ㄱ. 갑: 선한 의도에서 행해지는 타인을 향한 간섭이 금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ㄴ. 갑: 개인의 의사에 반한 간섭이 정당화되는 원리는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 ㄷ. 을: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 ㄹ. 갑과 을: 도덕 판단은 맥락적 사고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행위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밀과 매킨타이어의 사회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밀,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함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라고 주장하였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영향을 받아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함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

며,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간섭은 옳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ㄷ. 매킨타이어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밀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ㄹ.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은 인간관계와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01	#쪽	013	#번	005	#문항코드	25014-0013
----	----	----	-----	----	-----	-------	------------

### [문제]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게

오늘은 진정한 쾌락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한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에서도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주저하지 않게 해 준다네. 그러므로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 이자 끝이다.”라고 할 때의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네.

- ①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 추구를 위해 그 자체로 나쁜 쾌락은 멀리해야 한다.
- ②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인 삶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③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를 멀리해야 한다.
- ④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최소한만 충족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 ⑤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소박하고 절제 있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하며,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평정심의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부재한 상태인 평정심을 강조하였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에피쿠로스는 그 자체로 나쁜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② 에피쿠로스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를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에피쿠로스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 평정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강	01	#쪽	013	#번	006	#문항코드	25014-0014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恒心]을 갖기 힘들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치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임금은 일정한 생업을 만들어 주어 가족을 섬기고 기를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배가 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고 망하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한다.

**을:** 공산주의는 그 누구로부터도 사회적 생산물을 점유할 힘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점유에 의하여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힘을 박탈할 따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 가는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있고 그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것일 수는 없다.

### <보기>

- ㄱ. 갑: 군주가 왕도(王道)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한 마음에 근거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
- ㄴ. 을: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에 의한 독재가 발생한다.
- ㄷ. 을: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통해 인간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바람직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화 분배가 이루어진다.

- ① ㄱ, ㄷ

- ② 그, 근
- ③ 뉴, 디
- ④ 그, 뉴, 근
- ⑤ 뉴, 디, 근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맹자와 마르크스의 사회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맹자, 을은 마르크스이다. 맹자는 백성들이 변치 않는 도덕심[恒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업[恒産]을 통한 생계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내적 모순으로 인해 빈부 격차 심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동자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하고 공산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그. 맹자는 군주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선한 마음에 기반을 둔 정치를 펼칠 때 왕도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ㄴ. 마르크스는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자본주의의 붕괴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사회를 거쳐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ㄷ.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만을 위한 강요된 노동이 되어 버리는 노동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20
02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2강	유교와 인의 윤리		

#장	02	#쪽	020	#번	001	#문항코드	25014-0015
----	----	----	-----	----	-----	-------	------------

### [문제]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오늘은 올바른 통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성을 정령[政]으로 인도하고 형벌[刑]로써 질서 정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禮)로써 질서 정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될 것입니다.

- ① 군주는 명분의 바름보다 실리의 획득을 우선해야 한다.
- ② 군주는 모든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에 따라야 한다.
- ③ 군주는 덕과 능력보다 친소에 따라 관직을 맡겨야 한다.
- ④ 군주는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⑤ 군주는 분배의 형평성보다 재화의 적음을 걱정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공자의 정치사상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정령[政(정)]과 형벌보다는 덕과 예(禮)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공자에 따르면 군주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솔선수범을 보일 때 백성은 군주를 자발적으로 따른다. 따라서 군주는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공자는 정치를 함에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분을 바로잡는 것[正名(정명)]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도가의 입장이다.
- ③ 공자는 현명하고 유능한 자가 등용되는 대동(大同) 사회를 이상 사회로서 제시하였다.
- ⑤ 공자에 따르면 군주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산(牛山)의 나무들은 일찍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큰 나라의 도읍지 교외에 있어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대니 어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 산의 나무들은 밤낮으로 자라고 비와 이슬이 적셔 주어 늘 새싹이 돋았지만, 또 소와 양을 거기에 방목하여 저렇게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이런 민둥산을 보고 원래 수목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性]이겠는가? 사람이 그 양심을 놓아 잊어버린 것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어 버린 것과 같다.

### <보기>

- ㄱ. 일상에서 인을 행해야 측은지심이 갖추어진다.
- ㄴ. 성인과 일반 백성은 서로 다른 본성을 타고난다.
- ㄷ.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발휘하면 본성을 알게 된다.
- ㄹ. 악행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맹자의 인성론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본래 마음[本心(본심)]은 선하지만 후천적 환경과 감각적 욕구의 영향으로 악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ㄷ. 맹자는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天(천)]을 알게 된다고 보았다.

ㄹ. 맹자는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맹자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타고난 선한 마음이다.

ㄴ. 맹자는 성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타고난 본성은 같다고 보았다.

#강	02	#쪽	020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03~04] [지문]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하루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仁)으로 귀의할 것이다.

을: 예와 의(義)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것[自暴]이며, 자신은 인에 머물 수 없고 의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自棄]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바른길이다.

#강	02	#쪽	020	#번	003	#문항코드	25014-0017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인을 실천하는 근본은 효도[孝]와 우애[悌]이다.
- ② 갑: 인은 친소의 분별함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 ③ 을: 예는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실마리[端]이다.
- ④ 을: 예를 일상에서 확충해야 양지와 양능이 형성된다.
- ⑤ 갑과 을: 인과 예는 궁극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공자와 맹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덕으로서의 인(仁)과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 규범으로서의 예(禮)를 강조하였으며, 맹자는 인간이 인과 의(義)를 보존하고 확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금수와 구별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 ① 공자는 가까운 사이인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② 공자가 주장한 인은 존비친소(尊卑親疏)를 분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다.
- ③ 맹자에 따르면 예(禮)는 실마리[端(단)]가 아니라 본성[性(성)]이다.
- ④ 맹자에 따르면 양지와 양능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 ⑤ 도가의 입장이다.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가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고 일을 성취할 수 없으며 나라가 편안할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감정이 예를 따르면 편안하고 지식이 스승을 따르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 ① 갑은 예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② 갑은 예는 항상 어진 마음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을은 예는 본성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간과한다.
- ④ 을은 예는 사양지심의 확충으로 실현됨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은 예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순자가 공자와 맹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예(禮)로써 본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③ 맹자는 인간에게 본래부터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나, 순자는 본성이 악하여 혼란이 발생했고 이 혼란을 극복하고자 성인이 예를 제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순자는 하늘[天(천)]을 도덕과 무관한 물리적 자연으로 보았으며, 예는 성인이 인위를 쌓아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 ② 공자는 인(仁)은 예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며 예는 인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④ 맹자에 따르면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실현된다.
- ⑤ 공자와 맹자는 예를 도덕적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한다.”라고 할 때, 명은 조정에서 내리는 칙명과 같고 성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와 같다. 심(心)은 관리와 같고 기질(氣質)은 관리의 성질과 같으니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엄격하다. 정(情)은 관청에서 직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정은 드러나는 작용이고 성은 인의예지와 다르지 않다.

- ① 성은 심의 본체이고 정은 심의 작용인가?
- ② 본연의 성은 기질에 의해 악으로 변질되는가?
- ③ 심은 드러난 정에 따라 성을 주재해야 하는가?
- ④ 심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는 본래 서로 다른 것인가?
- ⑤ 인의예지는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인가?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주희의 기본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주희의 주장이다. 주희에 따르면 사람과 사물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이(理)를 부여받은 뒤에 성(性)이 생기고 기(氣)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가 생긴다. 그러므로 성은 곧 이이다[性卽理(성즉리)]. 또한 이 자체로서의 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그 이가 기질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기질지성이라 한다. 성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정(情)으로 표출된다.

### {정답 찾기}

① 주희에 따르면 성은 심의 본체이고 정은 심의 작용이므로 주희는 궁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② 주희에 따르면 본연의 성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오직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언제나 순선무악하다. 따라서 주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주희는 성에 따라 정을 주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주희는 이는 하나이지만 그 나님은 다양하다[理一分殊(이일분수)]고 주장하였다. 즉, 구체적인 사물에 따라 이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이는 본래 하나인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주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정약용이 궁정할 질문이다. 정약용은 사단을 사덕 형성의 시작으로 보는 단시설(端始說)을, 주희는 사단을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 주는 단서로 보는 단서설(端緒說)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문제]

가상 대화의 스승은 중국 유교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스승님. 많은 사람이 효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도하지 않으니. 암과 행함은 분명히 나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네. 그것은 이미 사욕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암과 행함의 본체가 아니라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이라네.



< 보 기 >

- ㄱ. 행함은 암의 완성이며 암은 행함의 시작이다.
- ㄴ. 행함과 암은 본래 별개의 것이며 나뉠 수 있다.
- ㄷ. 행함과 암에는 선후가 없으나 경중의 구분은 있다.
- ㄹ. 행함 안에 이미 암이 있고 암 안에 이미 행함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왕수인의 지행합일론 파악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스승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주희가 강조하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이 암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폐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암과 행함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ㄹ. 왕수인이 말하는 ‘행함[行(행)]’은 밖으로 드러난 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활동도 포함한다. 즉 왕수인은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의 시작이므로 그러한 생각조차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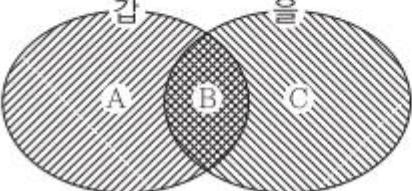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ㄴ, ㄷ. 왕수인에 따르면 암과 행함은 본래 하나이므로 선후나 경중이 없으며 나뉠 수도 없다.

#장	02	#쪽	021	#번	007	#문항코드	25014-0021
----	----	----	-----	----	-----	-------	------------

### [문제]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성(性)은 심(心)의 본체이고 정(情)은 심의 작용이다. 성과 정은 하나의 사물인데 나뉘는 까닭은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는 성이며 성이 이미 발현된 상태는 정이다. 을: 지(知)는 심의 본체이다. 지란 이(理)의 영명한 측면이다. 주재하는 측면에서는 심이라 부르고 부여되었다는 측면에서 성이라고 부른다. 단지 이 영명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고 남김없이 확충되면 완전한 그 본체가 드러난다.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기>

- ㄱ. A: 마음 밖의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
- ㄴ. B: 마음은 하늘이 부여한 암[知]을 지니고 있다.
- ㄷ. B: 마음과 본성은 의미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 ㄹ. C: 마음은 몸을 주재하며 천리를 본체로서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본성을 마음의 본체로, 감정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다. 왕수인은 본성을 마음의 본체로 보면서도 그 본체가 바로 양지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주희는 이(理)가 만물에 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ㄴ.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된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양지를 선천적인 뜻으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왕수인만의 입장이다. 주희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고 보았으며, 왕수인은 주체하는 측면에서 마음이라 부르고, 부여되었다는 측면에서 본성이라 부르는 것일 뿐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ㄹ.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된 입장이다.

#장	02	#쪽	021	#번	008	#문항코드	25014-0022
----	----	----	-----	----	-----	-------	------------

### [문제]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옮은 것은?

갑: 격물(格物)은 다만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理]를 궁구하는 것이다. 치지(致知)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얻기를 다한 후에 나의 지식이 또한 다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을: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여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치지란 앞선 학자들이 말하는 “자신의 지식을 확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를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

- ① 갑: 격물은 의념[意]이 머무는 곳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② 갑: 치지를 통하여 각각의 사물을 이치를 얻게 된다.
- ③ 을: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마음속에 갖추는 과정이다.
- ④ 을: 치지는 격물을 통해 양지를 형성한 이후에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격물과 치지는 천리의 보존을 위한 공부이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의 ‘격’을 ‘이르다[至(지)]’로, ‘물’을 이치[理(의)]의 소재처로 해석하였으나, 왕수인은 ‘격’을 ‘바르게 하다[正(정)]’로, ‘물’을 의념[意(의)]이 있는 곳의 일[事(사)]로 해석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수양으로서 격물치지를 제시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② 왕수인의 입장이다.

③ 왕수인은 외부 사물이 아니라 마음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강	02	#쪽	022	#번	001	#문항코드	25014-0023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가난과 낮은 신분[貧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도(道)로써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부와 높은 신분[富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도로써 얻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는 것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仁)을 여기지 않는다.

**을:**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고 신분이 낮으면 높아지기를 바라니, 진실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반드시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이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며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 ① **갑:** 군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 ② **갑:**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도로써 자신을 바로잡는다.
- ③ **을:** 군자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하늘[天]을 두려워하고 섬긴다.
- ④ **을:** 군자는 자기 마음에 뿌리내린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본성으로 삼는다.
- ⑤ **갑과 을:** 군자는 일체의 분별과 세속을 초월하여 절대적 자유를 추구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공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인(仁)의 구현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사람을 군자로 보았으며, 순자는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군자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공자에 따르면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도(道)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

##### {오답 피하기}

① 공자에 따르면 군자는 천명(天命)과 대인(大人), 성인(聖人)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예의가 없는 사람을 미워한다.

③ 순자에 따르면 하늘은 인간의 선악에 감응하거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다.

④ 맹자의 입장이다.

⑤ 공자와 순자는 일체의 분별이나 세속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강	02	#쪽	022	#번	002	#문항코드	25014-0024
----	----	----	-----	----	-----	-------	------------

### [문제]

그림의 갑, 을,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를 하자 한다면 먼저 이름을 바로잡아야[正名] 합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악이 일어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아 결국 백성들은 손발을 둘곳이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를 다스림이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주의 푸줏간에 살진 고기가 있는데 백성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다면 이는 짐승으로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정치에서 예(禮)는 수레를 당기는 줄과 같습니다.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군주가 예를 숭상하고 현자(賢者)를 존중하면 왕자(王者)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霸者)가 됩니다.



갑



을



병

- ① 갑: 이상적 통치는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 ② 을: 이상적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의 항산(恒產)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③ 병: 이상적 통치는 덕에 따라 지위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긴다.
- ④ 갑과 을: 이상적 통치는 군주의 인격 수양과 솔선수범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
- ⑤ 을과 병: 이상적 통치는 백성을 인(仁)과 의(義)가 실현된 사회로 인도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공자, 맹자, 순자의 정치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공자, 을은 맹자, 병은 순자이다. 정치와 관련하여 공자는 정명(正名)을, 맹자는 인정(仁政)을, 순자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맹자에 따르면 군주가 백성의 항산(恒產)을 보장하는 것은 백성의 항심(恒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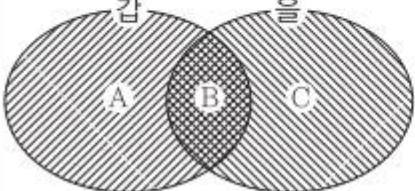
- ① 공자는 정령[政(정)]과 형벌보다는 덕과 예(禮)로써 통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통치가 실현될 때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바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순자는 예치를 주장하였는데, 예치는 지위를 정하고 관직을 맡김에 있어 덕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④ 공자와 맹자는 모두 군주의 인격 수양과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  
 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유교 사상가로서 인과 의(義)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장	02	#쪽	023	#번	003	#문항코드	25014-0025
----	----	----	-----	----	-----	-------	------------

### [문제]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군자의 본성은 비록 천도(天道)가 행해져도 덧붙일 것이 없고 빈궁하게 은거해도 훼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얻은 본성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인의예지 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다.</p> <p>을: 군자는 지혜가 있으면 이치에 통달하여 모든 사물을 잘 처리하지만 소인은 지혜가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친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인이므로 군자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갑만의 입장</li> <li>B: 갑과 을의 공통 입장</li> <li>C: 을만의 입장</li> </ul> </div>

### < 보기 >

- ㄱ. A: 사람의 본성은 하늘[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ㄴ. A: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만 사람의 본심(本心)은 악할 수 있다.
- ㄷ. B: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 ㄹ. C: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다툼과 혼란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선한 본심(本心)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길러 낼 것을 주장하였으며 순자는 예(禮)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ㄷ. 맹자와 순자는 모두 누구나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 ㄹ.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맹자뿐만 아니라 순자도 인간의 본성이 하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ㄴ.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심은 선하다.

#강	02	#쪽	023	#번	004	#문항코드	25014-0026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求放心]일 뿐이다. 인(仁)은 사람이 지닌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저버리고서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되찾을 줄 모르니 안타깝다.

을: 학문하는 사람은 성왕(聖王)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도를 법도로 받들면서 그를 본받기에 힘쓴다. 성왕은 사람들이 본성의 악함 때문에 이치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의를 제정하여 사람들의 본성과 감정을 바로잡았다.

#### <보기>

- ㄱ. 갑: 소인은 배우지 않아도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ㄴ. 갑: 성인의 마음에는 인의예지의 단(端)이 있으나 소인의 마음에는 없다.
- ㄷ. 을: 소인은 예의로써 본성을 바로잡은 후에 선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 ㄹ. 갑과 을: 성인과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性]을 지니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본심(本心)의 회복을, 순자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타고난 성정(性情)의 교정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ㄱ. 맹자는 누구나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와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ㄹ. 맹자와 순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 {오답 피하기}

ㄴ. 맹자는 누구나 인의예지의 단(端)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ㄷ. 순자에 따르면 누구나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러나 인간의 성정(性情)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도(教導)와 교화(教化)가 필요하다.

#강	02	#쪽	024	#번	005~006	#문항코드
----	----	----	-----	----	---------	-------

## [05~06] [지문]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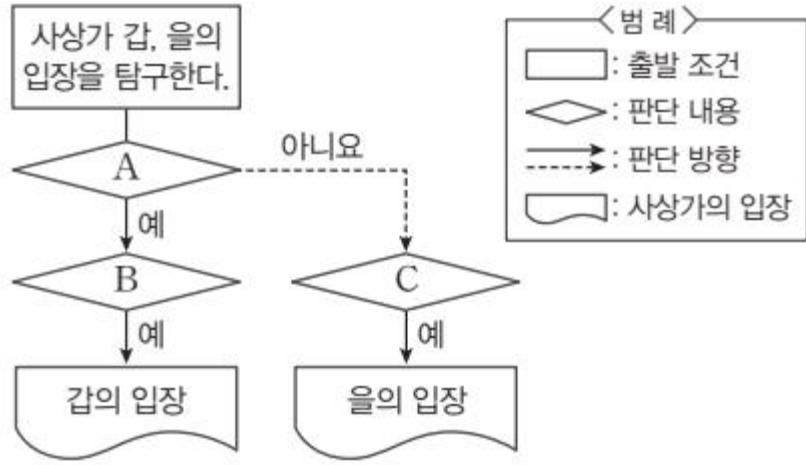
갑: 문을 나서지 않고서도 천하의 일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서도 하늘의 도(道)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서도 알게 되며 보지 않고서도 올바로 식별하고 작위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성취하게 된다.

을: 문을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맞는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자신에게 가까이 비추어 보아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강	02	#쪽	024	#번	005	#문항코드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천하가 혼란스러운 것은 도를 끓어버렸기 때문인가?
- ② B: 부쟁(不爭)의 삶을 위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 ③ B: 통치자가 무위하면 백성은 저절로 예(禮)를 따르게 되는가?
- ④ C: 천하에 인을 실현하려면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야 하는가?
- ⑤ C: 인으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려면 자신조차 잊어야[坐忘] 하는가?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노자와 공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을, 공자는 예를 통해 인을 실현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④ 공자가 궁정할 질문이다. 공자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극기복례)]이 바로 인이며 하루라도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 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노자와 공자가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을 뜻하며, 공자가 말하는 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근본적인 행위 규범을 뜻한다.

② 노자가 부정할 질문이다. 노자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무지(無知)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노자가 부정할 질문이다. 노자는 예와 같은 인위적 규범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⑤ 공자가 부정할 질문이다.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는 좌망(坐忘)은 장자가 강조한 수양법이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도(道)를 따르고 어기지 않으면 하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고, 도를 어기고 분별없이 행동하면 하늘도 사람을 길하게 할 수 없다. 흥수나 가뭄이 사람을 짚주리게 할 수 없고 추위나 더위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다. 흥수나 가뭄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짚주리는 사람이 있고 추위나 더위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인간의 직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을 지인(至人)이라고 한다.

#### < 보 기 >

- ㄱ. 갑은 도에 따른 인위적 수양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ㄴ. 을은 도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도덕 판단의 기준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ㄷ. 갑과 을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분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순자가 노자와 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에 따르면 하늘[天(천)]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따라서 하늘은 성왕(聖王)인 요임금을 보존시키기 위해 운행하지도 않고, 폭군인 결왕을 망하게 하기 위해 운행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길흉은 인간이 그 법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별개의 것임을 뜻하는 천인분이(天人分二) 사상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노자에 따르면 도는 항상 인위가 없으며[道常無爲(도상무위)] 성인은 무위(無爲)를 행한다. 따라서 인위적 노력으로는 성인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순자에 따르면 도는 예(禮)나 법(法) 등을

가리키며 도에 따른 인위적 노력으로써 선행을 쌓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ㄴ.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물리적 자연으로 보았다.
- ㄷ. 순자가 말하는 도란 예나 법 등 올바른 판단 기준을 뜻한다.

#강	02	#쪽	025	#번	007	#문항코드	25014-002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배우는 목적은 진실로 실천에 있는데,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비록 행하고자 하여도 이치[理]에 밝지 않으면 실천하는 것 또한 어떤 결과에 이를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의 도(道)가 비록 성의정심(誠意正心)을 근본으로 삼았다고 해도 반드시 격물致知(格物致知)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 보기 >

- ㄱ. 먼저 의리(義理)에 대해 알아야 의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 ㄴ. 경중(輕重)을 논할 때에는 역행(力行)보다 치지를 중시해야 하는가?
- ㄷ. 맑이 극진하게 된 이후에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할 수 있는가?
- ㄹ. 본연지성에 포함된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없애야 천리(天理)가 보존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주희의 선지후행론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주희의 주장이다. 주희는 선후를 논할 때에는 치지(致知)가 역행(力行)에 앞선다는 선지후행론(先知後行論)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역행은 아는 바를 힘써 실천하는 것이다.

## {정답 찾기}

- ㄴ. 주희는 경중을 논할 때에는 치지보다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ㄷ. 주희에 따르면 암의 극진함은 격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격물의 결과이다.
- ㄹ. 주희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마음에 부여된 이(理) 자체이므로 기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ㄱ. 주희에 따르면 암이 없이 행하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먼저 알아야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장	02	#쪽	025	#번	008	#문항코드	25014-0030
----	----	----	-----	----	-----	-------	------------

## [문제]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양지는 본래 고유하게 있는 것이지만 능히 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면 다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능히 궁구하지 못하게 된다. 궁리가 반드시 천하의 이치를 다 궁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이치를 얻었다고 해서 곧장 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악함이 쌓여 많아진 후에 자연스럽게 활연히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을:** 양지가 발현되어 더 이상 사사로운 의념[意]에 막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른바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한다면 인(仁)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란 없게 된다.”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사사로운 의념에 막히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치지격물(致知格物) 공부를 해야 한다. 사사로운 의념을 이겨 내고 천리(天理)를 회복하면 마음의 양지는 더 이상 장애가 없기에 우주에 가득 차서 유행할 수 있다.

- ① 갑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갖춰진다고 본다.
- ② 을은 비천한 사람은 양지를 온전히 발휘해도 성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하늘이 부여한 이치는 인욕에 의해 가려질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격물을 마음의 불선함을 없애고 본래의 선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다.
- ⑤ 갑과 을은 궁리란 이미 알고 있는 바로써 모르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누구나 양지를 타고 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희와 달리 왕수인은 양지는 완전한 것이므로 이론적 학습과 탐구를 통한 암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주희는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본 반면, 왕수인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고 본래의 바름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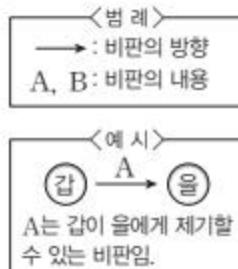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 ① 주희는 마음에 이미 만리(萬理), 즉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 ② 왕수인은 누구나 양지를 온전히 발휘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인욕에 의해 천리가 가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주희만의 입장이다.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고 본성은 곧 이치이다. 따라서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본성을 극진하게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仁)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인을 극진하게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강	02	#쪽	026	#번	009	#문항코드	25014-0031
----	----	----	-----	----	-----	-------	------------

### [문제]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임금이라면 마땅히 인(仁)해야 하고 신하라면 마땅히 공경해야 하며 자식이라면 마땅히 효를 행해야 하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애로워야 한다. 모든 사물은 이치[理]를 갖는데 그 적용은 서로 다르다. 그렇더라도 모두 하나의 이치가 유행한 것이다. 을: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忠)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孝)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모두가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이치이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충의 이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의 이치가 있다.
(나)	

- ① A: 효의 이치와 충의 이치는 서로 근원이 다름을 간과한다.
- ② A: 효에 대한 앎이 극진해지지 않으면 효를 행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A: 효를 행한 적이 있을 때에만 효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효를 양지에 따라 온전히 행해야 격물이라 말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효는 인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교정한 후에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이치가 사물에도 내재한다고 보았으나 왕수인은 마음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주희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격물로 보았으나, 왕수인은 양지가 아는 바대로 한결같이 행하여 조금의 미진함이 없을 뒤에야 그것을 격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주희는 이치는 오직 하나일 뿐이지만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부자의 도리가 있고 군신에게는 군신의 도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주희는 누구나 양지를 타고나므로 암이 극진해지지 않을지라도 효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왕수인은 행하지 않으면 암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효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를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효를 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효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완전한 것이므로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	02	#쪽	026	#번	010	#문항코드	25014-003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음의 허령명각(虛靈明覺)이 이른바 본연의 양지이다.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고 한다. 의지가 작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물(物)이 있으니, 물이 곧 사(事)이다. 만일 의념이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작용하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물이 되고, 의념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작용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의 물이 된다.

#### < 보 기 >

- ㄱ. 양지는 배우거나 헤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 ㄴ. 의념이 머무는 곳에는 바르지 못함이 없으므로 언제나 천리(天理)가 드러난다.
- ㄷ. 마음 밖에 있는 일[事]을 바로잡을수록 마음 안에 있는 이치[理]가 완전해진다.
- ㄹ.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며 주재가 바르면 자연히 예(禮)가 아닌 것을 행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왕수인의 주장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天理(천리)]이며, 마음의 본체가 본성[性(성)]이고 본성은 곧 양지[知(지)]이며, 마음이 발현한 것이 의념[意(의)]이고 의념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物(물)]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왕수인이 주장하는 양지는 선과 악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다.

ㄴ.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며 주재가 바르면 마음이 눈이나 귀, 입이나 사지(四肢)를 통해 발현될 때 자연히 예(禮)가 아닌 것은 보지 않으며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며 행하지도 않게 된다.

##### {오답 피하기}

ㄷ. 왕수인에 따르면 격률은 의념이 머무는 곳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마음의 본체인 양지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ㄹ.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理(이)]나 사물[物(물)], 일[事(사)]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음이 곧 이치이며 그 이치는 천리(天理)이므로 조금이라도 밖에서 무엇을 가져와 보탤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32
02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3강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장	03	#쪽	032	#번	001	#문항코드	25014-003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심(心)이 발(發)하기 이전은 마치 태극이 동정(動靜)의 이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직 음양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와 같다. 이때 심 안에 온전하게 자리한 성(性)은 순수하여 악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가 이 심이 발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태극이 작용을 시작하여 움직여서 양이 되고 고요하게 되어서는 음이 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때 기(氣)가 비로소 작용하게 됨으로써 정(情)의 발에는 선악의 구별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

- ① 기는 사단의 연원이며 이는 칠정의 연원이다.
- ② 기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만물의 재료이다.
- ③ 기와 이는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를 주재할 수 있다.
- ④ 기에 동정이 있는 것은 이에 동정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감정은 선하게 드러날 수 없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이황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주희의 사상을 계승하여 태극을 모든 사물의 이(理)를 다 포함하는 것이자 만물의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서의 이로 보았다. 또한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는 『주역』과 태극에 동정(動靜)이 있다는 『태극도설』에 근거하여 이의 작용성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이황에 따르면 태극이 음양[氣(기)]을 낳았으며 태극에 동정이 있으므로 기에도 동정이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황에 따르면 이는 사단의 연원이며 기는 칠정의 연원이다.
- ②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이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
- ③ 이황은 이가 기를 주재할 뿐, 기는 이를 주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이황에 따르면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탄 감정은 칠정이며 칠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

#장	03	#쪽	032	#번	002	#문항코드	25014-003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理)는 형이상자요 기(氣)는 형이하자이니 둘이 서로 떠날 수 없다. 이미 서로 떠날 수 없은즉, 그 발함이 하나이니 서로 발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서로 발함이 있다면 이가 발할 때 기가 혹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 기가 발할 때 이가 혹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으면 이기에 이합(離合)이 있고 선후가 있으며 동정(動靜)에 끝이 있고 음양에 시작이 있으니, 그 어긋남이 작지 않은 것이다.

- ㄱ. 이는 기와 마찬가지로 형태가 없다.
- ㄴ. 이는 두루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
- ㄷ. 이는 기를 통하지 않고 드러날 수 없다.
- ㄹ. 이는 발할 수 없으나 기는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이이의 이기론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는 이와 기의 관계 및 특징과 관련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 이통기국(理通氣局),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 등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형태가 없으므로 두루 통하지만 기는 형태가 있으므로 국한된다.
- ㄷ.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형태가 없으나 기는 이가 실현되는 재료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이가 아니면 기는 존재할 근거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의지하여 드러날 바가 없다.
- ㄹ. 이이에 따르면 이는 무위(無爲)하므로 발할 수 없으나 기는 유위(有爲)하므로 발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ㄱ.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형태가 없으나 기는 형태가 있다.

#장	03	#쪽	032	#번	003	#문항코드	25014-0035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경(敬)이란 한 마음의 주재인 동시에 만사(萬事)의 근본이다. 병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하자면 경은 백 가지 병을 다스리는 약이다. 그것은 한 가지 증세에 대해 한 가지 약재를 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는 천리(天理)의 본연을 향양하고 활동할 때에는 틈새[機微]에서 인욕(人欲)을 없애야 한다.
(나)	⑦.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① 내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발휘하는 공부[致良知]에 힘쓰라
- ② 항상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공부[常惺惺]에 힘쓰라
- ③ 영지의 기호를 준 상제를 의식하는 공부[慎獨]에 힘쓰라
- ④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는 공부[格物]에 힘쓰라
- ⑤ 경으로부터 벗어나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窮理]에 힘쓰라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이황의 수양론 파악

##### {문제 분석}

(가)는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마음을 주재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경(敬)’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② 항상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常惺惺(상성성)]은 하나에 집중하여 벗어나지 않음[主一無適(주일무적)], 몸가짐을 단정하고 엄숙히 함[整齊嚴肅(정제엄숙)] 등과 함께 이황이 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①, ④ 왕수인의 입장이다.

③ 정약용의 입장이다.

⑤ 이황은 거경(居敬)과 궁리(窮理) 모두를 중시했으며 거경과 궁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03	#쪽	032	#번	004	#문항코드	25014-003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성(性)’ 자를 높여서 하늘과 같이 큰 존재로 받들면서 태극음양설과 합하고 본연기질론과 뒤섞어 어둡고 아득해진 말로 황홀해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맹자는 “의리(義理)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축의 고기가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 공자는 “떳떳한 본성은 덕을 좋아한다.”라는 시(詩)를 인용하여 사람의 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은 ⑦

-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理)가 기질 가운데 놓인 것이다.
- ②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이다.
- ③ 타고난 그대로의 것이며 식색(食色)의 욕구 그 자체이다.
- ④ 내 마음의 본체이며 양지(良知)이고 곧 하늘의 이치이다.
- ⑤ 지극히 크고 굳세며 천지간에 충만한 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정약용의 성기호설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성리학자들과 달리 인간의 본성을 이법적 실체가 아닌 마음의 기호로 보았다.

#### {정답 찾기}

- ②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고자의 입장이다.
- ④ 왕수인의 입장이다.
- ⑤ 맹자가 주장한 호연지기(浩然之氣)에 대한 설명이다.

#장	03	#쪽	033	#번	005	#문항코드	25014-0037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성(性)이 아니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며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 ① 본연지성은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② 본연지성이 발하여 드러난 감정들은 모두 선하다.
- ③ 본연지성의 선함은 기질에 가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 ④ 기질지성은 기질의 교정을 통해 본연지성이 될 수 있다.
- ⑤ 기질지성은 칠정의 연원이며 본연지성은 사단의 연원이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이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는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듯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理) 그 자체이므로 순선하지만 기질에 의해 그 순선함이 가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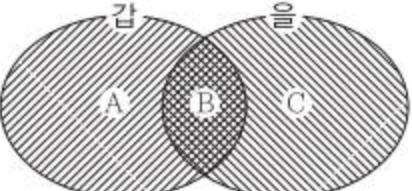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 ① 성리학자인 이이에 따르면 만물은 하늘로부터 이(理)를 부여받아 각자의 성(性)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간과 금수 모두 본연지성을 지닌다.
- ②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이는 작용성을 갖지 않으므로 발할 수 없다.
- ④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기질을 배제하고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한다. 또한 기질을 교정함으로써 이의 순선함이 드러날 수 있으나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황의 입장이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강	03	#쪽	033	#번	006	#문항코드	25014-0038
----	----	----	-----	----	-----	-------	------------

### [문제]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의 본체이다. 발하여 인은 측은(惻隱), 의는 수오(羞惡), 예는 공경(恭敬), 지는 시비(是非)가 되어 일을 따라 드러난다. 각기 싹터 나오는 맥이 있고 혼란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정(情)이다.</p> <p>을: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행사[事] 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후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하며, 손님과 주인이 절하며 읍(揖)한 뒤에 예라 하고, 사물을 분별한 뒤에 지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갑만의 입장</li> <li>B: 갑과 을의 공동 입장</li> <li>C: 을만의 입장</li> </ul> </div>

### < 보 기 >

- ㄱ. A: 인은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단서[緒]이다.
- ㄴ. A: 의는 마음의 본체이고 수오지심은 의가 발한 것이다.
- ㄷ. B: 예는 사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이다.
- ㄹ. C: 지는 시비지심에 따른 행위 없이는 갖춰질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주희와 정약용의 덕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정약용이다. 주희에 따르면 사덕은 본성으로서 주어지는 것인 반면,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정답 찾기}

ㄴ. 주희만의 입장이다. 주희는 사덕을 본성, 즉 마음의 본체로 보았으며 수오지심을 비롯한 사단을 사덕이 발한 것으로 보았다.

ㄹ. 정약용만의 입장이다. 정약용은 시비지심을 확충함으로써 지(智)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주희와 정약용은 모두 인을 덕으로 보았다. 주희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緒(서)]이다.
- ㄷ. 주희와 정약용은 모두 예를 덕으로 보았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양지심은 예라는 덕을 형성하는 시작[始(시)]이다.

#장	03	#쪽	033	#번	007~008	#문항코드	
----	----	----	-----	----	---------	-------	--

### [07~08] [지문]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과 칠정의 발함에는 각기 혈맥이 있다.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인의예지의 성(性)에서 발하고,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은 바깥 사물이 형기(形氣)에 접촉되어 나온다.
을: 사단을 칠정에 준한다면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며, 공경지심은 구(懼)에 속하고, 시비지심은 희(喜)해야 하는지 노(怒)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아는 정(情)이다.

#장	03	#쪽	033	#번	007	#문항코드	25014-0039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이다.
- ② 갑: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지만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
- ③ 을: 사단은 칠정을 겸하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없다.
- ④ 을: 칠정은 이가 기를 탄 것이므로 선으로만 드러난다.
- ⑤ 갑과 을: 사단과 칠정은 발생하는 근원이 서로 다르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은 각각 다른 연원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이이는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칠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이황과 이이는 모두 칠정을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올라탄 감정으로 보았으며 선하거나 불선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단은 성(性)이 아니라 정(情)이다.
- ③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칠정은 사단을 겸하지만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
- ④ 이이에 따르면 기에 올라탄 이가 탁하고 치우친 기에 가려지면 상황에 맞지 않아 불선할 수 있다.
- ⑤ 이황만의 입장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장	03	#쪽	033	#번	008	#문항코드	25014-004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있어 선을 사모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따르기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악을 따르기는 무너져 내리는 듯 쉽다.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저지르게 하여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선으로 향하는 것도 그대의 공로가 되며 악으로 치닫는 것도 그대의 죄가 된다.

- ① 사단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덕임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자주지권을 발휘해야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사단에 따름으로써 마음의 기호가 형성됨을 간과한다.
- ④ 사단을 지닌 사람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사단을 확충한 후에 사덕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정약용이 이황과 이이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선은 자신의 공로가 되지만 악은 자신의 죄가 된다.

### {정답 찾기}

- 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정약용은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性)이나 이(理), 덕(德)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② 정약용은 사단을 누구나 타고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의 기호는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 ④ 정약용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자주지권이 주어져 있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

#장	03	#쪽	034	#번	001	#문항코드	25014-0041
----	----	----	-----	----	-----	-------	------------

### [문제]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게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네. 옛 도학자가 이르길. “사람의 마음으로 발하기는 쉽되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노(怒)가 제일 심한데, 노했을 때 곧 노를 잊고 이(理)를 관조할 수 있는 것은 바깥 사물의 유혹이 악을 이루는 데 충분치 못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네. “발하기는 쉽되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인가, 기(氣)인가? 틀림없이 기가 발한 것이라네. 그래서 노함을 잊고 이를 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로써 기를 제어한다는 뜻일세. 이 이야말로 본래 지극히 존귀하여 대비될 것이 없으니. 사물에 명령을 내리지만 사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기가 이겨 낼 수 없다네. 부디 감정이 일어난 곳[所從來]이 이인지 기인지를 잘 살피고 경(敬)을 위주로 수양하길 바라네 …(후략).

- ① 기(氣)를 제어하여 그 본연을 회복하면 이(理)의 악이 소멸된다.
- ② 노(怒)는 기가 발하고 이가 그 기에 올라탐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 ③ 심(心)이 아직 발하기 전이나 이미 발한 후에도 수양이 필요하다.
- ④ 정(情)의 연원을 분별해야 욕망과 도덕적 기준이 혼동되지 않는다.
- ⑤ 경(敬)으로 공부하는 목적은 이(理)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이황의 수양론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경(敬)’을 요체로 하는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경이란 몸을 주재하는 마음을 자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이(理)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정답 찾기}

① 이황에 따르면 이(理)는 그 자체로 순전하며 악이 없다.

#### {오답 피하기}

② 이황은 칠정을 기(氣)가 발하고 이가 그 기를 올라타서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노(怒)는 칠정 중 하나이다.

③ 이황은 마음이 발하기 전에는 경에 입각해서 존양(存養) 공부를 하고 마음이 이미 발했을 때는 경에 입각해서 성찰(省察)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황은 사단의 연원과 칠정의 연원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므로 본래 선하고 악이 없지만 기(氣)에 가려지면 불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단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으로써 마음을 주재하고 기를 제어해야 한다.

#강	03	#쪽	034	#번	002	#문항코드	25014-004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情)이 선한 것은 청명한 기(氣)를 타고 천리에 따라 곧장 드러나 그 중체(中體)를 잃지 않고 인의예지의 단서가 되기에 사단이라 말한다. 정이 불선한 것도 비록 이(理)에 근본하지만 더럽고 탁한 기에 가려져 그 본체를 잃고 제멋대로 드러나기에 인(仁)에 근본하나 도리어 인을 해치고, 의(義)에 근본하나 도리어 의를 해치고, 예(禮)에 근본하나 도리어 예를 해치고, 지(智)에 근본하나 도리어 지를 해치므로 사단이라 말할 수 없다.

#### <보기>

- ㄱ. 칠정이 선하게 드러나는 과정과 사단이 선하게 드러나는 과정은 동일하다.
- ㄴ. 칠정과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性)이 외부 사물에 직접 감응하여 발한 감정이다.
- ㄷ. 칠정 중 불선이 있는 것은 맑은 기가 발했으나 천리가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이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에 따르면 어떤 감정이든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올라타서 드러난다. 칠정은 감정의 총칭(總稱)이며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을 가리킨다.

##### {정답 찾기}

ㄱ.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만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칠정이 선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곧 사단이 선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 {오답 피하기}

ㄴ. 이이에 따르면 이는 외물에 직접 감응하거나 스스로 발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감정적 반응은 기가 발한 것이며 그 기가 발하는 까닭은 이, 즉 인(仁)이다.

ㄷ. 이이는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칠정 중 불선이 있는 것은 탁하고 치우친 기에 이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강	03	#쪽	035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 [03~04] [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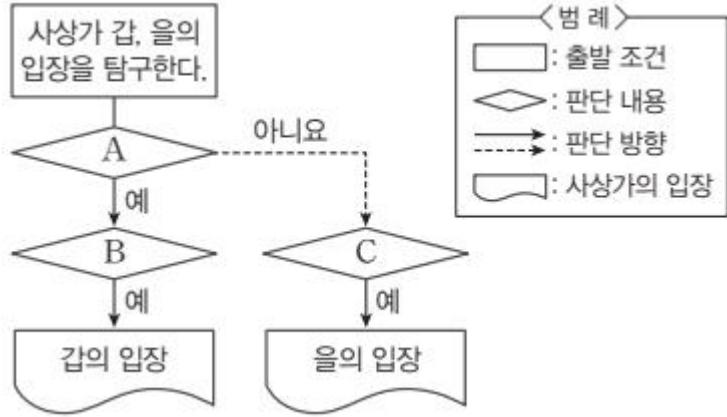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사단과 이(理)의 관계는 칠정과 기(氣)의 관계와 같다. 사단과 칠정이 발현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말미암아 나오는 바[所從來]를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은 이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된다. 을: 정은 하나이지만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이만을 말하는 것과 기를 겸하여 말하는 것의 다름 때문이다. 칠정은 마음이 동(動)할 때 일곱 가지가 있음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일변(一邊)을 말한 것이다.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기가 두 갈래 길에서 각자 나오는 것 이 된다. 어찌 사람의 마음에 두 개의 근본이 있겠는가?
---

#강	03	#쪽	035	#번	003	#문항코드	25014-0043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기 >

- ㄱ. A: 사단은 주된 바[所主]가 이에, 칠정은 기에 있는가?
- ㄴ. A: 사단은 이가 기를, 칠정은 기가 이를 주재한 정인가?
- ㄷ. B: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모두 이가 발한 것인가?
- ㄹ. C: 칠정에는 인의예지의 단서[端]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유래한 연원[所從來(소종래)]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즉 사단은 이(理)가 발한 감정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며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이황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각각의 연원이 다르므로 주된 바[所主(소주)]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므로 사단과 칠정을 주된 바에 따라 구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ㄹ.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칠정은 사덕의 실마리인 사단을 모두 포함한다.

##### {오답 피하기}

ㄴ. 이황과 이이는 모두 기에 대한 이의 주재만을 인정하였다.

ㄷ. 이황에 따르면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올라타서 드러난 감정이다.

#장	03	#쪽	035	#번	004	#문항코드	25014-004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단의 뜻은 맹자가 직접 주(注)를 써서, 불이 처음 타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샘물이 처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나, 두 개의 ‘시작[始]’이 뚜렷이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 ‘단(端)’이 ‘시작’이 되는 것은 이렇듯 분명하다. 사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했다.

- ① 갑은 사덕은 마음의 본체이고 사단은 마음의 작용임을 간과한다.
- ② 갑은 사덕이 확충되기 전까지 사단은 형성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을은 사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사단의 근본임을 간과한다.
- ④ 을은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은 사덕은 하늘이 명한 본성을 확충한 후에 갖춰짐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정약용이 이황과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성리학자들과 달리 사단의 ‘단’을 사덕의 ‘실마리[緒(서)]’가 아니라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始(시)]’으로 해석하고 사덕은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⑤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자로서 누구나 사덕을 타고난다고 본 반면, 정약용은 천명지성(天命之性)인 영지의 기호를 확충한 후에야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황이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이황은 성리학자로서 본성을 마음의 본체로, 감정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본성은 곧 사덕이고 감정에는 사단과 칠정이 있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이 제기할 반론이 아니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 ③ 이이가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기질 속에 있는 천리로서의 사덕이 맑은 기를 타고 드러난 것이다.

- ④ 정약용이 제기할 반론이 아니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 즉 영지의 기호 자체가 아니라 그 영지의 기호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장	03	#쪽	036	#번	005	#문항코드	25014-0045
----	----	----	-----	----	-----	-------	------------

### [문제]

-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사람은 가장 신령하여 인의예자신의 성(性)을 갖추었으나, 금수는 어두워서 갖추지 못하였고, 초목이나 마른 나뭇가지는 지각이 없으나 그 사물이 되는 이(理)만은 갖추지 않은 적이 없다. 만약 생기(生氣)가 없다고 해서 곧 이가 없다고 한다면 천하에 성이 없는 물건이 있고 이가 천하의 어떤 허공이나 빈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p> <p>을: 초목의 성은 생명이 되어 지각은 없고 금수의 성은 생명과 지각이 있다. 사람의 성은 생명과 지각이 있으며 신령하고 선하다. 뱃속에서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하늘은 그것에 영명(靈明)하고 형체가 없는 체(體)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것인즉, 이것을 성이라고 이른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 비판의 방향</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A, B: 비판의 내용</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갑) → A → (을)</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span> </p>

- ① A: 인간은 선보다는 불선을 행하기 쉬운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② A: 인간은 금수와 달리 본연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인간은 금수와 달리 기질지성을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B: 인간의 욕구는 선이나 악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인간의 본성은 천리가 아니라 마음의 경향성임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주희와 정약용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해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정약용이다. 주희는 초목과 동물, 인간이 모두 하나인 이(理)를 각자의 성(性)으로서 부여받으므로 만물이 부여받은 본연의 성은 근원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정약용은 초목, 금수,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은 서로 다르며 인간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를 성으로서 부여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인간의 본성을 천리(天理)로 본 주희와 달리, 정약용은 그 본성을 마음의 경향성,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구도 지니고 있어 선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악을 따르는 것은 쉽다.
- ② 주희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이(理)를 각자의 본연지성으로서 지니고 있다.
- ③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도 형구의 기호로서의 기질지성을 지니고 있다.
- ④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가 선이나 악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	03	#쪽	036	#번	006	#문항코드	25014-0046
----	----	----	-----	----	-----	-------	------------

### [문제]

갑은 중국 유교 사상가,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 갑은 궁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아픔을 알려면 스스로 아파 봐야 한다. 추위를 안다면 틀림없이 스스로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이고, 배고픔을 안다면 틀림없이 스스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암[知]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행함[行]은 저절로 그 안에 있고 행함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암은 저절로 그 안에 있다.

을: 아프면 아픈 것을 알고 배고프고 추우면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아는 것은 길거리 사람이나 금수까지도 다 능히 그럴 줄 아는데, 이를 암과 행함이라 한다면 학문함이 어찌 귀하겠는가? 성현의 학문은 마음에 근본하면서도 사물에까지 관통한다. 학문은 오직 경(敬)을 주로 삼아야 마땅하니 경을 위주로 하여 모든 사물에서 그 소당연(所當然)과 소이연(所以然)의 까닭을 궁구해야 한다.

### < 보기 >

- ㄱ. 마음에 부여된 천리(天理)는 사사로운 욕구에 가려질 수 있는가?
- ㄴ. 사물에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 ㄷ. 인간은 하늘로부터 시비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을 부여받고 태어나는가?
- ㄹ. 도덕적 암과 도덕적 행함은 본래 하나이므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왕수인과 이황의 지행론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왕수인, 을은 이황이다. 이황은 감각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암과 행함이 별개가 아닐 수 있지만 의리(義理)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힘쓰지 않으면 해내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왕수인의 지행합일설을 비판하였다.

##### {정답 찾기}

ㄴ. 왕수인은 긍정, 이황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온전히 발휘하면 누구나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암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ㄹ. 왕수인은 긍정, 이황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의리의 경우 암과 행함을 하나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왕수인의 지행합일설을 비판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왕수인과 이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과 이황은 모두 천리가 사사로운 욕구에 가려질 수 있다고 보고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ㄷ. 왕수인과 이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맹자가 주장한 시비지심과 같은 것이다. 이황 역시 시비지심을 비롯한 사단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강	03	#쪽	037	#번	007	#문항코드	25014-0047
----	----	----	-----	----	-----	-------	------------

### [문제]

그림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왕(帝王)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병을 살펴서 약을 쓰는 듯해야 합니다. 기질을 교정하는 방법은 극기(克己)에 있습니다. 기질에는 맑음과 흐림, 순수함과 혼탁함의 차이가 있지만 참된 지식과 실천으로써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본성[性]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면 터럭만큼 보태지 않더라도 선(善)을 다 갖추게 됩니다.

학문의 길은 기질을 잘 타고나거나 잘못 타고나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천리(天理)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와 천리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따름입니다.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고 경(敬)은 마음의 주재자입니다. 군자는 마음이 고요 할 때는 반드시 존양(存養)으로써 그 본체를 보전하고, 정(情)이 발할 때는 반드시 성찰(省察)으로써 그 작용을 바르게 합니다.



#### < 보기 >

- ㄱ. 경(敬)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성(誠)에 이르기 위함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ㄴ. 천지의 모든 변화는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서 일어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ㄷ. 도덕 감정의 선함과 일반 감정의 선함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임을 모르고 있다.
- ㄹ.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마음속의 이치[理]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이황이 이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이(理)는 본래 순천하므로 터럭만큼의 수양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질의 탁함과 치우침이 불선의 원인이므로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矯氣質(교기질)]고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이황은 경(敬) 공부를 강조하였는데 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理)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될 것이며 이를 밝힘으로써 기질의 치우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정답 찾기}

ㄱ. 이이는 성(誠)을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로 보았으며 경(敬)으로써 마음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을 제거하면 마음의 본체인 성이 온전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황 역시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천도)]이고 경은 사람의 길[人道(인도)]임을 강조하면서 성으로 나아가려면 경으로써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이이는 도덕 감정인 사단을 일반 감정인 칠정의 일부분으로 보았으나,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기 다른 연원을 갖는 별개의 감정으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이의 발함을 강조한 이황과 달리, 이이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한 천지의 모든 변화를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ㄹ. 이이와 이황은 모두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마음속에 부여된 이치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강	03	#쪽	037	#번	008	#문항코드	25014-0048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자는 “자신을 이겨 예(禮)를 회복하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하셨으니, 분명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 하늘이 하나의 날알로 인의 덩어리를 만들어 사람의 마음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신독(慎獨) 공부를 통해 하늘을 섬기고 힘써 서(恕)를 실천함으로써 인을 구하며 오래 지속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나)	어떻게 해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 ① 인을 꾸준히 실천하여 마음의 악한 기호를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 ② 욕망 자체를 소멸시켜 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③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인을 형성해야 한다.
- ④ 하늘은 물리적 대상일 뿐이며 도덕 본성과는 무관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⑤ 치우치고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 본성의 본체인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예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정답 찾기}

③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서(恕)를 확충하면 인(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정약용에 따르면 마음의 기호는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② 정약용은 욕망[欲(욕)]을 삶의 추동력으로 보았다. 즉 욕망이 없으면 공부나 일은 물론 선이나 악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自主之權(자주지권)]를 인간에게 부여한 하늘을 인격적 존재인 상제(上帝)로 보았으며,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로서의 본성을 부여했다고 보았다.

⑤ 주희의 입장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본성은 일종의 경향성[嗜好(기호)]이며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43
02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4강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강	04	#쪽	043	#번	001	#문항코드	25014-004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색(色)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없고, 밝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受)·상(想)·행(行)·식(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괴로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없느니라.

- ① 고통은 인간의 생각, 말, 행동으로 인해 비롯된다.
- ② 오직 선행에 집착하는 것만이 윤회를 멈출 수 있다.
- ③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립적 실체로 존재한다.
- ④ 일체 지혜를 버리는 무명(無明)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세상의 모든 존재의 미래는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색수상행식, 즉 오온(五蘊)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제시문은 오온에 연연하면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정답 찾기}

①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각, 말, 행동 등 업(業)에 의해 과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고통도 업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석가모니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한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열반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깨닫지 못한다면 생멸하는 윤회를 면출 수 없다.

③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독립적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⑤ 석가모니는 숙명론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강	04	#쪽	043	#번	002	#문항코드	25014-005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일 모든 존재들이 변화하지 않는 확고한 자성(自性)을 갖고 있다면,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으며 죄도 없고 복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은가? 따라서 모든 존재는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보기>

- ㄱ. 일체는 고유한 자성을 가진 존재로 구성된다.
- ㄴ. 마음과 달리 모든 사물의 실체는 고정되어 있다.
- ㄷ. 생성하고 소멸하는 만물의 실체는 공할 뿐이다.
- ㄹ. 연기에 의해서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용수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용수의 주장이다. 용수는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므로 고정불변의 독자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ㄷ. 용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고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ㄹ. 용수는 이 세상의 인간의 마음과 만물의 존재, 현상은 모두 연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멸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용수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 때문에 고유한 자성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 ㄴ. 용수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	04	#쪽	043	#번	003	#문항코드	25014-0051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식이 전변(轉變)하여 분별[見分, 주관적인 부분]과 분별되는 것[相分, 객관적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만약 오직 식만이 있고 외부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거해서 갖가지 분별이 생겨나겠습니까? 일체종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전변함에 의거해서 전전하는 세력 때문에 이러한 분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부의 식은 있지만, 외부 대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 ① 모든 사물은 공하고 고정된 자성이 존재할 수 없다.
- ② 마음에 의해 일체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소멸한다.
- ③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오직 식(識)으로만 존재한다.
- ④ 요가를 수행하여 분별이 없는 지(智)를 얻을 수 있다.
- 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독자적 자아를 확고히 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세친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세친의 주장이다. 유식 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으로만 존재하고,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정답 찾기}

⑤ 세친은 아집과 집착에 의해서 자아라는 의식이 생겨난다고 보았고, 이러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세친의 유식 사상도 용수의 중관 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공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② 세친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고 마음에 의해 만물이 생성, 소멸한다고 보았다.

③ 세친은 유식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오직 식으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세친으로 대표되는 유식 사상은 요가 수행을 통해 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강	04	#쪽	043	#번	004	#문항코드	25014-005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리석은 범부는 색(色)을 사랑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되고, 취함[取]을 인연하여 존재[有]가,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보기>

- ㄱ. 고행을 통해서만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
- ㄴ. 법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ㄷ. 생멸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참된 진리이다.
- ㄹ. 오온(五蘊)은 무상하므로 고통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색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이를 추하게 되는 인연에 의해 고통이 발생한다고 본다.

#### {정답 찾기}

ㄴ. 석가모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 자신이 깨달은 법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ㄷ.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생멸하는 오온에 집착하기보다 집착을 끊고 해탈을 위한 참된 진리를 얻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ㄱ.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고행은 깨달음에 있어 무의미하며 중도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오온은 일시적이고 변화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오온에 집착하며 고통을 받는다. 석가모니는 오온 그 자체도 고통이라고 보았다.

#강	04	#쪽	044	#번	005	#문항코드	25014-0053
----	----	----	-----	----	-----	-------	------------

## [문제]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살은 분별이 없어진 지혜[無分別智]로써 언설을 여읜 진여[離言說眞如]의 법신을 증득하였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十方世界]에 두루 가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되 오직 중생을 위하여 이익된 일을 하려 할 뿐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듣기 위함은 아니다. 혹은 겁약한 중생을 위하여 큰 정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속히 정각(正覺)을 이루는 모습을 시현하며, 혹은 게으른 중생을 위하여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서야 비로소 성불하기도 한다.

- ①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② 부파를 형성하여 계율과 경전의 해석에만 몰두하였다.
- ③ 자신만의 해탈을 위하여 엄격한 종교성을 중시하였다.
- ④ 부처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 ⑤ 대중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으로 삼았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대승 불교 사상의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대승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으로 삼는데,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를 함께 추구한다.

## {정답 찾기}

⑤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하는데, 보시바라밀은 육바라밀 중 하나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아라한은 부파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 ② 계율과 경전의 해석을 통해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는 것은 부파 불교의 특징이다.
- ③ 자신의 해탈을 위하여 엄격한 종교성을 중시하는 것은 부파 불교의 특징이다.
- ④ 대승 불교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타고난다고 보며, 수행의 목표는 성품을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성불하는 것이다.

#강	04	#쪽	044	#번	006	#문항코드	25014-005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清淨)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생멸(生滅) 없음을 내 어찌 생각했으리오! 자성이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었음을 내 어찌 기대하였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 없음을 내 어찌 예측했으리오! 자성이 그 자체로 능히 만법을 냄을 내 어찌 알았으리오.

- ① 자신이 부처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분별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 ③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누구나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 ④ 아미타불을 부르며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 ⑤ 해탈에 이르기 위해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혜능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혜능의 주장이다. 혜능은 선종의 대표적 인물이며, 자신의 본래 청정한 성품[自性(자성)]을 단박에 깨닫게 되면 수행도 단박에 완성되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③ 혜능은 근기(根機)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에 빠진 중생 모두

누구나 단박에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혜능은 자신이 곧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주저하는 퇴굴심(수도인이 정진하지 못하고 물러서거나 타락하는 마음)을 경계한다.
- ② 혜능뿐만 아니라 불교는 무분별지를 지향하고 분별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 ④ 아미타불을 부르며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파는 정토종이다.
- ⑤ 해탈에 이르기 위해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교종의 특징이며, 혜능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장	04	#쪽	044	#번	007	#문항코드	25014-005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定)은 체(體)이며 혜(慧)는 용(用)이다. 체와 떨어지지 않는 용이기 때문에 혜는 정을 여의지 않고, 용과 떨어지지 않는 체이기 때문에 정은 혜를 여의지 않는다. 정이 곧 혜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혜가 곧 정이기 때문에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조계(曹溪)가 이르기를, “마음에 산란 없음이 자성(自性)의 정(定)이며,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혜(慧)이다.”라고 하였다.

### < 보 기 >

- ㄱ. 선(禪)은 부처의 마음, 교(教)는 부처의 말씀이다.
- ㄴ. 몸에 밴 습성은 점수(漸修)로써 소멸시켜야 한다.
- ㄷ. 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선을 익힐 필요가 없다.
- ㄹ. 진리는 단박에 깨칠 수 없어 경전에 의존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지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지눌의 주장이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지눌은 선을 부처의 마음, 교를 부처의 말씀이라고 보고 선교일원(禪教一元)을 주장하였다. 즉 선과 교가 따로 있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이다.

ㄴ. 지눌은 단박에 우리가 부처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몸에 밴 습성을 점진적 수행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지눌은 선과 교는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하나의 수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았다.

ㄹ.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돈오를 인정하였다.

#강	04	#쪽	044	#번	008	#문항코드	25014-005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기 다른 견해로 쟁론이 일어날 때란, 유(有)라는 견해에 동조하여 말하면 공(空)의 견해와 다르게 되고, 공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여 말하면 유라는 주장과 다르게 되어, 동조건 반대건 한층 그 쟁론만 조장하게 된다. 또 저 두 견해에 모두 동조하면 스스로 그 안에서 모순을 일으켜 논쟁하게 되고, 두 견해에 모두 반대하면 그 두 견해와 논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따르지도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말해야 한다.

————— < 보 기 > —————

- ㄱ. 참과 거짓마저 집착하지 말고 초월해야 하는가?
- ㄴ. 깨달음은 오로지 마음으로 주고받아 이루어지는가?
- ㄷ. 근기(根機)와 상관없이 단박에 깨칠[頓悟] 수 있는가?
- ㄹ. 생멸의 현상에서 진여(眞如)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원효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일심을 일체의 분별과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것이며, 본래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사상을 분리시켜 자기 종파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원효는 일심을 근거로 하여, 참과 거짓, 옳고 그름, 나와 너와 같은 대립을 초월할 것을 강조하였다.

ㄹ. 원효는 일심은 참되고 한결같은 본체적인 면인 진여와 움직이는 현상적인 면인 생멸로 나뉘면서도 생멸 속에 진여가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깨달음이 오로지 마음으로 주고받아 이루어진다는 입장은 선종의 입장이다. 원효는 교종의 전통을 따르는 승려이다.

ㄷ. 근기와 상관없이 단박에 깨칠 수 있다는 입장은 선종의 입장이다. 원효는 교종의 전통을 따르는 승려이다.

#강	04	#쪽	045	#번	001	#문항코드	25014-0057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사문 바라문(수행자)들이 법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법의 발생, 법의 소멸, 법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사문이지만 사문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바라문이지만 바라문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략)… 어떤 법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법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어떤 법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법의 소멸로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늙음[老]과 죽음[死]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늙음과 죽음의 발생·늙음과 죽음의 소멸·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 ① 수행의 궁극 목적은 만물을 분별하여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 ② 업(業)에 의한 일체의 결과를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명과 애욕에 의해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 ④ 팔정도를 수행하여 한 번뿐인 삶을 영속적으로 윤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별도의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인과의 법칙을 바로 알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행을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 {정답 찾기}

③ 석가모니는 연기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과 그로 인한 애욕으로 필연적으로 고통에 빠진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난 무분별의 지혜, 즉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② 석가모니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인 업에 의한 결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④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윤회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덟 가지의 수행 방법인 팔정도를 통해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석가모니는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삼학을 닦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삼학은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교리이다.

#강	04	#쪽	045	#번	002	#문항코드	25014-0058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색에는 나[我]가 없다. 만일 색이 ‘나’라면 색에는 응당 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도 없을 것이다. 색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색에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요, 또한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다.

을: 명예와 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에게 가깝고, 몸과 재화 중에서 어느 것이 귀중하며, 소득과 망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병이 될까? 그러므로 심한 애착은 삶을 반드시 크게 소모시키고, 많은 소유의 저장은 반드시 크게 잊기 마련이다.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해야만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 보 기 >

- ㄱ. 하늘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선한 본성을 부여하였다.
- ㄴ. 구하기 어려운 재화들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 ㄷ. 인간은 자연과의 연계성을 깨닫고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선(善)과 불선(不善)을 명확히 분별하고 실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석가모니와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석가모니, 을은 노자이다. 석가모니는 물질적 현상인 색을 비롯하여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구하기 어려운 재화에 집착하며 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ㄴ. 석가모니와 노자 모두 이상적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부질없는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ㄷ. 석가모니는 만물은 불가분의 연기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보았고, 노자는 인간은 자연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석가모니와 노자의 입장에서 인간은 자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석가모니와 노자 모두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한다고 보지 않았다.

ㄹ. 노자는 인위적 가치 기준인 선과 불선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강	04	#쪽	046	#번	003	#문항코드	25014-0059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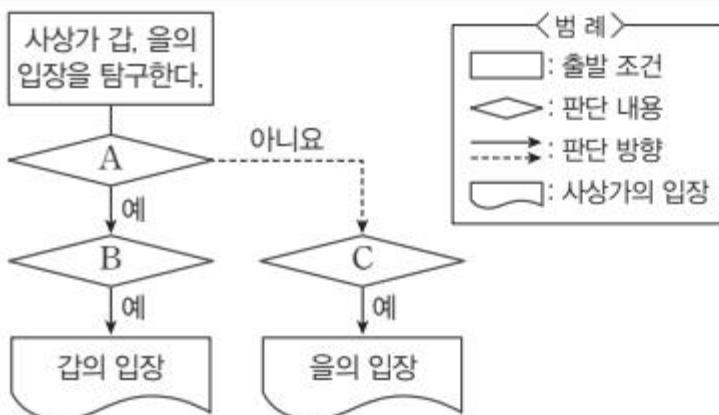
[문제]

(가)의 인도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대승에서 삼계(三界)는 오직 식(識)뿐이라고 말한다. 경전에서 삼계는 오직 마음[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심(心) · 의(意) · 식(識) 및 구별해서 아는 것[了別]은 명칭의 차이이다.  
을: 오온의 몸이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 남는 것이 없으니 오직 공성[空]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공성의 이치를 보여 주고자 “모든 행(行)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



#### < 보기 >

- ㄱ. A: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서 비롯되므로 실체로서의 자성은 없는가?
- ㄴ. B: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이 필요한가?
- ㄷ. C: 일체 번뇌의 실상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가?
- ㄹ. C: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므로 실체가 없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세친과 용수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유식 사상가인 세친, 을은 중관 사상가인 용수이다. 유식 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으로만 존재하고,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중관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므로 고정불변의 독자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정답 찾기}

ㄴ. 세친이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유식 사상에서는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인 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ㄷ. 용수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의 입장에서 일체 번뇌의 실상은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ㄹ. 용수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용수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일시적 현상이며 근본적으로는 공할 뿐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세친과 용수가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대승 불교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실상은 공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질문은 대승 불교의 전통에 있는 용수와 세친의 공통된 입장이다.

#장	04	#쪽	046	#번	004	#문항코드	25014-0060
----	----	----	-----	----	-----	-------	------------

### [문제]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심(信心)을 간략히 말하면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근본을 믿는다. 이른바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佛)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믿는다. 항상 불을 생각하고, 가까이하고, 공양하고, 공경해서, 선근(善根)\*을 일으켜 일체자를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다고 믿는다. 항상 법을 생각해서, 모든 바라밀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승(僧)은 바르게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항상 모든 보살을 가까이함을 즐기고 참된 수행을 배우기를 구하기 때문이다.

\*선근(善根): 온갖 선을 낳는 근본. 욕심부리지 않음, 성내지 않음, 어리석지 않음 등

- ① 수행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인내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는 찰나적으로 나타날 뿐인가?
- ③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誓願]은 모두 허무한가?
- ④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중생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가?
- ⑤ 미혹(迷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시에 집착해야 하는가?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대승 불교 사상의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대승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에서 제시되는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한다. 보살은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 {정답 찾기}

- ② 대승 불교는 우주 만물은 항상 무수한 인연에 의해 유전(流轉)하여 한 모양,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찰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승 불교는 육바라밀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데, 육바라밀 중 인육바라밀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동요 없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서원으로 삼는다.
- ④ 대승 불교는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소승 불교를 비판하며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한다.
- ⑤ 대승 불교에서 보시를 행하는 것은 수행의 일부이며, 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참된 보시는 어떠한 짐작 없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강	04	#쪽	047	#번	005	#문항코드	25014-0061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法)을 공(空)이라고 설하며, 가명(假名)이라고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나)	<p>(A)</p> <p>(B)</p> <p>[가로 열쇠]</p> <p>(A): 사람의 인위적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 “무위○○”</p> <p>(B): 성리학에서 이(理)와 기(氣)를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하면 “○○○○”</p> <p>[세로 열쇠]</p> <p>(A): ..... 개념</p>

- ① 만물이 서로 의존하여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공(空)한 것이다.
- ② 유와 무에 짐작하지 않는 관점에서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행위이다.
- ③ 오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이다.
- ④ 중생이 자신의 맑고 깨끗한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닫는 것을 말한다.
- ⑤ 깨달음을 지향하며 대중을 구제하는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수행 덕목이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용수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용수의 주장이다. 용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공하다고 말하였다. 공이란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자연’, 가로 낱말 (B)는 ‘본연지성’이다. 따라서 세로 낱말 (A)은 ‘자성’이다.

##### {정답 찾기}

① 용수는 만물이 서로 의존하여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무자성을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②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는 관점에서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행위는 중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오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은 식(識)이다.

④ 중생이 자신의 맑고 깨끗한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닫는 것은 돈오이다.

⑤ 깨달음을 지향하며 대중을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수행 덕목은 바라밀이며 보시는 바라밀 중 하나이다.

#강	04	#쪽	047	#번	006	#문항코드	25014-0062
----	----	----	-----	----	-----	-------	------------

### [문제]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 삼매(三昧)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無念)이니라.

을: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

#### <보기>

- ㄱ. 갑: 참된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직관하는 데서 비롯된다.
- ㄴ. 갑: 경전에 얹매이는 것을 경계하되, 경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 ㄷ. 을: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 ㄹ. 갑과 을: 이론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도 참다운 깊이 이를 수 있다.

- ① 그, 근
- ② 냐, 둔
- ③ 냐, 근
- ④ 그, 냐, 둔
- ⑤ 그, 둔, 근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혜능과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혜능, 을은 왕수인이다. 혜능은 중생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직관하면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頓悟(돈오)]고 보았다. 왕수인은 이론적 학습 없이도 이미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양지를 성심껏 발휘하면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그. 혜능은 자기 마음을 직관할 때 참된 자신의 성품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왕수인은 사람에게 누구나 타고난 양지가 있으며, 이는 하늘의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 근. 혜능과 왕수인은 모두 경전을 통해 이론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도 참다운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혜능은 경전에 얹매이는 것을 경계하였고 자신의 본래 성품이 깨끗함을 깨닫게 되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강	04	#쪽	048	#번	007	#문항코드	25014-0063
----	----	----	-----	----	-----	-------	------------

### [문제]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법(佛法)이라는 것은 표현해 낼 언어가 없지만 언어적 표현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언어적 표현을 떠나면 오히려 미혹되고, 언어적 표현에 집착하면 참된 것을 놓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 재주를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드물고 사람이 출렁함을 갖추기도 어렵다 보니, 가르침[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안의 것을 버리고 바깥의 것을 추구하며, 선(禪)에 익숙한 사람은 일상의 연을 끊고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갑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지만 요체를 말하자면 돈오와 점수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돈수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미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에 의거하여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익혀 오다가 금생(今生)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일시에 모든 것을 마친 것이니 실제를 논한다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을

- ① 갑: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
- ② 갑: 불법은 언어로써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지만 언어를 떠난 것도 아니다.
- ③ 을: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는 지속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을: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임을 단박에 깨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다른 종파를 존중하되 수행의 방법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의천과 지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내외겸전(內外兼全)을 주장하면서 내적인 공부[禪宗(선종)]와 외적인 공부[敎宗(교종)]를 함께 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눌은 중생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더라도 오래된 습기(習氣)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닦는 수행인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⑤ 의천과 지눌은 모두 선종과 교종을 존중하고 각각의 수행 방법을 종합하여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천은 내외겸전, 교관겸수를 주장하며 교종과 선종에서 강조하는 수행 방법을 조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의천은 불법은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 언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언어로써 불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도 않았다.
- ③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 ④ 지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면 단박에 깨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	04	#쪽	048	#번	008	#문항코드	25014-006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마음[一心]이란 무엇인가? 물들고 깨끗한[染淨] 모든 현상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참과 거짓[眞妄]의 두 측면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 이름하며,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현상 가운데 차 있는지라 텅 빈 것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비롭게 이해[神解]하기 때문에 ‘마음[心]’이라 이름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 붙여 한마음이라 하는 것이다.

- ① 일심은 나와 너, 깨끗함과 더러움 등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마음이다.
- ② 중생의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생멸 윤회를 피할 수 없다.
- ③ 경전을 읽지 못해도 염불 수행으로써 극락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다.
- ④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다 보면 부처의 자비 정신이 왜곡되어 훼손된다.
- ⑤ 일체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변화하므로 마음의 본체[眞如]도 생멸할 뿐이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원효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의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의 대립을 넘어서서 높은 차원에서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③ 원효는 경전을 읽지 못하더라도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하는 염불 수행을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원효는 일심 사상을 통해 나와 너,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등의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원효는 중생의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한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이라고 명명하였다.

淸淨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이라고 하였다.

④ 원효는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며 이를 부처의 자비 정신으로부터 발전시켰다.

⑤ 원효는 일심의 두 측면으로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변화하는 생멸문과 맑고 고요한 마음의 본체인 진여문이 있다고 보았다. 진여문은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생멸하지도 않으며 오염되지도 않는다.

#장	04	#쪽	049	#번	009	#문항코드	25014-0065
----	----	----	-----	----	-----	-------	------------

### [문제]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을: 교(教)를 배우는 이는 안을 버리고 밖에서 문자로만 구하려 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걸핏하면 인연을 잊고 안으로 한쪽 마음만 밝히기를 좋아하니 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고집이다.

####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직관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에 의해서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 수행에 있어서 선(禪)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을은 ㉣ 마음을 집중하여 사물을 통찰하는 지관(止觀) 수행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승 불교의 입장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⑤

⑤ ⑥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혜능과 의천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선종의 승려 혜능, 을은 교종의 승려 의천의 주장이다.

##### {정답 찾기}

② 의천은 교종의 승려지만 내외겸전, 교관겸수를 주장하며 교학 수행과 참선 수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혜능은 선종의 승려로서 돈오돈수를 주장하며 자신의 마음을 직관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혜능은 수행 방법에서 직관적 종교 체험인 선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④ 의천은 천태종이 강조하는 수행 방법인 교리 공부와 더불어 지관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혜능과 의천은 대승 불교의 전통에 따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강	04	#쪽	049	#번	010	#문항코드	25014-006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성(性)이 바로 법의 성이다. 원래부터 번뇌의 성이 스스로 떠나, 또랑또랑하려면 곧 또랑또랑하고 분명할 때에는 그대로 분명한 줄을 확실히 믿고 안다. 그 삶에 의해 닦는 이는 아무리 오래전부터의 습기(習氣)가 있더라도 집착이 없는 지혜로 다스리면, 그것이 본 지혜이므로 억제할 것도 없고 끊을 것도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			∨	∨
자신의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			∨	∨
돈오 이후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	∨		∨	
선과 교는 마치 부처의 마음과 말씀처럼 본래 하나이다.				∨	∨	∨
경전을 통해 지혜를 쌓지 않으면 견성(見性)할 수 없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지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지눌의 주장이다. 지눌은 선종의 전통을 따르는 승려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를 단박에 깨닫는 돈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지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입장. 지눌은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한 후에도 오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며, 정혜쌍수를 통해 부처의 마음인 선(禪)과 부처의 말씀인 교(教)는 본래 하나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 {오답 피하기}

네 번째 입장. 지눌은 선종의 승려지만 경전 공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경전을 통해서만 견성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54
02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5강	도가 사상과 무위자연의 윤리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지어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① 학문에 정진하여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한다.
- ② 민생이 안정되도록 왕도(王道)를 실현해야 한다.
- ③ 현재의 삶이 내세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④ 현자를 숭상하기보다 자연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 ⑤ 자신의 삶을 자연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주재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도(道)에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도를 말할 수도 없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노자는 현자를 숭상하기보다 자연의 흐름 또는 도에 따라 살 것을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 학문이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 ②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왕도 정치를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 ③ 현재의 삶이 내세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 ⑤ 노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그릇된 것이라고 보았다.

#장	05	#쪽	054	#번	002	#문항코드	25014-006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道)는 본래 상대적인 진실이나 허위와는 무관하게 독립된 것인데, 도대체 무엇에 가려져 진실과 허위라는 분별이 있게 되는 것일까? 말은 또 무엇에 가려져 옳고 그름이 있게 되는 것일까? 도라는 것은 아무 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말이란 존재한들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도는 작은 성취에 숨겨져 있으며, 말은 화려한 수식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 < 보기 >

- ㄱ. 인간의 도리는 충서(忠恕)로 일관되어 있다.
- ㄴ. 대도(大道)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은 평등하다.
- ㄷ. 덕에 따르는 삶은 자연의 변화에 참견하지 않는다.
- ㄹ.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장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는 본래 상대적인 진실이나 허위와 무관한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였으며, 타고난 자연스러운 성품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ㄴ.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 ㄷ.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참견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 {오답 피하기}

- ㄱ. 인간의 도리가 충서로 일관되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ㄹ. 장자는 수양을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쓸모 있거나 유용한 존재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떠받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귀중하다고 하는 재화를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훔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 ① 인의(仁義)를 실현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 ② 자연을 인간의 행복과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 ③ 부쟁(不爭)의 덕을 실천해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 ④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덕(德)을 지니지 않는다.
- ⑤ 예로써 능력과 신분 등에 알맞게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화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노자는 최고의 삶은 물과 같은 삶이라고 보았으며,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② 자연을 인간의 행복과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서양적 사고이며, 노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④ 노자는 인간도 자연의 덕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⑤ 예로써 백성의 능력과 신분에 맞게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장	05	#쪽	054	#번	004	#문항코드	25014-007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不仁] 세상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놓는다.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법이니 그 알맞음[中]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

< 보기 >

- ㄱ.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진다.
- 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영원한 도가 될 수 없다.
- ㄷ. 성인은 허정(虛靜)하게 있어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
- ㄹ. 예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2

[해설]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은 인(仁)하지 않는 천지불인(天地不仁)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인과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를 추구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ㄱ. 노자는 인위적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사회는 혼란해진다고 보았다.
- ㄷ. 노자는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추구하였으며, 자연에 따르는 무위의 다스림은 허정(虛靜)의 특징을 갖는다. 허정은 세속적 욕심과 집착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ㄴ. 노자가 주장한 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 ㄹ. 예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순자의 입장이다.

#장	05	#쪽	055	#번	005	#문항코드	25014-0071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대한 도[大道]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며, 위대한 변론[大論]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위대한 사랑[大仁]은 편애하는 바가 없으며, 위대한 청렴[大廉]은 밖으로 드러나는 겸양이 아니며, 위대한 용기[大勇]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말로 표현되면 더 이상 도가 아니고, 변론이 말로 나타나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생기게 된다.

< 보기 >

- ㄱ.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흘어지는 것이다.
- 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 ㄷ. 자연적 덕(德)을 따르는 것이 도와 일치하는 삶이다.
- ㄹ. 불선하고 허한 마음[虛心]을 수양으로써 바로잡아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1

[해설]

장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노자처럼 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며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는 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ㄱ. 장자는 삶과 죽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연의 순환처럼 기가 모이고 흘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ㄷ. 장자는 이상적인 삶은 도와 일치하는 삶이며, 이는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ㄴ. 장자는 죽음을 특별히 애도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애도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본 것은 유교이다.

ㄹ.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인 좌망과 심재는 마음을 가다듬어 감각에 의해 얻어진 지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강	05	#쪽	055	#번	006	#문항코드	25014-0072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른 개의 바큇살이 한군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야만 수레의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야만 그릇의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야만 방의 쓸모가 생겨난다.

- ① 통치자가 욕심을 버리면 백성 스스로 순박해진다.
- ② 이로운 문물을 통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
- ③ 인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백성에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 ④ 나라를 작게 하여 성현의 예법을 바르게 실현해야 한다.
- ⑤ 부국강병을 위해 엄격하고 공평한 법치를 행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에 따르면 무위(無爲)의 삶은 비움[虛]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비울 때 진정한 쓸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답 찾기}

① 노자는 백성을 위한 정치는 통치자가 백성을 영악하게 하지 않고 순박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통치는 모자란 듯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② 노자는 나라에 이로운 문물이 많아지면 나라가 더욱 혼란해진다고 보았다.

③ 노자는 대도(大道)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륜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여 인륜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④ 노자는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예법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위와 무욕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⑤ 노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법치를 강조한 사상은 법가이다.

#강	05	#쪽	055	#번	007	#문항코드	25014-0073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무릇 덕이 충만한 세상에는 새나 짐승들과 함께 살았고 만물과 공존했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었으리오. 모두가 무지하고 순박하여 그 덕을 잃지 않았고 모두가 욕심 없이 소박했는데, 소박해야만 백성들의 본성이 지켜지는 것이다.

**을:** 백성들을 행정 명령[政]으로 이끌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들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바르게 될 것이다.

- ① **갑:** 예를 언행의 기준으로 삼아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갑:**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 ③ **을:** 혈연과 친소 관계와 상관없는 겸애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을:**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 미추의 분별은 상대적이다.
- ⑤ **갑과 을:** 도의 본질에 맞는 행위를 법률로써 억압하면 안 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장자와 공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장자는 백성이 소박해야만 백성들이 본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를 따르게 되면 만물을 모두 평등하게 여기게 된다고 보았다. 공자는 백성을 덕으로써 다스려야 단지 형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릇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장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법률과 같은 인위로써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공자는 효와 자애와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법률로써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장자나 공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의 본질을 억압하는 행위를 반대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예를 언행의 기준으로 삼아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②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③ 혈연과 친소 관계를 벗어난 무차별적 사랑을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 ④ 도의 관점에서 선악, 미추 등의 분별을 상대적으로 본 사상가는 장자이다.

#강	05	#쪽	055	#번	008	#문항코드	25014-0074
----	----	----	-----	----	-----	-------	------------

### [문제]

그림은 어느 학생의 노트 내용이다. 동양 사상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노자를 신격화하여 교조로 받들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으며 입도자에게 다섯 말의 쌀을 바치게 함
- (나) 청담을 통해 인간의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 (다)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노자를 숭상하고,  
무위(無爲)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함

< 보기 >

- ㄱ. (가)는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것을 강조하였다.
- ㄴ. (나)는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 ㄷ. (다)는 상벌을 강조한 법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나)와 (다)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도가적 이상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1

[해설]

**오두미교, 현학, 황로학파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오두미교, (나)는 현학, (다)는 황로학파이다. 오두미교는 교단을 갖추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 선행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였다. 위진 시대의 현학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으며, 대표적 사상가로 죽림칠현을 들 수 있다. 황로학파는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숭상한 학파로, 무위(無爲)로써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 ㄱ. 오두미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도덕적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 ㄴ. 현학은 인간의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며,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 황로학파는 도가를 중심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을 수용하였다.
- 황로학파는 노자의 사상을 정치적 측면에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현학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담론을 즐겼다.

#장	05	#쪽	056	#번	001	#문항코드	25014-007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대도(大道)가 사라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고 가족이 불화하자 효도니 자애니 하는 게 생겨났고 국가가 혼란해지자 충신이 생겨났다.
- 혼란한 색[五色]은 눈을 멀게 하고 시끄러운 음악[五音]은 귀를 멀게 하며 자극적인 음식[五味]은 입을 상하게 하고 과격한 사냥은 마음을 미치게 하며 얻기 어려운 재화는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에 시장기만 면하려 할 뿐 눈요깃거리는 취하지 않고 자족의 삶을 산다.

### < 보 기 >

- ㄱ. 통치자는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와 역할을 정해 주어야 한다.
- ㄴ. 법적 규제를 통해 백성이 빈곤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ㄷ. 마음을 허정(虛靜)하게 하여 자연의 순수한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 ㄹ. 모욕받는 것을 경계하듯 총애[寵]받는 것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은 넘치도록 채우는 것보다 멈추고 비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혼란하고 화려한 색, 소리, 맛을 경계하며 구하기 어려운 재화를 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 노자는 인간도 순박한 자연의 덕을 타고난다고 보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할 것을 강조하였

다.

근. 노자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 따라 겸허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을 인정받고 총애받는 것도 모욕받는 것을 경계하듯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노자는 통치자가 어수룩한 듯하게 다스려야 백성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통치자가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와 역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는 공자이다.

ㄴ. 노자는 법령이 많아지면 도둑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과 같은 강한 인위적 기준을 거부하였다.

#장	05	#쪽	056	#번	002	#문항코드	25014-0076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를 길게 해 주면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이를 짧게 해 주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부터 짧은 것을 길게 해도 안 되며, 이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인의는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인 듯하다.

을: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五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이다.

### <보기>

- ㄱ. 갑: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평등하다.
- ㄴ. 을: 무명(無明)에 이를수록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ㄷ. 갑과 을: 참된 지혜는 분별과 대립에서 벗어나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 ㄹ. 갑과 을: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장자와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물오리의 다리가 짧고 학의 다리가 긴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인위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석가모니는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이 집착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에 처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장자는 제물(齊物)을 주장하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다고 보았다. 도의 관점에서 분별은 그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ㄷ. 장자와 석가모니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석가모니는 무명, 애욕, 성냄의 삼독을 제거해야 고통이 사라진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장자와 석가모니는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석가모니는 이를 부정하면 고통에 빠진다고 주장하였다.

#장	05	#쪽	057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03~04] [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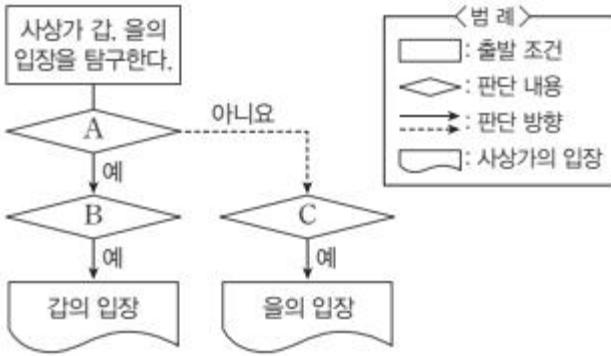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사람은 물속에서는 살 수 없다. 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 옛 성현들도 그들의 능력을 한 가지로 보지 않고 할 일을 똑같이 맡기지도 않았던 것이다. 명목이 실제에 부합하고 법도가 본성에 맞도록 했다. 이를 일러 조리가 닿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을: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의 장심 살도 욕심이 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차지하리라. 삶도 바라는 것이요, 의(義)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

#장	05	#쪽	057	#번	003	#문항코드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 사람들이 예악(禮樂)을 가까이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 ㄴ. B: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가?
- ㄷ. B: 이상적 인간은 공로[功]와 명예[名]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 ㄹ. C: 본심을 잃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도 시비(是非)를 가릴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장자와 맹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물고기와 사람은 모두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예시를 통해 인위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을 반대하였다. 맹자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의로움[義]도 추구하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의로움을 택해야 한다는 사생취의(捨生取義)를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ㄷ. 장자는 공로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소박하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ㄹ. 맹자는 양지양능설을 주장하며 사람은 태어난 본성에 따라 배우지 않고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으며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장자는 예악이나 인의를 따르는 것은 본심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까이 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맹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바른 예악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장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성선설은 맹자의 주장이다.

#장	05	#쪽	057	#번	004	#문항코드	25014-007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를 체득한 훌륭한 옛사람은 미묘현통(微妙玄通)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니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형용을 하라 한다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의 이웃 대하듯 주춤거리고, 손님처럼 어려워하고, 녹으려는 얼음처럼 맷힘이 없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계곡처럼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탁한 것을 고요히 하여 점점 맑아지게 할 수 있는 이 누구겠는가?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점점 생동하게 할 수 있는 이 누구겠는가? 도를 체득한 사람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새로워진다.

- ① 갑은 하늘의 도에 맞는 예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② 갑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是非), 미추(美醜)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③ 을은 이상적 인간의 삶이란 하늘의 도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④ 을은 어짊[仁]과 의로움[義]을 버릴 때 효도와 자애가 회복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은 타고난 본성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장자와 더불어 도가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도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지만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④ 맹자는 인의를 실천하는 삶은 효와 자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지만, 노자는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려야 백성이 자애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노자는 하늘의 도에 맞는 예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②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미추 등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맹자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도덕적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 ⑤ 장자와 맹자는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한 수양을 통해 각기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	05	#쪽	058	#번	005	#문항코드	25014-0079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지네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쥐의 고기를 좋아한다. 이 넷 가운데 누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인가? 여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녀이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녀를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새가 그녀를 보면 멀리 날아가 버린다. 사슴이 그녀를 보면 재빠르게 도망간다.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가?
(나)	

#### [가로 열쇠]

(A): 원효가 말한 중생의 청정한 본래 마음. 생멸(生滅)과 대비되는 말

(B): 맹자가 추구한 이상적 인간상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사람. 대장부 또는 ○○

####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의 이상적 사회이다.
- ② 공(功)을 이루어도 뽑내지 않고 죽음조차 꺼리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④ 시비, 선악의 분별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에 집착하며 자유를 추구한다.
- ⑤ 조용히 앉아서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수양법이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장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으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진여’, 가로 낱말 (B)는 ‘대인’이다. 따라서 (나)의 세로 낱말 (A)는 ‘진인’이다. 진인은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이다.

### {정답 찾기}

② 진인은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한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도 거역하지 않으며 무심히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 {오답 피하기}

- ①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적 사회는 노자가 주장한 소국 과민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유교의 군자이다.
- ④ 진인은 시비, 선악의 분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 ⑤ 조용히 앉아서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수양법은 좌망이다.

#강	05	#쪽	058	#번	006	#문항코드	25014-0080
----	----	----	-----	----	-----	-------	------------

### [문제]

다음의 관점을 지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만물 중의 늙은 것은 그 정령이 사람의 형체를 빌려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항상 사람을 시험할 수 있지만 다만 거울 속에서만은 그 참모습을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옛날의 입산 수도자는 모두 직경이 아홉 치 이상 되는 깨끗한 거울을 등에 짊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오래 묵은 요괴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혹시 시험하려 오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거울 속에 비춰 보아야 한다. 그것이 신선이거나 산속의 신령이면 거울에 비추어도 여전히 사람의 형체일 것이고 만약에 새나 짐승 따위의 살된 요괴라면 그 모습이 다 거울 속에 드러날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건강의 증진과 수명 연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V			V	V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한다.		V	V		V	
현세적 복을 추구하면 종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V	V	V
도(道)를 수행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움만 추구하게 된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도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도교 사상가인 갈홍의 주장이다.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삼고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외단과 내단을 통한 양생을 중시한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도교 사상은 외단(外丹)과 내단(內丹)을 통한 불로장생을 목표로 삼는다.

두 번째 입장. 도교 사상에서는 시비선악과 같은 유교적 가치 기준과 이에 따르는 도덕적 선행이 불로장생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세 번째 입장. 도교 사상은 도가 사상에 민간 신앙적 요소를 더해서 종교적 교단을 갖추고 있으며, 현세에서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네 번째 입장. 도교 사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로장생을 목표로 삼는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64
02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6강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장	06	#쪽	064	#번	001	#문항코드	25014-0081
----	----	----	-----	----	-----	-------	------------

#### [문제]

다음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기를 “한울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귀천을 다르게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다. 그러나 군자의 덕은 그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천지의 덕과 일치하지만, 소인의 덕은 그 기운이 바르지 않고 마음이 변하는 까닭에 천지의 명을 어기게 되니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 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 ② 사회 안정을 위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서양의 종교는 받아들이되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
- ④ 유교적 가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거해야 한다.

⑤ 사해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인정하면 안 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동학의 기본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주장이다. 동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곧 한율님의 마음이라고 보고,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한다.

##### {정답 찾기}

①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본다. 이런 입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시천주(侍天主)이다. 시천주는 자기 안에 자리한 한율님을 모시는 것으로, 동학에서는 이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다.

##### {오답 피하기}

② 동학은 기존의 신분 질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③ 동학은 서양의 종교인 서학을 반대하며 등장한다.

④ 동학은 유·불·도의 사상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⑤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며 평등주의 사상을 펼쳐 나간다.

#강	06	#쪽	064	#번	002	#문항코드	25014-008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마음과 본성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 줄 따름이요, 밖에서 구하여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도(道)란 것은 각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일 뿐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이치의 소이연(所以然)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것을 깨닫기만 해서야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 보기 >	
ㄱ.	학문을 탐구하지 않으면 인(仁)을 실현할 수 없다.
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도덕의 이치이다.
ㄷ.	인간이 현실에서 도덕적 이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다.
ㄹ.	생생한 이치[生理]를 형성하기 위해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정제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양명학자 정제두의 주장이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양명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다.

##### {정답 찾기}

- ㄴ. 정제두는 사람이 따라야 할 도덕의 이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다.
- ㄷ. 정제두는 인간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도덕적 이치를 실현하는 도덕적 주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정제두는 이론적 탐구를 하지 않아도 타고난 양지를 발휘하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 정제두가 제시한 생리는 별도의 수양을 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강	06	#쪽	064	#번	003	#문항코드	25014-008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물이 고르고 단정하다. 한 가지 일이라도 구차스럽게 대충 꾸며 놓은 법이 없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허투루 어지럽혀 놓지 않았다. 심지어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까지 모두 법도 있게 제 자리에 놓여 있고 나뭇 더미나 거름 무더기까지 유달리 깨끗하고 맵시가 있어 그 모양새가 마치 그린 듯하다. 아아, 이러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용(利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용이 있은 다음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다음에야 덕(德)이 바르게 된다.

- ①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은 우리에게 해악을 준다.
- ② 올바른 덕[正德]이 확립되어야 이용후생이 가능해진다.
- ③ 실리 추구보다 독자적 이기(理氣)관을 정립해야 한다.
- ④ 욕구를 제거하여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에 이로운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실학의 기본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실학자 박지원의 주장이다. 박지원은 성리학이 공리공론적으로 변모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학문적 탐구를 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실학의 학문적 특징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실학은 실용적 입장에서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② 실학은 이용후생을 통해 올바른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학은 이기론에만 몰두하는 당시의 성리학을 비판하였다.

④ 실학은 백성의 일상적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강	06	#쪽	064	#번	004	#문항코드	25014-008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 서양의 사특한 술수를 어찌 널리 퍼지도록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오로지 교묘한 기술을 능력으로 삼으며 온종일 하는 일이 단지 인심(人心)의 측면에 불과할 뿐이고 다시는 도심(道心) 측면의 길로는 향하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하늘의 뜻뜻한 가르침을 없애고 끊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 <보기>

- ㄱ.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과 화친(和親)을 도모해야 한다.
- ㄴ. 유교를 근본으로 삼으며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
- ㄷ.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절의(節義)를 지켜야 한다.
- ㄹ. 기존 정치 체제를 혁파하고 새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위정척사의 기본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의 주장이다.

##### {정답 찾기}

- ㄴ. 이항로는 동양의 전통 사상인 유교를 기본으로 삼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 ㄷ. 이항로는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신념을 굳게 하고 꿋꿋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절의를 강조하였다.

##### {오답 피하기}

- ㄱ. 이항로는 서양과 화친을 도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ㄹ. 이항로는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 조선의 정치 체제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강	06	#쪽	065	#번	005	#문항코드	25014-0085
----	----	----	-----	----	-----	-------	------------

### [문제]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천지의 운행 법칙[天地度數]을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후천(後天)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나)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三學)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 영육(靈肉)을 쌍전(雙全)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

- ① (가): 백성의 복리를 위해 무속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가): 불완전한 현세에서 완전한 내세를 지향해야 한다.
- ③ (나):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과학 발전이 필요하다.
- ④ (나): 종교성을 배제하고 실용적 탐구에 집중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서구의 과학 문물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증산교와 원불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증산교, (나)는 원불교이다. 증산교는 천지공사를 통해 하늘과 땅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추구한다. 원불교는 기존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추구하며 생활 불교를 표방한다.

## {정답 찾기}

③ 원불교는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① 증산교는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 사상을 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쌓았다.

② 증산교는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④ 원불교는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고 생활 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⑤ 원불교는 도학과 과학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理事並行(이사병행)]고 주장한다.

#강	06	#쪽	065	#번	006	#문항코드	25014-0086
----	----	----	-----	----	-----	-------	------------

## [문제]

동양 사상 (가)~(다)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보살은 마땅히 육바라밀을 행하여야 하느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바라밀은 보시의 의행이며, 둘째 바라밀은 지계의 의행이다.

(나) 지인은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않은 경지에 처신하고, 무궁히 변화하는 자연의 법도에 몸을 맡기고, 만물이 시작되고 끝나는 경지에서 노닌다.

(다) 군자는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며 말은 삼가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① (가): 세상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멸한다고 생각한다.

② (나):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효를 강조하며 살아간다.

③ (나): 인위적인 가치를 거부하며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④ (다): 친소(親疏) 관계를 바탕으로 인과 예를 실천한다.

⑤ (다): 자신의 직분에 알맞게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간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불교, 도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불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 (다)는 유교 사상이다.

### {정답 찾기}

② 효를 강조하는 사상은 유교적 입장이다.

### {오답 피하기}

①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인연에 의해 생멸한다고 본다.

③ 도가에서는 인위적 가치를 거부하고 소박한 자연의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④ 유교에서는 존비친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과 예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⑤ 유교에서는 자신의 직분에 알맞게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장	06	#쪽	065	#번	007	#문항코드	25014-0087
----	----	----	-----	----	-----	-------	------------

### [문제]

다음 신화에 담겨 있는 사상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환웅이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비롯한 삼천 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일컬었다. 그는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보기>

- ㄱ. 하늘, 땅, 인간의 화합과 조화를 지향한다.
- ㄴ. 현세의 삶이 내세를 결정한다는 윤회관이 담겨 있다.
- ㄷ.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
- ㄹ. 경천사상을 중시하며 도덕적 정의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도와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 신화이다. 단군 신화에는 인본주의, 현세 지향적 가치관과 평화애호 사상, 화합과 조화의 정신 등이 담겨 있다.

### {정답 찾기}

- ㄱ. 단군 신화는 환웅과 웅녀의 만남과 단군의 탄생을 통해 하늘[天], 땅[地], 인간[人]의 화합과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 ㄷ. 단군 신화는 하늘에 살던 환웅도 인간 세상을 탐하고, 땅에 살던 곰도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무속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ㄴ. 단군 신화는 윤회적 세계관을 담고 있지는 않다.
- ㄹ. 단군 신화에는 하늘에 대한 공경과 함께 사회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입장이 담겨 있다.

#강	06	#쪽	065	#번	008	#문항코드	25014-0088
----	----	----	-----	----	-----	-------	------------

### [문제]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백성을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나) 성인의 다스림은 사람들의 지식도 없애고 욕망도 없애며, 지자(智者)가 함부로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 억지로 하려 함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 <보기>

- ㄱ. (가)는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 ㄴ. (나)는 옳은 행동의 근거로서 명분[名]을 중시한다.
- ㄷ. (나)는 자연을 따르며 겸허(謙虛)하게 살 것을 강조한다.
- ㄹ. (가)와 (나)는 군주가 백성들에게 도덕적 규범의 모범이 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이다.

#### {정답 찾기}

ㄱ. 유교 사상은 사욕을 극복하고 참다운 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한다.

ㄷ. 도가 사상은 이상적 삶으로 상선약수를 내세우며,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강조한다.

#### {오답 피하기}

ㄴ. 도가 사상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허정한 삶을 살 것을 중시한다.

ㄹ. 유교 사상은 백성에게 모범이 되는 통치자가 될 것을 강조하며, 도가 사상은 도덕적 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본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바른 학문[正學]과 이단이 서로 융성하고 쇠퇴함은 그 근원이 실로 사람의 한 마음에서 말미암는다. 천리와 인욕이 서로 소멸하고 자라남은 그 영향이 실로 천도 유행의 음과 양, 선과 악, 세상의 도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다스려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데까지 관련된다. 천하의 사물은 단지 하나의 이(理)일 뿐이므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없고, 이단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학문을 밝히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올바른 학문을 밝히는 것은 단지 한 마음에서 천리와 인욕을 변별하는 것일 뿐이다.

- ①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사람 간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해야 한다.
- ② 불교를 개혁하여 민중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 ③ 서구 열강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고 자기 안의 한을 님을 모셔야 한다.
- ④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서학(西學)과 맞서야 한다.
- ⑤ 우리의 기존 문화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서양과의 화친을 거부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위정척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의 주장이다.

#### {정답 찾기}

⑤ 이항로는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유교적 가치는 올바른 것이고 서양 문물은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서양과의 화친을 거부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천지공사로 사람 간에 쌓인 원한을 풀 것을 강조한 사상은 증산교이다.
- ② 불교를 개혁하여 민중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강조한 것은 원불교이다.
- ③ 서구 열강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고 자기 안의 한울님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은 동학이다.
- ④ 이항로는 서학을 사학(邪學)으로 보고 맞설 것을 강조하였지만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장	06	#쪽	066	#번	002	#문항코드	25014-0090
----	----	----	-----	----	-----	-------	------------

### [문제]

다음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공부의 삼학(三學)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와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取捨)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느니라.

### <보기>

- ㄱ. 육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수행을 해야 하는가?
- ㄴ. 종교적 수행과 일상생활을 분리하여 기존 종교를 개혁해야 하는가?
- ㄷ. 도학(道學)과 과학의 공부는 정신과 물질을 개벽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 ㄹ. 현실의 불행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으므로 내세의 행복을 기원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원불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원불교의 주장이다.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를 중시하며,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진리를 얻어 영육쌍전(靈肉雙全)할 것을 주장한다.

## {정답 찾기}

- ㄱ. 원불교는 육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靈肉雙全(영육쌍전)]을 중시한다.
- ㄷ. 원불교는 도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신과 물질을 개벽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통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곧 과학과 도학이 조화를 이룬 참 문명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

## {오답 피하기}

- ㄴ. 원불교는 종교적 수행과 일상생활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였다.
- ㄹ. 원불교를 비롯한 신흥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내세의 행복보다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강	06	#쪽	067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03~04] [지문]

갑은 한국 사상가, 을은 중국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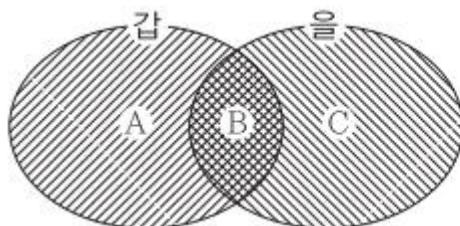
갑: 마음이 아니면 이치가 없고 이치가 없으면 물(物)에 이 일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의 이치가 곧 사물의 이치요, 사물의 이치가 곧 마음의 이치로서 물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물이니 이치에 피차가 없는 것이요. 마음은 안팎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을: 이삭 하나에 백 개의 낱알이 있으니 낱알마다 완전하고 또 장차 이백 개의 낱알이 씨로 뿐려져 있다. 또 각각 백 개의 낱알을 이루니 낳고 낳음이 그치지 않음은 처음에 이 낱알 하나가 나누어져 간 것이다. 사물마다 각각 이(理)가 있으니 총합하면 단지 하나의 이이다.

#강	06	#쪽	067	#번	003	#문항코드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 ㄱ. A: 생생한 이치[生理]는 사람의 마음과 사물에 고루 존재한다.
- ㄴ. B: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본디 순수하고 선한 특성을 지닌다.
- ㄷ. C: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 ㄹ. C: 도덕적 앎을 지극히 하기 위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정제두와 주희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정제두, 을은 주희이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하여 양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희는 성이 곧 이치[性卽理]임을 주장하며 사물의 이치를 궁극까지 탐구하며 도덕적 실천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 ㄴ. 정제두와 주희는 모두 인간의 본성이 순선하다고 보았다.
- ㄹ. 주희는 정제두와 달리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극한 앎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ㄱ. 정제두는 양명학의 전통에 따라 생생한 이치가 오직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 ㄷ. 정제두와 주희 모두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	06	#쪽	067	#번	004	#문항코드	25014-0092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저지르게 하여,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중략)… 그런데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반이 섞여 있다면 그 죄는 마땅히 반감되어야 할 듯하지만, 죄를 지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性)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① 갑은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갑은 사람의 마음에 고유한 덕으로서 양지(良知)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을은 인간의 본성 속에 사덕(四德)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④ 을은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마음이 덕을 형성하는 시작[始]임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은 학문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정약용이 정제두와 주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④ 정약용은 주희와 달리 사단을 사덕이 내재함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端(단)]가 아니라 사덕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始(시)]이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정제두는 인간에게 부여된 생리를 통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정제두는 사람의 마음에는 고유한 덕으로서 양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는 인간의 본성 속에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⑤ 정제두와 주희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지향하였다. 위기지학은 자기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강	06	#쪽	068	#번	005	#문항코드	25014-0093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페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글을 읽고서 실용을 모르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니다. 학문 연구를 귀중히 하는 것은 실용에 있다. 만약 고상하게 성명(性命)이나 이야기하고 끝까지 이기(理氣)나 말하며 다른 것은 배척하여 각기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하면서 그 의견으로 귀일(歸一)시키려 애쓴다면 이는 학문 연구의 해독(害毒)이다.
(나)	<p>[가로 열쇠]</p> <p>(A): 공자가 주장한 것으로서 사회 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상</p> <p>(B): 주희가 말한 하늘이 부여한 성(性)의 본체가 되는 네 가지의 덕</p> <p>[세로 열쇠]</p> <p>(A): ..... 개념</p>

- ① 배우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고유한 덕이다.
- ② 굳은 절의로써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려는 것이다.
- ③ 사랑의 마음으로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며 함께 살아가려는 정신이다.
- ④ 기물(器物)의 사용과 윤택한 생활이 없다면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 ⑤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얻어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실학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실학자 박지원의 주장이다. 박지원은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학문으로서 실학을 탐구하였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정명’, 가로 낱말 (B)는 ‘사덕’이다. 따라서 세로 낱말 (A)는 ‘정덕’이다.

##### {정답 찾기}

④ 박지원은 기물의 사용[利用(이용)]과 윤택한 생활[厚生(후생)]이 없다면 덕을 바르게 할[正德(정덕)]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배우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고유한 덕은 정제두가 주장한 생리(生理)이다.

② 굳은 절의로써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것은 위정척사이다.

- ③ 사랑의 마음으로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며 함께 살아가려는 정신은 증산교의 해원상생이다.  
 ⑤ 일원상의 진리를 얻어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은 원불교의 영육쌍전이다.

#장	06	#쪽	068	#번	006	#문항코드	25014-009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에게는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문득 어린아이가 우물 쪽으로 기어가서 빠질지 모르는 장면을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 까닭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며, 구해 주지 않았다고 비난받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 < 보 기 >

- ㄱ.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군주라면 교체될 수 있다.
- ㄴ. 성현의 가르침이 없다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 ㄷ. 수양 없이도 인간은 완성된 도덕적 인격체가 될 수 있다.
- ㄹ. 군주는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여 선한 본성을 확충하게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유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며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잃는다면 군주를 교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ㄹ. 맹자는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는 것[恒產(항산)]을 통치의 우선적인 과제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성현의 가르침 없이도 부끄러움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ㄷ. 맹자는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06	#쪽	069	#번	007	#문항코드	25014-0095
----	----	----	-----	----	-----	-------	------------

### [문제]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④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 문제 :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敬天]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물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을: 강화(講和)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천주(天主)의 조상화가 교역 과정에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① 겨레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며,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한다. 이에 비해 을은 ② 유교적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③ 성(誠), 경(敬), 신(信)과 같은 수양을 배척하고, 을은 ④ 서양의 학문을 배우게 되면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진다고 하여 배척한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⑤ 당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외세의 침략에 맞섰다.

- ① ⑦
- ② ⑨
- ③ ⑮
- ④ ⑯
- ⑤ ⑭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동학과 위정척사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동학의 최시형,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최익현이다.

#### {정답 찾기}

③ 최시형은 기존의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부정하지만 유학의 덕목인 성, 경, 신을 중시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최시형은 겨레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서학에 맞서 민족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고 기존 신분제 사회에 반대하며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② 최익현은 유교적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외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최익현은 서양의 학문을 사악한 것으로 보고, 서양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금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최시형과 최익현은 근대 격변기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외세의 침략에 맞섰다.

#강	06	#쪽	069	#번	008	#문항코드	25014-0096
----	----	----	-----	----	-----	-------	------------

## [문제]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발꿈치를 들고는 오래 설 수 없고, 다리를 크게 벌리고 가면 오래 갈 수 없다.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밝게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널리 빛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도에 비추어 보면 모두 쓸모없는 군더더기이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과 만물을 아롭게 하는 정치이다.		V			V	V
도는 형체가 없으며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V	V		V	
예악(禮樂)이 발달한 하나의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V	V	V	V
학문 탐구로 지혜를 쌓아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도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의 주장이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노자는 백성을 무지, 무욕하게 하는 정치를 통해 백성과 만물이 이롭게 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두 번째 입장. 노자는 도는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세 번째 입장. 노자는 문명의 발달이 없으며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이 적은 소국 과민(小國寡民)을 지향하였다.

네 번째 입장. 노자는 사람들이 갖는 지혜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무지, 무욕한 세상을 지향하였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76
03부	서양 윤리 사상		
07강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장	07	#쪽	076	#번	001	#문항코드	25014-0097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사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 나에게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나는 그대로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 ①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가?
- ②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가?
- ③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을 제외한 자연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⑤ 경험은 상대적이므로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프로타고라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판단은 상대적이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② 프로타고라스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보았다.

③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감각적 경험을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다.

④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삶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⑤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보았으며 각 개인의 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	07	#쪽	076	#번	002	#문항코드	25014-009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욕구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다고 믿는 것을 욕구하며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쁜 것을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다고 믿는 바를 욕구하는 것이다.

< 보기 >

- ㄱ. 객관적 진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 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참된 앓이 곧 덕이라고 할 수 있다.
- ㄷ. 덕과 악덕의 구분은 상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ㄹ. 유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근

⑤ ㄷ, 근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ㄴ. 소크라테스는 참된 앓이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ㄹ.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소크라테스는 객관적 진리는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소크라테스는 덕과 악덕의 구분은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6	#번	003	#문항코드	25014-009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가 정의(正義)롭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즉 생산자 계층과 방위자 계층 그리고 통치자 계층은 각각 제 일을 하며, ㉠

< 보 기 >	
ㄱ.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ㄴ. 자신의 일에 요구되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ㄷ. 모든 계층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	
ㄹ. 시민의 동의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근

⑤ ㄷ, 근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 ㄴ.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에 각각 요구되는 덕이 있으며, 각 계층은 자신의 일에 요구되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ㄷ. 플라톤은 모든 계층이 아니라 통치자 계층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플라톤은 시민의 동의로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6	#번	004	#문항코드	25014-0100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이성적인 부분은 진정으로 자혜로우며 영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이 나머지 영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① 이상 국가에서는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② 욕구를 완전히 제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③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현상의 세계가 참된 세계이다.
- ④ 지혜는 모든 계층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

⑤ 정의는 영혼의 세 부분이 덕을 갖추고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플라톤은 욕구에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욕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③ 플라톤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보았다.

④ 플라톤은 지혜는 모든 계층이 아니라 통치자 계층이 갖추어야 하는 덕이라고 보았다.

#강	07	#쪽	077	#번	005~006	#문항코드	
----	----	----	-----	----	---------	-------	--

## [05~06] [지문]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이란 유익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식의 일종이다. 을: 덕은 영혼의 탁월성이다. 인간은 영혼의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에 탁월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 그 기능에 대응하는 덕을 지닌다. 이성에 탁월한 사람은 지혜의 덕을 지니고, 기개의 활동에 탁월한 사람은 용기의 덕을 지니며, 욕구의 활동에 탁월한 사람은 절제의 덕을 지닌다.
--

#강	07	#쪽	077	#번	005	#문항코드	25014-0101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갑: 선을 알아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
- ㄴ. 을: 절제는 생산자 계층만이 지니는 덕이다.
- ㄷ. 을: 진리는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파악된다.
- ㄹ. 갑과 을: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5

[해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좋음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한편 플라톤은 덕은 영혼의 탁월성으로, 영혼의 어느 기능의 탁월함인가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지닌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ㄷ.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 ㄱ. 소크라테스는 좋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부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ㄴ. 플라톤은 모든 계층이 절제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장	07	#쪽	077	#번	006	#문항코드	25014-0102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기므로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편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므로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 ① 갑에게: 사람은 암과 다르게 행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갑에게: 보편적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을에게: 진리의 근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을에게: 이성과 상관없이 덕을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에게: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였다.

#### {정답 찾기}

- 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암과 다르게 행위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알면서도 의지가 나약하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③ 플라톤은 진리의 근원은 현실이 아닌 이데아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덕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덕을 갖춘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7	#번	007	#문항코드	25014-010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동기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행위하는 것이 최선이며, 또 이것이 덕의 특색이다.
  - 덕은 중간을 목표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품성적 덕이다. 감정과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이 덕이다.

- ① 적절함이 없는 감정과 행위가 존재한다.
- ② 용기는 비겁과 만용의 중庸에 해당하는 덕이다.

- ③ 적절함은 두 악덕 사이의 산술적 중간에 존재한다.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덕이다.
- ⑤ 적절하게 행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고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살인과 같이 그 자체로 악덕인 것이 있다고 하였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비겁과 만용 사이에 존재하는 덕이라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게 행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7	#번	008	#문항코드	25014-010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지성이 최고이며,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앞의 대상들 중 최고이므로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곧 관조적 활동이다.

< 보 기 >

- ㄱ. 옳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 ㄴ. 최고의 선은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
- ㄷ. 덕은 인간만이 지닌 이성을 잘 발휘한 상태이다.
- ㄹ.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으로 보았으며, 이성을 잘 발휘해야 덕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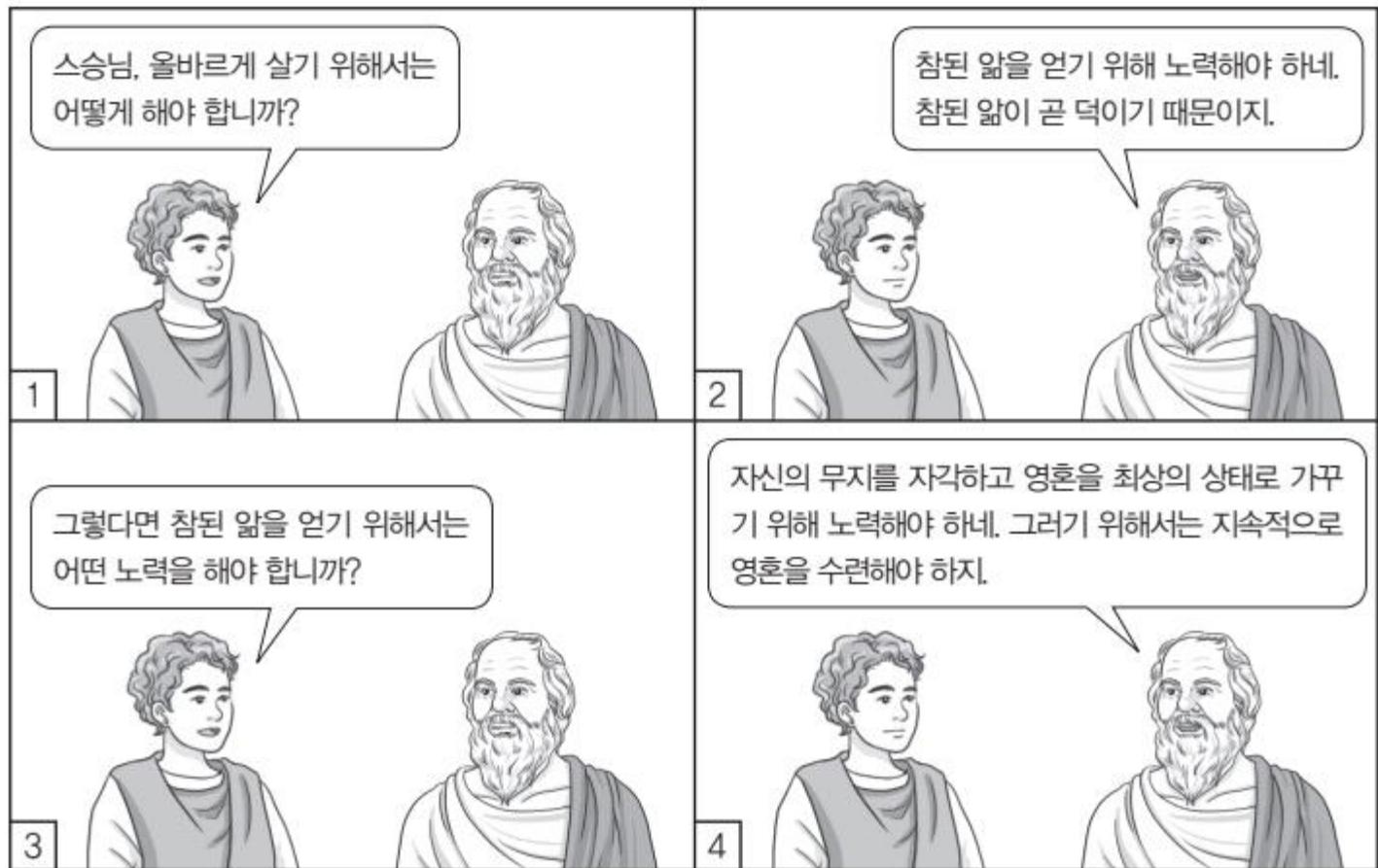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장	07	#쪽	078	#번	001	#문항코드	25014-0105
----	----	----	-----	----	-----	-------	------------

### [문제]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지닌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일신에 귀의해야 한다.
- ② 가치는 상대적이므로 타인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 ③ 이성을 통해 참된 앎을 얻어 유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를 존중하여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참된 앎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과 참된 앎의 추구를 강조하였으며,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소크라테스는 유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앎이 있어야 하며, 참된 앎은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지닌 이성을 신뢰하여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유일신에 귀의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 ②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타인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 ④ 소크라테스는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암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장	07	#쪽	078	#번	002	#문항코드	25014-0106
----	----	----	-----	----	-----	-------	------------

### [문제]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이다. 강한자들은 자신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든 법률을 정의로운 것으로 공표하고서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 및 정의롭지 못한 자로서 처벌한다.

을: 정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정의는 덕의 한 종류이며 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한다.

### < 보 기 >

- ㄱ.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 ㄴ. 정의는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
- ㄷ. 인간은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가?
- ㄹ.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하여 내려져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통치자와 같은 강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덕이며, 덕이 있는 통치자는 피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통치할 것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ㄴ.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피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ㄹ.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경험 세계에서 유용성에 따라 내려지는 것으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모두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9	#번	003	#문항코드	25014-0107
----	----	----	-----	----	-----	-------	------------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자신이 모르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참된 앎과 덕은 동일한 것이다.

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 저마다 한 사람으로서 제 일을 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실현될 때 나라가 훌륭해진다. 반면 사람들이 서로의 직분을 교환하려 하거나 동일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한다면 나라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 ① 갑은 선에 대한 지식이 덕 있는 행위의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② 을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잘 발휘하면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의로운 국가의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선택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갑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지혜를 지닌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의 각 계층이 서로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소크라테스는 참된 암을 지닌 사람은 악덕을 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플라톤은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상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고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과 교육에 따라 각 계층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공통적으로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참된 암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강	07	#쪽	079	#번	004	#문항코드	25014-010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은 인간들을 만들면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이들에게는 탄생 시에 황금을 섞었는데,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에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들이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는 황금의 자손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이처럼 서로의 자손에서 탄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은 통치자들에게 각자가 무슨 성분을 태어났는지를 가려 그 성향에 적합한 지위를 주도록 하였다.

### <보기>

- ㄱ.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같다.
- ㄴ. 정의로운 국가에서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덕은 모든 계층이 지녀야 한다.
- ㄷ. 통치자는 권력을 지니므로 사적 소유를 제한하여 부정을 막아야 한다.
- ㄹ.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세습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른 성향을 타고나며, 타고난 성향과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플라톤은 개인과 국가 모두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를 통해 정의롭게 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의 사람이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ㄷ. 플라톤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재산의 사적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ㄹ. 플라톤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자유로운 선택이나 세습이 아니라, 각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교육을 통해 각 계층에 알맞은 덕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강	07	#쪽	080	#번	005	#문항코드	25014-0109
----	----	----	-----	----	-----	-------	------------

###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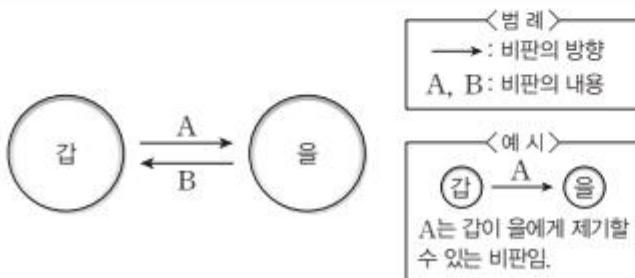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 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좋은 모든 영혼이 얻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들이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좋은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 이 이데아 덕분에 정의로운 것들과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이 된다. 이것을 모르면 다른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을: 좋은 존재가 이야기되는 방식만큼이나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좋다고 말할 때는, 신과 지성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어떤 이유 혹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덕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성질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며, 적당량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양에서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좋은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



- ① A: 덕은 인간 영혼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임을 간과한다.
- ② A: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③ B: 현실 세계의 좋은 것들과 분리된 좋은 자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B: 다양한 좋은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좋은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B: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적 부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문제 분석}

(가)의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하였으며,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플라톤은 좋은 자체인 이데아와 불완전한 현실을 구분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분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인간 영혼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라고 보았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제기할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존

재한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제기할 비판의 내용이다.

⑤ 플라톤은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적 부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플라톤에 대해 제기할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강	07	#쪽	080	#번	006	#문항코드	25014-011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어떤 행위가 옳다거나 절제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사람 혹은 절제 있는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일 때 그렇게 말한다. 옳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절제 있는 사람이 하듯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선하게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 < 보 기 >

- ㄱ. 무엇이 선한 것인가에 대한 무지는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ㄷ.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의 지도를 따를 때 덕을 지닐 수 있다.
- ㄹ. 옳은 행위를 반복하여 형성한 품성의 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의 지도를 따라야 덕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덕인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이 관조적 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품성 상태가 아니라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최고의 활동을 관조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강 07

#쪽 081

#번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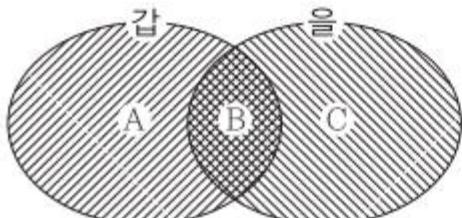
#문항코드 25014-0111

### [문제]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갑: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도 정의롭게 된다.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저마다 자신의 맡은 바를 잘 행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각의 경우에도, 자신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의롭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을: 무엇이 행복인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이성적 활동 능력이므로, 인간이 지닌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기>

- ㄱ. A: 사물의 완전한 원형은 현상계를 초월하여 있다.
- ㄴ. A: 이성의 통제에 따라 욕구를 절제하면 정의로울 수 있다.
- ㄷ. B: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을 지녀야 한다.
- ㄹ. C: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과 관련한 덕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정의롭게 되듯이, 개인도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제 일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활동을 통해 덕을 지닐 수 있으며, 그러한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플라톤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이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ㄷ.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ㄹ.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인 기개, 욕구와 관련한 용기, 절제의 덕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한 품성적 덕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	07	#쪽	081	#번	008	#문항코드	25014-011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이란 두 약덕 사이의 중용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과도함에 치우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족함에 치우친 것이다. 그리고 중용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중간의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중간의 상태는 모자란 것에 비해서는 지나치며, 지나친 것에 비해서는 모자라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 중간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① 중용은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에 존재하는 적절함의 상태이다.

② 실천적 지혜는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갖추어지는 품성적 덕이다.

③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은 서로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 ④ 유덕한 성품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성향이다.
- ⑤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가 중용이며,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의지가 나약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위도 있다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성적 덕이라고 하였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성품이 중용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87
03부	서양 윤리 사상		
08강	행복 추구와 신앙		

#장	08	#쪽	087	#번	001	#문항코드	25014-0113
----	----	----	-----	----	-----	-------	------------

### [문제]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게

자네가 지난 만남에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물었기에 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네. 인간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겠지?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이런 이유로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네.

- 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 ② 고통의 감소보다 쾌락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이성을 통해 모든 욕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⑤ 고통의 제거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쾌락주의를 제시하였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으로, 평온하고 소박한 삶과 결부된 것이다.

##### {정답 찾기}

- 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은 없으며, 신과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②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에서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욕구 중 어떤 것은 자연적인 동시에 필수적이며, 다른 것은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고, 또 다른 것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다만 헛된 생각에 의해 생겨난다. 욕구 중 충족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 않는 욕구는 필수적이지 않다.

————— < 보 기 > —————

- ㄱ.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지는 않다.
- ㄴ. 이성적 숙고는 쾌락 추구에 방해가 된다.
- ㄷ. 쾌락을 산출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ㄹ. 자연적 욕구는 모두 충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에피쿠로스는 어떤 쾌락이 결과적으로 고통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ㄹ. 에피쿠로스는 자연적 욕구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 [문제]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신에게 복종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나)	제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 _____ ⑦

- ①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네.
- ② 의지를 발휘하여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네.
- ③ 정념이 아닌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네.
- ④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에 따라 살아야 한다네.
- ⑤ 유일신의 뜻을 파악하여 그 뜻을 따라야 한다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庇테토스의 주장이다. 에庇테토스는 모든 일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야만 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스토아학파에서는 정념이 아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스토아학파에서는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자연적인 감정은 인정하였다.

② 스토아학파에서는 운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⑤ 스토아학파에서는 유일신이 아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 또는 ‘이성’으로 불리는 자연은 인간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움직이는 자는 게을러 분별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의 법칙과 충돌하는 것이다. 동물과 달리 이성이 덧붙여진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자각함으로써 그의 충동은 재구성되고 자연적 본성에 조화하게 된다.

## &lt;보기&gt;

- ㄱ.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 ㄴ. 이성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다.
- ㄷ. 덕은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ㄹ. 행복한 삶을 위해 공적인 일에 무관심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이다. 스토아학파에 의하면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보편적인 자연법이 존재하며, 인간은 욕구가 아닌 이성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정답 찾기}

- ㄱ. 스토아학파에서는 자연법, 즉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ㄴ. 스토아학파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으나 이성으로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바꿀 수는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ㄷ. 스토아학파는 덕을 이성에 따르고 욕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ㄹ. 스토아학파에서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	08	#쪽	088	#번	005	#문항코드	25014-0117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최고선이란 더 이상 높은 선이 없는 선, 즉 신이다. 신은 변함없는 선이며 진정으로 영원한 불멸의 선으로, 자신은 창조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
- 모든 존재는 하나의 선이다. 만약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큰 선이고, 타락되는 것이라면 작은 선이다.

#### < 보 기 >

- ㄱ.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창조한 원인이다.
- ㄴ.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ㄷ. 선한 행위는 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ㄹ. 신은 자연의 내재적 원인으로 인간은 자연을 따라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영원불변하는 존재이며 최고선이라고 보았으며,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며 실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초월적 존재로 보았다.

#강	08	#쪽	088	#번	006	#문항코드	25014-011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 ①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자연법에 어긋나는가?
- ② 이성과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모순 관계인가?
- ③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자연법을 위배한 실정법이 정당한 경우가 있는가?
- ⑤ 영원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도 반영되어 있는가?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 자연법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아퀴나스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역시 신의 피조물이므로 영원법이 사물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는 자기 보존을 인간의 자연적 성향으로 보았다.
- ②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위배하는 실정법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보았다.

## [문제]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우리의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다. 인간은 신의 빛으로 실천적 진리를 알 수 있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의 빛남에 감동한다.

**을:** 신학은 철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철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이 전달하는 것들을 보다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① 갑은 인간보다 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지상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이를 수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영원한 신의 지혜가 자연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신이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이성으로는 신의 뜻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신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철학이 신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④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신을 초자연적 존재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한 사랑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행복은 지상의 나라가 아닌 천상의 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공통적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그리스도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신에 의해 부여받았다. 그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은 다양한 종류의 삶을 소명(召命)으로 부여하셨다.
-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 < 보 기 >

- ㄱ. 지상의 일을 신이 부여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 ㄴ.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 ㄷ. 직업적 성공은 종교적 관점에서 부도덕한 것이다.
- ㄹ. 현세에서의 삶의 태도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칼뱅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칼뱅의 주장이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과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명이라는 직업 소명설을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칼뱅은 지상의 일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보았다.
- ㄴ. 칼뱅은 직업 생활을 잘 수행함으로써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ㄷ.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일이라고 보았으므로 직업적 성공을 부도덕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 ㄹ. 칼뱅은 구원은 삶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척도를 지닌 사람만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쾌락과 고통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의 제거가 쾌락 크기의 한계입니다. 쾌락이 있는 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이 없으므로,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lt; 보 기 &gt;

- ㄱ. 모든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 ㄴ. 인간이 지닌 욕구 중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ㄷ. 진정한 행복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까지 충족해야 얻을 수 있다.
- ㄹ.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얻은 쾌락처럼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쾌락도 있다고 보았다.

ㄹ.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진정한 행복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장	08	#쪽	089	#번	002	#문항코드	25014-0122
----	----	----	-----	----	-----	-------	------------

### [문제]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할 것이다.  
을: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이다. 죽음이 내일 닥치든 몇 년 후에 닥치든 그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삶과 죽음은 이성이 부여된 인간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① 이성적 분별력이 있어야 마음의 평온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 ②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③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 ④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라야 하는가?
- ⑤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므로 모든 자연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애써야 하는가?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죽음은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므로 특별히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에피쿠로스는 긍정, 스토아학파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는 공통적으로 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스토아학파에서는 신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강	08	#쪽	090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 [03~04] [지문]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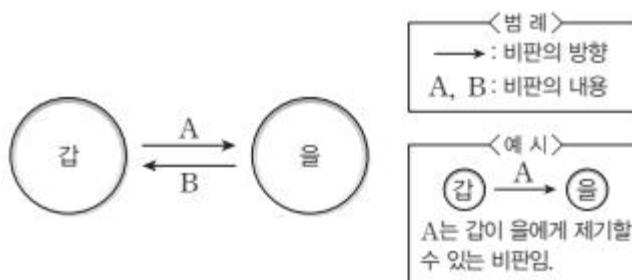
**갑:**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헛된 생 각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에 거역해서는 안 되며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필연적 욕구들을 충족시 키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반면 해로운 욕구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다.

**을:** 자연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닥 치는 모든 것을 마치 스스로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느긋한 마음으로 재난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 력이다.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것의 법칙과 모범에 따라 자신을 형성시키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강	08	#쪽	090	#번	003	#문항코드	25014-0123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A: 쾌락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ㄴ. A: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ㄷ. B: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추구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ㄹ. B: 자연법칙이 부여하는 의무에 따라 공적인 삶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세네카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ㄱ.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았으므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스토아학파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다.

ㄹ. 에피쿠로스는 자연법칙이 인간에게 공적인 삶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은둔하는 삶을 지향하였으므로,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에피쿠로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ㄴ.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므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스토아학파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ㄷ.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추구가 고통을 가져온다고 보았으므로, 스토아학파 입장에서 에피쿠로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강	08	#쪽	090	#번	004	#문항코드	25014-0124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혼에 있어서 정의는 영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드러나는 덕이다. 덕은 영혼의 건강함, 아름다움,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 추함, 허약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영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자신과 갈등을 빚지 않고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영혼은 서로 다른 세 영역이 각각 필요로 하는 덕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복한 영혼이기도 하다.

- ① 갑에게: 이성적 판단에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갑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감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③ 을에게: 이성이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을에게: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에게: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음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플라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에게 제기할 수 있는 견해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 기개, 욕구가 각각 필요로 하는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② 에피쿠로스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감각적 경험에 두었으므로, 플라톤의 입장에서 에피쿠로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의 내용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이성적 숙고의 중요성과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 ③ 스토아학파는 이성이 비이성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스토아학파는 모성애와 같은 자연적인 감정을 인정하였다.
- 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	08	#쪽	091	#번	005	#문항코드	25014-0125
----	----	----	-----	----	-----	-------	------------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선의 이데아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바로 그러한 세계의 실재 모두에 대한 원인이다. 선의 이데아는 마치 태양과 같은 것이어서 그 빛이 사물들을 보이게 만들어 주며 그것의 능력과 그것이 제공하는 바가 사물들이 현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을:** 최고선이며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신의 법칙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신의 은총 없이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태양이 사물을 보이게 만드는 물리적인 빛의 원천인 것처럼 신은 진리의 원천인 것이다.

- ① **갑:** 불완전한 현상계에 사는 인간도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갑:**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들에 각각의 이데아를 있게 하는 근원이다.
- ③ **을:** 신의 계시와 은총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 ④ **을:**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 원인이 되는 최고선에 의존해 있다.
- ⑤ **갑과 을:** 정의는 신에 대한 사랑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를 나누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입장을 수용하였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⑤ 플라톤은 정의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이며 각각의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 주는 근원이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신의 계시와 은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 선이자 궁극적 원인이 신이라고 보았다.

#강	08	#쪽	091	#번	006	#문항코드	25014-0126
----	----	----	-----	----	-----	-------	------------

### [문제]

(가)의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신이 완전한 존재라면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신보다는 덜 완전한 존재일 것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의 결과로, 즉 피조물이 신이라는 완전한 실재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거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신의 국가에만 속할 수는 없다.</p> <p>을: 신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신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 창조하는 원리로서의 신의 지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칙은 모든 것의 운동과 행위를 지배한다.</p>
(나)	<p>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Zeno's and Epicurus' positions based on three questions (A, B, C). It starts with a box containing the statement: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A dashed arrow points from this box to diamond A. Diamond A has two paths: one labeled "예" (Yes) leading to diamond B, and one labeled "아니요" (No) leading directly to diamond C. Diamond B also has a path labeled "예" leading to a rounded rectangle labeled "갑의 입장". Diamond C has a path labeled "예" leading to a rounded rectangle labeled "을의 입장". To the right of the flowchart is a legend titled "&lt;범례&gt;":<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출발 조건 (Start Condition)</li><li>◇: 판단 내용 (Judgment Content)</li><li>→: 판단 방향 (Judgment Direction)</li><li>曲线: 사상가의 입장 (Philosopher's Position)</li></ul></p>

< 보 기 >

- ㄱ. A: 초월자인 신의 존재를 인식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ㄴ. A: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하는가?
- ㄷ. B: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인가?
- ㄹ. C: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덕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

전하며 악을 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악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선의 결핍이라고 본 것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등의 철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 {정답 찾기}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 또는 불완전한 인간의 의지 남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ㄹ. 아퀴나스는 자연적인 덕과 종교적 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아퀴나스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	08	#쪽	092	#번	007	#문항코드	25014-0127
----	----	----	-----	----	-----	-------	------------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행복은 탁월성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므로 우리는 탁월성의 본성을 고찰함으로써 행복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찰해야 할 탁월성은 분명히 인간적인 탁월성이다. 여기서 인간적인 탁월성이란 육체의 탁월성이 아니라 정신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정신의 탁월성, 즉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을:** 행복은 신의 본질에 대한 관조에 있다. 인간의 행복은 이중적인데, 하나는 현세 안에 있는 것으로 불완전한 행복이며, 다른 하나는 신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완전한 행복이다. 따라서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연적 덕인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이외에도 신성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종교적 덕이 요구된다.

- ① 갑은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은 항상 이성적 부분을 따른다고 본다.
- ② 갑은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연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종교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진리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으며,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고 하였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앙을 설명함으로써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적 부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따르려는 자연적 성향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선을 인간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장	08	#쪽	092	#번	008	#문항코드	25014-0128
----	----	----	-----	----	-----	-------	------------

### [문제]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 병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의 섭리인 자연의 질서를 가장 지혜로운 이성이 이끄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신은 모든 일을 선하고 정의롭게 주재하시니, 우리는 신에 순종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을:**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며,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없고 내세에 성취될 수 있는 소망이다. 거기서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사람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혼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

**병:** 신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멸망시킬 것인가를 그 영원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 놓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① **갑:** 고통은 인간의 정념이 아닌 사건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② **을:** 신에 대한 인식은 이성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신의 은총을 통해 완전해진다.

③ **병:** 인간은 신의 선택을 바꿀 수 없고 다만 신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④ **갑과 을:** 인간은 자발적으로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을과 병:**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한 초월적 원인이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스토아학파, 아우구스티누스, 칼뱅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병은 칼뱅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연의 질서에 의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신과의 합일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칼뱅은 구원은 신의 뜻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스토아학파에서는 고통은 인간이 정념에 지배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신의 은총 없이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칼뱅은 현세에서의 삶의 태도가 구원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의 공통적 입장이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097		
03부	서양 윤리 사상						
09강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강	09	#쪽	097	#번	001	#문항코드	25014-012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문에서 어떤 확고부동한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지금까지 믿어 왔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아주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누군가 나를 계속 속이려 한다 해도, 생각하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기>

- ㄱ. 실제 삶에 유용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 ㄴ.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 ㄷ.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
- ㄹ. 참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데카르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데카르트의 주장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 {정답 찾기}

ㄴ. 데카르트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방법적 회의를 통해 찾고자 하였다.

ㄷ.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가 되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데카르트는 참된 지식은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심할 수 없는 타당한 것이라고 보았다.

ㄹ. 데카르트는 참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강	09	#쪽	097	#번	002	#문항코드	25014-0130
----	----	----	-----	----	-----	-------	------------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보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한다.

**을:**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 ① **갑:** 이성은 감각이 진리를 찾을 때 보조 역할을 한다.
- ② **갑:** 관찰과 실험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
- ③ **을:** 오랜 학문적 전통을 인정하고 답습해야 한다.
- ④ **을:** 연역적 방법을 통해 개념과 공리를 형성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데카르트, 은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확고하고 참된 지식이라고 보았다. 베이컨은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았

다.

### {정답 찾기}

⑤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공통된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의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이성이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데카르트는 진리 탐구에서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데카르트는 경험적 지식은 상대적이라고 보았다.
- ③ 베이컨은 학문적 전통을 답습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을 통해 개념과 공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강	09	#쪽	097	#번	003	#문항코드	25014-0131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내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자신을 준거로 삼아 사물을 이해해야 하는가?
- ② 저명한 학자의 학설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 ③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인식의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가?
- ④ 참된 귀납법으로 우상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야 하는가?
- ⑤ 경험은 상대적이므로 지식의 토대로 삼지 말아야 하는가?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베이컨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베이컨의 주장이다. 베이컨은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며, 편견과 선입견인 우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베이컨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베이컨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준거로 삼아 이해하는 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보았다.

- ② 베이컨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보았다.
- ③ 베이컨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 자명한 인식의 출발점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베이컨은 경험을 지식의 토대로 삼았다.

#강	09	#쪽	097	#번	004	#문항코드	25014-013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학문에서 거의 모든 악폐의 원인과 뿌리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능력을 무작정 찬양하면서, 올바른 보조 수단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 보기 >

- ㄱ. 지식은 자명한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 ㄴ. 경험적 탐구를 통해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ㄷ.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ㄹ.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과 권위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베이컨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베이컨의 주장이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ㄴ. 베이컨은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근. 베이컨은 전통과 권위를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베이컨은 지식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베이컨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 09

#쪽 098

#번 005

#문항코드 25014-0133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으로부터 갖가지 시달림을 받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현명한 사람은 자신과 신, 사물들을 어떤 필연적 인과 관계의 관점에서 인식하며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 ① 도덕적 행위는 인격신의 계율을 따르는 것이다.
- ② 이성은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본성이다.
- ③ 인간은 무한한 실체인 자연에서 비롯한 유한한 실체이다.
- ④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동적인 감정들에 순응해야 한다.
- ⑤ 자연의 인과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이를 따를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② 스피노자는 인간과 신, 즉 자연이 본성적으로 이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 ③ 스피노자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산된 자연은 신의 유한한 양태라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수동적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자연의 인과 질서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강	09	#쪽	098	#번	006	#문항코드	25014-0134
----	----	----	-----	----	-----	-------	------------

### [문제]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우리의 자연적 성향들은 신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규정한 목적들을 향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부여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범위 안에서 신의 영원한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을: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모든 것의 원인인 신의 본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인내해야 한다.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인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 < 보 기 >

- ㄱ. 갑: 신의 존재 증명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ㄴ. 을: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ㄷ. 을: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 ㄹ. 갑과 을: 신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유일신의 피조물이며,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이며,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ㄷ.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과 분리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 ㄹ. 아퀴나스와 스피노자는 공통적으로 신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이성적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ㄴ. 스피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잘 파악하고 그 질서를 따르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	09	#쪽	098	#번	007	#문항코드	25014-013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도덕적 선악의 구별은 선악을 유발하는 인상이나 소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도덕적 느낌을 관념과 쉽게 혼동한다. 이런 혼동은 서로 유사한 것을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습관에 의한 것이다. 도덕적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지각(perception)에 속하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이성은 도덕적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ㄴ. 이성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 ㄷ.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ㄹ. 도덕적 선악은 인간의 내적 감정에 따라 분별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흄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성을 이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

정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흄은 이성이 도덕적 선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도덕적 실천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보았다.

ㄴ. 흄은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즉 도덕감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흄은 회의주의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인간과 세계의 인과 관계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보았다.

ㄹ. 흄은 도덕 판단과 행위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보았다.

#강	09	#쪽	098	#번	008	#문항코드	25014-0136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가 어떤 성격이나 행위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판단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한 그 어떤 내적인 감각이나 또는 감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제자: 행위의 선악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승: _____ ㉠

- ① 사람들이 지닌 사회적 감정이라네.
- ②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 경험이라네.
- ③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칙이라네.
-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한 내면적 동기라네.
- ⑤ 자연을 창조한 유일신의 보편적 질서라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흄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흄은 선악 판단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흄은 선악 판단의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③ 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이성이나 자연법칙으로 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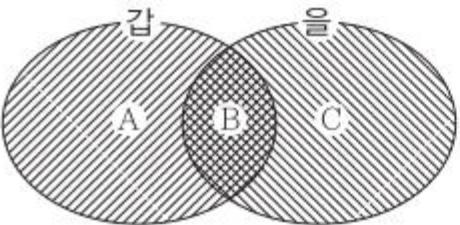
④ 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내면적 동기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있다고 보았다.

⑤ 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유일신의 보편적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감정에서 찾았다.

#장	09	#쪽	099	#번	001	#문항코드	25014-0137
----	----	----	-----	----	-----	-------	------------

## [문제]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을: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별자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 다음 그것을 제1원리로 삼아 중간 수준의 공리를 이끌어 내거나 발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각과 개별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이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p>〈범례〉</p><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div>

## <보기>

- ㄱ. A: 확실한 지식은 자아의 존재 증명에서 연역적으로 얻을 수 있다.
- ㄴ. B: 자연의 법칙은 경험의 도움 없이 이성적 추론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 ㄷ. B: 참된 지식의 탐구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ㄹ. C: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원천을 관찰과 실험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그, ㄷ
- ③ ㄴ, ㄹ
- ④ 그,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참된 지식의 토대가 이성에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은 참된 지식의 토대를 감각적 경험이라고 보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것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그. 데카르트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ㄷ.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공통적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데카르트와 베이컨은 참된 지식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ㄹ. 베이컨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 {오답 피하기}

ㄴ. 베이컨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이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	09	#쪽	099	#번	002	#문항코드	25014-0138
----	----	----	-----	----	-----	-------	------------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성은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을:** 이성은 오직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즉 이성은 어떤 정념에 어울리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해당 정념을 유발하거나 어떤 정념을 드러낼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판단은 종종 거짓이거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 ① 갑: 이성에 의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찾아야 한다.
- ② 갑: 진리를 획득하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은 양립 불가능하다.
- ③ 을: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④ 을: 이성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산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⑤ 갑과 을: 이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도덕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데카르트와 흄의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데카르트, 을은 흄이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해 확고부동한 진리를 얻고자 하였다. 흄은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확고부동한 진리를 찾을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데카르트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은 연역적 추론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흄은 인간이 지닌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④ 흄은 이성이 어떤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거나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데카르트와 흄의 공통적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강	09	#쪽	100	#번	003~004	#문항코드	
----	----	----	-----	----	---------	-------	--

## [03~04] [지문]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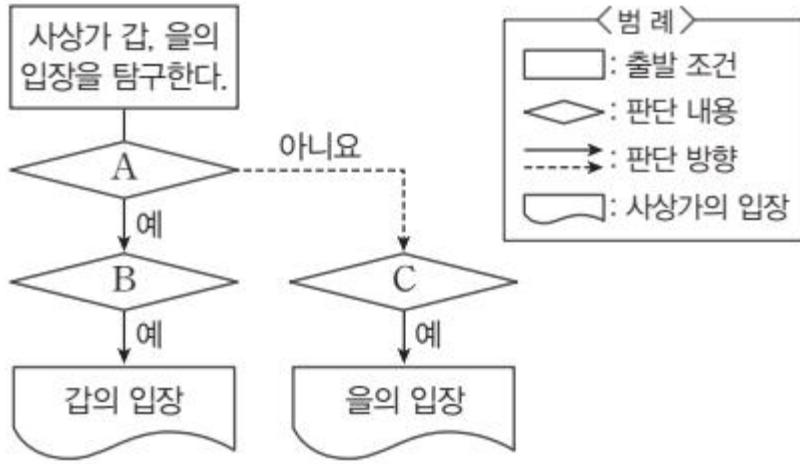
갑: 자연의 지배자인 이성은 자신의 성질이 어떠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을: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에 빠지게 하므로 참된 귀납법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강	09	#쪽	100	#번	003	#문항코드	25014-0139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여 자연을 극복해야 하는가?
- ㄴ. B: 외적 조건이 아닌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가?
- ㄷ. C: 우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연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ㄹ. C: 경험이 아닌 이성적 추론을 통해 참된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스토아학파와 베이컨의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을은 경험론 사상가인 베이컨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ㄴ. 스토아학파에서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ㄷ. 베이컨의 입장에서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스토아학파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베이컨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베이컨은 연역적 추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 참된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피조물인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은 창조되지 않았으나 만물을 창조한 신 안에 만물의 근원인 이데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할 수 없고 참으로 실재하며 항상 동일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신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진다.

- ① 갑에게: 신이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② 갑에게: 신적 질서가 인간 본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을에게: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을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에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아우구스티누스가 스토아학파와 베이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라 완전한 신이 다스리는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였으며, 불완전한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 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통해, 베이컨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 없이는 인간이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스토아학파와 베이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스토아학파는 신이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 ② 스토아학파는 신적 질서가 인간 본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③ 베이컨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문제]

가상 대화의 스승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⑦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가 의존하는 무한한 실체라네.
- ② 인간이 지닌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라네.
- ③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네.
- ④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발생 원인이라네.
- ⑤ 자연의 모든 것이 필연성에 따라 나타나고 작용하게 만드는 존재라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스승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②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신은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은 신의 양태라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신은 그 자신에 의해서 파악되며,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신은 만물이 존재하고 작용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강	09	#쪽	101	#번	006	#문항코드	25014-0142
----	----	----	-----	----	-----	-------	------------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최고의 행복은 지성의 활동이며 관조에 참여하는 데 있다. 행복이 덕을 따르는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최고의 덕은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관련되는 덕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이성이 최선의 것이다.

을: 최고의 행복은 오직 신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도덕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하도록 인도된다. 신의 명령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이성의 법칙이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 또는 자연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① 갑: 순수하게 이성만을 발휘한 최고의 정신 활동은 실천적 지혜이다.
- ② 갑: 참된 암은 덕과 일치하므로 인간의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한다.
- ③ 을: 자유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따르는 데 있다.
- ④ 을: 인간과 달리 신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의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은은 스피노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③ 스피노자는 자연의 인과 질서를 인식하고 따를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정신 활동이 철학적 지혜라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옳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므로 신 역시 자연의 법칙 속에 있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장	09	#쪽	102	#번	007	#문항코드	25014-014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이 구별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성 흘로는 이런 영향력을 가질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참과 거짓에 덕이나 부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 정신의 유용한 성질은 그 유용성 때문에 유덕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나 소유 당사자에게 유용한 덕에 대한 동조의 감정을 공감이라는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런 것이 도덕성의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 < 보 기 >

- ㄱ. 인간은 도덕적 선악 구별의 원천이 되는 보편적인 감정을 지닌다.
- ㄴ. 도덕적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결정된다.
- ㄷ. 덕이 있는 행위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행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 ㄹ.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도덕을 인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흄의 사상적 입장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선악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흄은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았다.

ㄴ. 흄은 도덕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흄은 덕이 있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ㄹ. 흄은 도덕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강 09

#쪽 102

#번 008

#문항코드 25014-0144

### [문제]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거나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의 기준은 보편적인 것. 즉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데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취향이나 쾌락, 역겨움과 같은 느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 순수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을은 ㉢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 이성은 선악 구분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고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도 없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도덕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플라톤과 흄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흄이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며, 완전함은 이데아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흄은 도덕적 선악 판단의 기준은 관념이 아닌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흄은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인 보편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은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순수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흄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 그 자체로는 도덕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흄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으며, 플라톤은 감정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 용기의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08
03부	서양 윤리 사상		
10강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장	10	#쪽	108	#번	001	#문항코드	25014-014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준칙 자신에게 결코 모순될 수 없는 의지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따라서 언제나 준칙이 법칙으로서 보편적이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① 준칙은 주관적 행위 원칙이지만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 ② 선의지는 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선하다.
- ③ 선의지는 보편적 자연법칙을 기꺼이 따르려는 의지이다.
- ④ 도덕 법칙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에 기반해야만 한다.
- ⑤ 도덕 법칙은 도덕적 행위자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였다. 만약 어떤 준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에 불과하며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정답 찾기}

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도덕적 행위자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는 주관적 행위 원칙인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의 여부에 주목하였다. 모든 준칙이 그 자체로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② 칸트는 선의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선의지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 보았다.

④ 칸트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문제]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의무는 자유로운 의지를 ㉡도덕 법칙에 따라 강제함을 뜻한다. 이런 강제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충분할 정도로 신성하지 못해 쾌락에 지배당하기 쉽다. 인간이 도덕 법칙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도덕 법칙을 위반하기도 하며 도덕 법칙을 따를 때에도 경향성의 반발로 마지못해 따르는 데서 강제가 성립한다.

< 보 기 >

- ㄱ. ㉠은 도덕적 강제여서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ㄴ. ㉡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 ㄷ. ㉡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것이다.
- ㄹ. ㉠은 ㉡에 대한 존경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필연성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칸트의 의무와 도덕 법칙 개념에 대한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온다.

## {정답 찾기}

ㄴ. 칸트에 의하면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유한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온다.

ㄷ. 칸트에 의하면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ㄹ. 칸트에 의하면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 {오답 피하기}

ㄱ. 칸트에 의하면 의무는 인간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따라서 의무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강	10	#쪽	108	#번	003	#문항코드	25014-0147
----	----	----	-----	----	-----	-------	------------

## [문제]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동정심을 잘 느끼는 사람은 허영심이나 자기 이익 같은 다른 동기 없이도 자선 행위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자선 행위가 의무에 맞고 또 정말로 사랑 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제자: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입니까? 사상가: _____ ㉠

- ① 경향성을 따르고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라네.
- ② 좋은 행위 결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라네.
- ③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라네.
- ④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네.
- 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의무에 맞는 행위라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기적 의도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정답 찾기}

④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에 의하면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②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 결과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있다.

③ 칸트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공리주의자가 제시한 답변이다.

#강	10	#쪽	108	#번	004	#문항코드	25014-0148
----	----	----	-----	----	-----	-------	------------

### [문제]

다음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 사상가의 주요 견해

- 도덕 원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찰할 수 있는 정상적 인간에게는 자명하다.
- 우리의 직관적 의무(가령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 계발, 해악 금지)는 복수이기에 단 하나의 도덕 원리에 포괄될 수 없다.
- 우리의 직관적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다.

< 보 기 >

- ㄱ. 의무들이 충돌할 때 인간은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를 수 있다.
- ㄴ. 직관적 의무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
- ㄷ. 의무는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 인간의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 ㄹ. 직관적 의무는 조건부 의무이므로 정언 명령을 최상의 도덕 원리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2

[해설]

로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A 사상가’는 현대 칸트주의자인 로스이다. 로스는 칸트 윤리 사상의 난점인,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로스는 대안으로 직관적 의무(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정답 찾기}

- ㄱ. 로스에 따르면 의무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를 수 있다.
- ㄷ. 로스에 따르면 하나의 의무는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는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ㄴ. 로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는 없다.
- ㄹ. 로스에 따르면 직관적 의무는 복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한 최상의 원리에 포함될 수 없다.

#강	10	#쪽	109	#번	005	#문항코드	25014-0149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은 모두 이 두 군주이다. 공리의 원리는 두 군주의 지배를 인정하고 이를 사상 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이 사상 체계의 목표는 이성과 법률로 행복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다.

< 보기 >

- ㄱ.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 ㄴ.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과 입법의 원리이다.
- ㄷ.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 ㄹ.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과 다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4

[해설]

벤담의 기본 입장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며, 행복의 증진이 도덕의 목적이 된다고 보았다. 벤담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ㄱ. 벤담에 의하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 ㄴ. 벤담에 의하면 공리의 원리, 즉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이다.
- ㄷ. 벤담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오답 피하기}

- ㄹ. 벤담에 의하면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이다.

#장	10	#쪽	109	#번	006	#문항코드	25014-0150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그르다.
-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행복은 쾌락이고 고통의 부재이다.		✓			✓	✓
쾌락의 질이 높을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많아진다.			✓	✓	✓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질 높은 쾌락이다.		✓	✓			✓
행위의 도덕성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이다. 밀은 벤담의 윤리 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다. 밀은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벤담과 달리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밀에 의하면 행복이 의미하는 바는 쾌락이며 고통의 부재이다.

세 번째 입장. 밀에 의하면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다. 예를 들어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 감정 등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다.

##### {오답 피하기}

두 번째 입장.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네 번째 입장. 밀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라고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을 부정할 뿐이다. 행복의 종합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는 희생은 낭비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유일한 자기희생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 행복의 수단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희생뿐이다. 인간 행위의 목적은 최대 행복이며 우리는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 < 보 기 > —————

- ㄱ. 의무감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행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ㄴ.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공리에 근거하여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위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이다. 밀은 벤담과 마찬가지로 공리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쾌락에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밀에 의하면 동기는 행위자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계가 있을지언정, 행위에 대한 도덕성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
- ㄴ. 밀에 의하면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공리에 호소하여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ㄷ. 밀이 공리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내용이다.

## [문제]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우리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 즉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 물어야 한다.
- (나) 우리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지 말고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유용한 규칙을 준수하느냐 위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 보 기 >

- ㄱ. (가)는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 ㄴ. (가)는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할 때 행복이 증진된다고 본다.
- ㄷ. (나)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도덕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본다.
- ㄹ. (가)와 (나)는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행위 공리주의, (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세우고 이 규칙에 따르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 {정답 찾기}

- ㄱ. 행위 공리주의는 더 많은 공리,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도덕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본다.
- ㄹ.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 ㄴ.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 [문제]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덕과 악덕은 단순히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에 우리가 덕과 악덕을 구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엄밀히 말해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p> <p>을: 행위의 도덕성은 의무에서 나오는 필연성에, 그리고 행위가 가져올 것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있다. 인간과 모든 창조된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필연성은 강제, 즉 구속성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도덕적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의존한다.
- ㄴ. B: 이성과 감정은 모두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ㄷ. B: 의무에서 나오는 행위는 이성적 인간의 자율성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
- ㄹ. C: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홉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홉, 을은 칸트이다. 홉은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 동기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유한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흄만의 입장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흄과 칸트의 공통된 입장이다. 흄은 감정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은 행위나 감정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위에 관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성을 중시했지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같은 감정은 인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ㄷ.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칸트에 의하면 의무는 인간이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따라서 의무에서 나오는 행위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10	#쪽	110	#번	002	#문항코드	25014-015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본성 때문에 목적 자체로서, 그렇기에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 수립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만 그리고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 수립 자체가 존엄성, 즉 무조건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율성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가 존엄하다는 근거가 된다.

- ①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이므로 자율적 법칙이 될 수 없다.
- ② 인간이 자신의 준칙을 스스로 세우고 따르면 그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 ③ 인간은 오직 목적 자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 ④ 인간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복종할 수 있기에 존엄성을 지닌다.
-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로지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에 의하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준칙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율성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 {정답 찾기}

④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므로 존엄성을 지닌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에 의하면 도덕 법칙은 인간 스스로가 수립하고 복종하는 법칙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 법칙은 자율의 성격을 지닌다.

② 칸트에 의하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③ 칸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인격은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받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법칙과 도덕 법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 존재이다.

#강	10	#쪽	111	#번	003	#문항코드	25014-0155
----	----	----	-----	----	-----	-------	------------

### [문제]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기 >

- ㄱ. A: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 ㄴ. A: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ㄷ. B: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가?
- ㄹ. C: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4

[해설]

밀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밀, 을은 칸트이다. 질적 공리주의자 밀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풍부하게 쾌락을 누릴 것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선의지를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 보았다.

{정답 찾기}

ㄱ. 밀은 궁정, 칸트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은 가령,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행위는 동기가 의무이건 아니면 보상받으려는 희망이건 간에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ㄴ.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칸트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낳은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ㄴ. 밀과 칸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에게는 공리의 원리가, 칸트에게는 도덕 법칙이 보편적 도덕 원리가 된다.

#장	10	#쪽	111	#번	004	#문항코드	25014-0156
----	----	----	-----	----	-----	-------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성이 실천적 능력으로서, 즉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선의지는 최고선이고 나머지 모든 선의 조건이다.

**을:** 이성은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한에서의 정신을 말한다.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至福)이 있다. 왜냐하면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 < 보 기 >

- ㄱ. 갑: 행위자의 품성과 무관하게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ㄴ. 갑: 도덕적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ㄷ. 을: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 ㄹ. 갑과 을: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지만 감정은 기여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칸트와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칸트, 을은 스피노자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이성을 중시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동기인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ㄷ. 신과 자연을 동일시한 스피노자의 입장이다.

#### {오답 피하기}

ㄴ. 칸트에 의하면 도덕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행복의 추구는 양립할 수 있다.

ㄹ. 칸트와 스피노자는 모두 감정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같은 감정을, 스피노자는 능동적 감정을 중시하였다.

## [문제]

그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장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윤리란 일반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도록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양을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

최대 행복은 인간 행위의 목적이므로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 감정을 통해 얻는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입니다.

을

### <보기>

- 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 ㄴ.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 ㄷ.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무사하게 고려해야 한다.
- ㄹ. 사익 증진보다 공익 증진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을 가져온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벤담과 밀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 은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보고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ㄴ, ㄷ. 벤담과 밀이 공통으로 지지할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 {오답 피하기}

근. 벤담은 모든 쾌락이 단지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강	10	#쪽	112	#번	006	#문항코드	25014-015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쾌락이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모든 바람직한 것은 그것 자체에 내재하는 쾌락 때문에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쾌락 증진과 고통 방지의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
-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감과는 독립적으로 두 가지 쾌락 중 어떤 한 종류의 쾌락을 확실하게 더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 ① 행위의 유용성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한다.
- ② 은둔 생활을 하며 사회의 쾌락보다 개인의 쾌락을 추구한다.
- ③ 모든 쾌락을 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최대량의 쾌락을 추구한다.
- ④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춘 다음에 도덕 원리를 실천한다.
- ⑤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이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할 때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⑤ 밀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밀은 행위의 유용성을 중시하였다.
- ② 밀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행위자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위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보았다.
- ③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밀은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춘 다음에 도덕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강	10	#쪽	113	#번	007~008	#문항코드
----	----	----	-----	----	---------	-------

### [07~08] [지문]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우리가 쾌락이 인생의 목적으로 말할 때, 이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관능적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사려 깊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을: 두 가지 쾌락을 똑같이 잘 알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보다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선호한다.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리도록 보장한다고 해서 하등 동물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강	10	#쪽	113	#번	007	#문항코드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더 큰 쾌락이 보장된다면 고통을 수용할 수 있다.
- ② 갑: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공적 활동에 헌신해야 한다.
- ③ 을: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은 쾌락이지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 ④ 을: 쾌락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경험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육체적 쾌락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에피쿠로스와 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쾌락으로서 추구하였고, 덕이 본성적으로 쾌락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질적 공리주의자 밀은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①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여 더 큰 쾌락이 보장된다면 고통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

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에피쿠로스는 공적 삶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온다고 보고 은둔 생활을 권장하였다.
- ③ 밀은 행복이 쾌락이며 고통의 부재라고 보았다.
- ④ 밀은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할 때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장	10	#쪽	113	#번	008	#문항코드	25014-0160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칙 준수에 선행해야만 하는 쾌락은 정념적 쾌락이다. 이 쾌락은 자연의 질서에 속한다. 그러나 쾌락이 향유되기 위해 법칙이 그 쾌락에 선행해야만 하는 쾌락은 도덕적 쾌락이다. 이 쾌락은 도덕의 질서에 속한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자유의 원리 대신 행복의 원리를 내세운다면, 그 결과는 모든 도덕의 죽음이다.

- ① 갑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 증진이 도덕의 목적이다.
- ② 을에게: 행위의 옳고 그름은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 ③ 을에게: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갑과 을에게: 도덕을 추구하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 ⑤ 갑과 을에게: 도덕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반할 수 없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칸트와 에피쿠로스와 밀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나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다.

### {정답 찾기}

- ⑤ 에피쿠로스와 밀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기반하여 도덕을 논의했지만, 칸트는 그러한 경험적 사실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칸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 증진이 도덕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② 밀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③ 밀은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밀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위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도덕의 추구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강	10	#쪽	114	#번	009	#문항코드	25014-0161
----	----	----	-----	----	-----	-------	------------

### [문제]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덕과 입법의 전체 구조가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요지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생산적이다, 순수하다-  
쾌락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사적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 쾌락을 추구하라.  
공적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 쾌락을 확대하라.  
너의 견해가 어떻든, 고통은 회피하라.  
고통이 불가피하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라.

### <보기>

- ㄱ. 쾌락은 행위의 목적이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ㄷ. 입법자는 질적으로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ㄹ. 개인의 고통 총합을 감소시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벤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이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벤담은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벤담은 개인의 고통 총합을 감소시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ㄷ. 벤담은 모든 쾌락이 양에서만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강	10	#쪽	114	#번	010	#문항코드	25014-0162
----	----	----	-----	----	-----	-------	------------

## [문제]

(가), (나)의 입장에서 <사례> 속 K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 우리를 구속하지만, 갈등하는 경우 더 약한 의무는 사라지고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 의무가 된다.

(나)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사례>

고등학생 K는 선생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이 어린아이를 도와줄 사람은 현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K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길을 가야 할지 어린아이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가): 약속 지키기와 어린아이 돋기 중 정언 명령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 ② (가): 약속 지키기와 어린아이 돋기 중 현재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 ③ (나): 선생님의 이익과 어린아이의 이익을 비교하지 말고 선의지의 명령을 따르세요.
- ④ (나): 선생님과 어린아이의 이익을 계산할 때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의 공리를 생각하세요.
- ⑤ (가)와 (나): 약속 지키기와 어린아이 돋기 중 절대적 도덕 원리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로스의 사상과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로스의 사상이고, (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로스는 칸트 의무론의 한계인 도덕적 의무끼리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보다 느슨한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도덕 규칙을 세우고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답 찾기}

② 로스는 의무들끼리 충돌할 때는 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로스가 중시한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다.

③ 규칙 공리주의가 선의지의 명령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에 적용한다.

⑤ 로스는 의무들끼리 충돌할 때는 절대적 도덕 원리를 고려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20
03부	서양 윤리 사상		
11강	현대의 윤리적 삶: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강	11	#쪽	120	#번	001	#문항코드	25014-016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어떤 존재가,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어떤 존재란 인간이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뜻한다.

- ① 인간의 타고난 본질인 이성을 최대한 실현한다.
- ②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진다.
- ③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유일신에게 귀의하는 삶을 산다.
- ④ 세계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다.
- ⑤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자신의 본질로 만들어 간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마땅히 실현해야 할, 미리 결정된 본질이 없다.

③ 사르트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사르트르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11	#쪽	120	#번	002	#문항코드	25014-016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종교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망각했다면, 인간으로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망각한 것이다.
- 신이냐 아니면… 이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잊었거나 혹은 ‘자신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함께 멸망했거나 어느 한쪽이다.

- ① 참된 자신이 되려면 지성을 완전히 계발해야 한다.
- ②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신 즉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 ④ 신 앞에 홀로 서고자 함으로써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때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의 주장이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체적 결단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 {정답 찾기}

④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신을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결단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키르케고르는 참된 자신이 되려면 지성을 완전히 계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고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③ 키르케고르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⑤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가 아니라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강	11	#쪽	120	#번	003	#문항코드	25014-016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에 의해 능가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도 없다.

### <보기>

- ㄱ.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 ㄴ. 인간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 가능성을 수용해야 한다.
- ㄷ. 인간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성찰해야 한다.
- ㄹ.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사회 성원들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하이데거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하이데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다. 현존재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 ㄴ.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은 회피하기보다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으며,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ㄹ.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회 성원들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장	11	#쪽	120	#번	004	#문항코드	25014-0166
----	----	----	-----	----	-----	-------	------------

## [문제]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⑦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투쟁이나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불가피하게 죄책감을 가진다는 사실,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⑦ 한계 상황이라고 나는 말한다. 한계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벽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설명되거나 연역되지 않고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 ① 인간이 초월자의 부재를 알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인간이 참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이다.
- ③ 인간이 이성을 최고로 발휘할 때만 해결되는 상황이다.
- ④ 인간이 현실의 삶에 충실할 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 ⑤ 인간이 그 상황의 출현을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분명히 지각되는 상황이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야스페스의 한계 상황 개념에 대한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야스페스의 주장이다. 야스페스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과 같은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다. 야스페스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좌절을 발판 삼아 참된 자기 실존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참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야스페스에 의하면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야스페스에 의하면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르고 초월자를 경험할 수 있다.

③ 야스페스에 의하면 한계 상황은 인간이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과 보편성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④ 야스페스에 의하면 한계 상황은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⑤ 야스페스에 의하면 한계 상황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설명되거나 연역되지 않고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강	11	#쪽	121	#번	005	#문항코드	25014-0167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는 하나인가 다수인가, 운명적인가 자유로운가, 물질인가 정신인가? 이런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하여 우리는 각 관념의 실제적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그 관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관념이 저 관념보다 참이라면 이 관념은 누군가에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아무리 찾아도 실제적 차이가 없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해도 실제로 같은 것이다. 만일 어느 한쪽이 옳다면, 우리는 어떤 실제적 차이가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관념의 실제적 현금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 <보기>

- ㄱ. 형이상학적 관념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 ㄴ. 관념은 관념의 실제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 ㄷ. 형이상학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ㄹ. 참인 관념은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진리성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제임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제임스의 주장이다. 제임스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관념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제임스에 의하면 지식과 관념은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그는 이롭다는 것과 옳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제임스에 의하면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관념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ㄴ.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는 관념의 실제적 결과를 통해 관념을 평가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ㄷ. 제임스에 의하면 실용주의는 형이상학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념의 실제적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ㄹ. 제임스에 의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강	11	#쪽	121	#번	006	#문항코드	25014-016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숲에서 길을 잊고 굽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 있는 인가(人家)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인 관념은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참인 관념의 실제적 가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데 있다.

- ① 진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 ② 진리는 이성으로 인식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 ③ 진리는 경험으로 검증될 수 있고 유용성을 가진다.
- ④ 진리는 모두 자명하기에 증명의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
- ⑤ 진리는 효용성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제임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제임스의 주장이다. 제임스는 우리가 지식이나 관념이라고 여기는 것도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으면 참된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제임스에 의하면 참된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며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제임스에 의하면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삶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때 가치를 가진다.

② 제임스는 참된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며 거짓된 관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관념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제임스는 진리가 모두 자명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참된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제임스에 의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장	11	#쪽	121	#번	007	#문항코드	25014-016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다. 목적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최종 목적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해 가고 다듬어 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삶의 목적이다. 정직, 근면, 절제는 고정된 목적처럼 획득해야 할 선들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 변화의 방향이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 ① 개선의 과정보다 고정된 결과가 더 중요한가?
- ② 과학적 탐구를 통해 불변의 진리를 찾아야 하는가?
- ③ 실험으로 검증된 가설은 언제나 참으로 인정되는가?
- ④ 지식은 고정된 최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⑤ 이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니는가?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듀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에 의하면 지식이나 이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 {정답 찾기}

⑤ 듀이는 지식이나 이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듀이는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② 듀이는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듀이는 실험으로 검증된 가설도 상황이 변하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지식을 고정된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다.

#강	11	#쪽	121	#번	008	#문항코드	25014-0170
----	----	----	-----	----	-----	-------	------------

## [문제]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가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엄밀히 말해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을: 우리는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 판단된다.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을지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정적인 결과보다 성장,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 ①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에 속한다.
- ②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이다.
- ③ 도덕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④ 도덕적 삶은 불변의 도덕적 선에 의해 규정되는 삶이다.
- ⑤ 도덕적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 실천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흄과 듀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흄, 을은 듀이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흄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인(是認)의 감정을 느낀다고 보았다. 듀이는 실생활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칸트의 입장이다. 듀이는 실생활의 유용성을 중시하였다.

③ 칸트의 입장이다. 듀이는 도덕이 지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듀이는 도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흄은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강	11	#쪽	122	#번	001~002	#문항코드	
----	----	----	-----	----	---------	-------	--

### [01~02] [지문]

갑은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믿음은 우리를 신에게로 인도하고, 소망은 우리가 신을 지향하도록 인도하며, 사랑은 우리가 신과 영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인도한다. 신의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다.

을: 우리 각자는 신 앞에 존재하고 우리가 원할 때면 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신이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각자는 신 앞에 홀로 서서 커다란 노력으로, 커다란 책임을 지며 특정한 개별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강	11	#쪽	122	#번	001	#문항코드	25014-0171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갑: 인간은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도 추구해야 한다.
- ㄴ. 을: 인간은 유일신에게 귀의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 ㄷ. 을: 인간은 쾌락적 단계가 아니라 윤리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른다.
- ㄹ. 갑과 을: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현세에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아퀴나스,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사상의 토대를 다진 스콜라 철학자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신을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결단할 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 즉 남녀의 결합과 자녀의 양육 등을 추구해야 한다.

ㄴ.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대자인 유일신에게 귀의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가 아니라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른다.

ㄹ.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강	11	#쪽	122	#번	002	#문항코드	25014-017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없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받았고,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절대자에 의지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② 인간이 객관적 진리를 통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③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유 자체를 먼저 선택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참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인간이 참된 실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결단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고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키르케고르 역시 주체적 결단을 중시하였다.

#강	11	#쪽	123	#번	003	#문항코드	25014-0173
----	----	----	-----	----	-----	-------	------------

## [문제]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과 인간에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본질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경우 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감각적 욕망을 경멸하며, 현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우주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을 관조하는 것이 인간다운 활동이다.

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인간은 결코 응고된 채 주어진 그 어떤 인간 본성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바로 그 자유인 것이다. 한편 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가치나 질서를 우리 앞에서 찾지 못한다. 우리는 그 어떤 평계도 맬 수 없으며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 ① 인간은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본질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② 우주의 인과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이 아니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참된 실존의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삶을 부정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 함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아우렐리우스와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 을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이다.

##### {정답 찾기}

① 아우렐리우스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아우렐리우스는 우주의 인과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신 앞에 훌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강조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④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에게 이성에 따르는 삶과 자연에 따르는 삶은 동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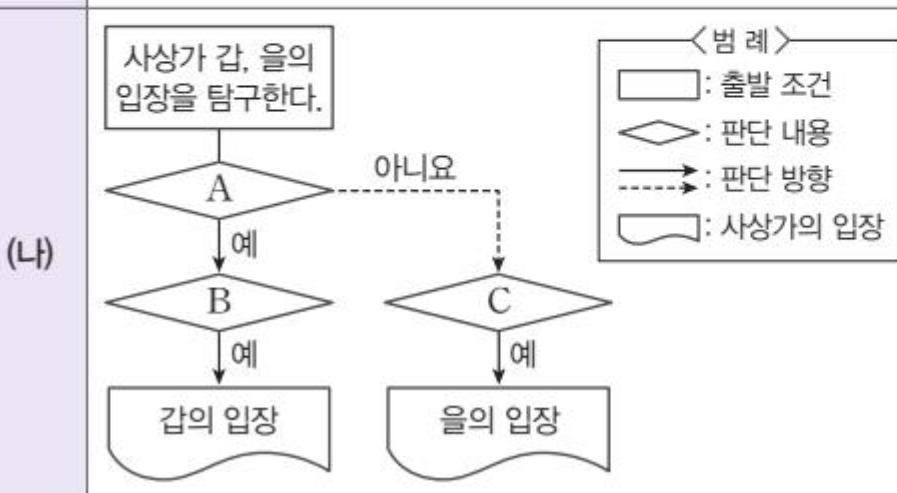
⑤ 사르트르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	11	#쪽	123	#번	004	#문항코드	25014-0174
----	----	----	-----	----	-----	-------	------------

### [문제]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들에 의해 교란되어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이에 반해, 현자(賢者)는 정신이 동요되지 않고, 자기와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을 통해 인식하며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린다.</p> <p>을: 인간은 쾌락을 즐기지만 허전함을 느끼고 절망에 이르며, 보편적 윤리 규범을 따르고자 하지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또한 절망에 이른다.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참된 실존에 이른다.</p>
-----	---



#### < 보기 >

- ㄱ. A: 신은 곧 자연이며, 우주 만물의 내재적 원인인가?
- ㄴ. B: 자연의 인과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 ㄷ. C: 불안은 인간이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ㄹ. C: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찾으려면 객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스피노자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스피노자,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을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함으

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스피노자는 궁정, 키르케고르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범신론적 신이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이다.
- ㄴ. 스피노자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적 인과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키르케고르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이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ㄹ. 키르케고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고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강	11	#쪽	124	#번	005	#문항코드	25014-0175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체성이라는 말로 우리는 인간이 먼저 실존한다는 사실을, 즉 인간은 우선적으로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요, 그렇게 스스로를 던지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스스로를 발명하도록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 <보기>

- ㄱ.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 ㄴ. 인간은 신에 의해서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이다.
- ㄷ. 인간은 자신이 실천할 도덕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 ㄹ. 인간은 보편적 진리로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이 실천할 도덕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ㄹ. 사르트르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 선택으로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강	11	#쪽	124	#번	006	#문항코드	25014-0176
----	----	----	-----	----	-----	-------	------------

### [문제]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을: 관념과 이론은 환경을 재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며, 관념과 이론의 가치는 그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검증된다. 유용성으로서의 진리가 의미하는 바는 봉사인데, 이는 관념과 이론이 경험을 재조직하는 것을 돋는 봉사이다.

< 보 기 >

- ㄱ. 갑은 학문의 목적이 새로운 진리 발견이 아니라 기존 진리의 논증이라고 본다.
- ㄴ. 을은 도덕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가 모두 오류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다.
- ㄷ. 을은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검증된 가설이 진리가 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모두 과학적 탐구로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모범답안]

5

[해설]

베이컨과 르네상스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베이컨, 을은 르네상스 사상이다. 베이컨은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이며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 사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ㄴ. 르네상스 사상은 도덕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 모두 오류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르네상스 사상은 도덕적 진리도 성장하고 진보한다고 본 것이다.
- ㄷ. 르네상스 사상은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검증된 가설이 진리가 된다고 보았다.
- ㄹ. 베이컨과 르네상스 사상 모두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학문을 통해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베이컨은 학문이 기존 진리의 논증보다 새로운 진리 발견에 힘써야 한다고 보며, 진리 탐구 방법으로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강	11	#쪽	125	#번	007	#문항코드	25014-0177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참인 관념은 누군가의 실제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진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참인 신념에서 나오는 경험은 거짓인 신념에서 나오는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요컨대 진리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참인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고 거짓인 관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관념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신앙은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
철학적 개념은 그 개념의 실제적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			∨	∨
진리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다른 필수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다.		∨	∨		∨	
도덕적 지식은 실제적 유용성과 무관하게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제임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제임스의 주장이다. 제임스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관념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제임스에 의하면 지식과 관념은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그는 이롭다는 것과 옳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제임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신앙은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두 번째 입장. 제임스는 관념이나 지식은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의 연관 속에서 경험적 증명을 통해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제임스는 진리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필수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네 번째 입장. 제임스는 지식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장	11	#쪽	125	#번	008	#문항코드	25014-0178
----	----	----	-----	----	-----	-------	------------

### [문제]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혹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에 따라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이 공리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실수는 슬퍼할 사건이거나 속죄할 도덕적 죄가 아니다. 실수는 지성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교훈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판단 기준과 이상을 양심적으로 사용할 의무와 함께, 개선된 판단 기준과 이상을 개발할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 ① 실험적 방법으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모르고 있다.
-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행위를 평가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도덕은 고정된 최종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⑤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벤담과 듀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벤담, 을은 듀이이다. 벤담은 행복의 증진이 도덕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듀이는 지식이나 이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⑤ 벤담과 듀이는 모두 도덕 판단이 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듀이는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벤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③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 도덕 원리로 보았다.

④ 듀이는 도덕이 고정된 최종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30
04부	사회사상				
12강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강	12	#쪽	130	#번	001	#문항코드	25014-017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추구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도(大道)가 실행되었을 때 천하는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신의를 지키고 서로 힘을 합하여 화목하게 지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공경하거나 자기 자식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는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게 하고, 과부와 고아, 독신 그리고 장애인들 모두가 부양받도록 한다. 재물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몸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 ① 인륜(人倫)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가 실현된다.
- ②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 ③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된다.
- ④ 경쟁을 통해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을 추구한다.
- 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나눈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공자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의 이상 사회를 제시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대동 사회는 성인(聖人)이 다스리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는 사회이다.

#### {정답 찾기}

- ③ 대동 사회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도덕 공동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동 사회는 인륜의 도덕규범이 실현되는 공동체이다.
- ② 대동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 ④ 대동 사회는 이로움[利]보다 의로움[義]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 ⑤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이며 스스로 그렇다고 여긴다. 또한 그들 각자는 그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게 될 원칙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평등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다스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원초적 입장은 이렇게 파악된 인격체들 간의 적절한 호혜성 및 평등을 구현하도록 구체화되어 있다.

#### < 보 기 >

- ㄱ.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 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 ㄷ. 사회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 ㄹ.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롤스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롤스는 정의가 실현된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롤스는 정의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보았다.
- ㄷ. 롤스는 사회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ㄴ.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 있다.

#강	12	#쪽	130	#번	003	#문항코드	25014-0181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된 수호자는 재산의 공동 소유와 가족의 공동 소유를 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양자에 있어서 똑같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방지하여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 즉 각자가 개별적인 처자(妻子)와 개별적인 쾌락과 고통을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집에 각각 자기 소유를 갖고 감으로써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 ① 통치 권력이 철학과 결합하지 않아야 이상적이다.
- ② 시민들은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스스로 선출한다.
- ③ 모든 계층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 ④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⑤ 모든 시민들은 지혜의 덕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플라톤의 이상 국가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이상 국가로 제시하였다. 이상 국가에서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며, 각 계급은 각자 자신의 일을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④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는 선(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는 통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통치자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과 후천적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만이 통치자로 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가족 및 재산을 공유하는 계층은 수호자 계층이라고 보았다.

⑤ 플라톤은 모든 시민들이 지혜의 덕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지 않았다. 플라톤은 시민들의 타고난 선천적인 소질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장	12	#쪽	130	#번	004	#문항코드	25014-018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토피아 섬에는 크고 장엄한 도시가 54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언어, 관습, 제도, 법이 모두 같다. 모든 도시는 균등한 네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역의 중심에는 모든 상품을 구비한 시장이 있다. 각 가구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모두 이곳에 반입된 다음 상품별로 정해진 자리에 보관한다. 가장은 이곳에 와서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

#### < 보 기 >

- ㄱ. 사유 재산제를 통해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진다.
- 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 ㄷ. 노동 시간 이외의 정신적 여가 활동이 보장된다.
- ㄹ. 자유 경쟁을 통해 능력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모어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의 이상 사회를 제시한 사상가는 모어이다. 모어는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 {정답 찾기}

- ㄴ. 모어는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노동에 종사하며,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정신적 오락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모어는 유토피아는 사유 재산제가 폐지되어 소유와 생산에서 평등을 누리는 사회라고 보았다.

ㄹ.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사회적 재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분배가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강	12	#쪽	131	#번	005	#문항코드	25014-018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인구가 적고 나라의 크기가 작다. 열 가지 백 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한다.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멀리 옮겨 살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내보일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닦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무위의 통치를 바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이다.		V	V		V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이다.		V		V		V
무지와 무욕의 덕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V	V	V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사는 사회이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노자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국 과민(小國寡民)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소국 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통치를 통해 다스려지는 사회이다.

세 번째 입장. 소국 과민 사회는 무지와 무욕의 덕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이다.

네 번째 입장. 소국 과민 사회는 인의(仁義)와 분별적 지식을 멀리하는 사회이다.

### {오답 피하기}

두 번째 입장. 소국 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의 이기(利器)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이다.

#강	12	#쪽	131	#번	006	#문항코드	25014-018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깊은 동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사물을 응고하거나 경화, 냉동시키며 다양하게 보존하는 데 이 동굴이 사용된다. 여기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물질로 병을 치유하며 생명을 연장한다.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추고서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 산다.

#### <보기>

- ㄱ. 사회 발전은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주도해야 한다.
- ㄴ. 사회적 풍요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ㄷ. 자연에 대한 지배력의 확대를 통해 이상 사회가 실현된다.
- ㄹ.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베이컨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베이컨의 주장이다. 베이컨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진 사회인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풍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베이컨이 제시한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자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사회이다.
- ㄹ. 베이컨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강	12	#쪽	131	#번	007	#문항코드	25014-0185
----	----	----	-----	----	-----	-------	------------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하루에 오직 6시간만 일한다. 하루 6시간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모든 생필품뿐만 아니라,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온갖 물건을 만들어 낸다. 도리어 그런 것을 충분히 생산해 내고도 시간이 남아돈다.

**을:** 공산 사회에서는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된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제1차적인 욕구가 된다.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여 집단적인 부가 풍요로워진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① 갑: 사회적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가 이루어진다.
- ② 갑: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
- ③ 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통해 평등이 실현된다.
- ④ 을: 국가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모어와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모어, 을은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마르크스이다.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공산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 {정답 찾기}

⑤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는 모두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이다.

### {오답 피하기}

① 모어는 유토피아는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보았다.

②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타도되어 계급이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④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소멸된다고 보았다.

#강	12	#쪽	131	#번	008	#문항코드	25014-018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공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노동자 계급은 쇠사슬만 잊을 뿐 아무것도 잊는 것이 없다. 노동자 계급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 < 보 기 >

- ㄱ. 이상 사회는 시장 경제 체제의 보완을 통해 실현된다.
- ㄴ. 이상 사회에서는 착취가 사라져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
- ㄷ. 이상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체로 구성된다.
- ㄹ. 이상 사회에서는 소유와 생산에서 불평등한 계급 관계가 소멸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노동이 자유 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이다.

## {정답 찾기}

ㄴ.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인간이 노동 소외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ㄷ.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산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체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ㄹ.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소유와 생산에서 불평등한 계급 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마르크스는 시장 경제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차취와 억압이 사라진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강	12	#쪽	132	#번	001	#문항코드	25014-0187
----	----	----	-----	----	-----	-------	------------

## [문제]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백성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p> <p>을: 통치자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므로 [無爲] 백성이 저절로 바뀌고, 통치자가 조용함을 좋아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통치자가 일을 꾸미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되고, 통치자가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탐구한다.</p> <p>A ↓ 예 B ↓ 아니요 C ↓ 예</p> <p>갑의 입장 을의 입장</p> <p>〈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弧: 사상가의 입장</p> <pre>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탐구한다.] --&gt; A{A}; A -- 예 --&gt; B{B}; B -- 아니요 --&gt; C{C}; C -- 예 --&gt; G1[갑의 입장]; C -- 예 --&gt; G2[을의 입장];</pre>

- ① A: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인(仁)과 예(禮)가 실현된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② A: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道)가 실현된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③ B: 인위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B: 인간이 지닌 자연적 본성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⑤ C: 예악(禮樂)의 학립을 통해 상덕(上德)이 실현된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공자와 노자의 이상 사회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공자, 을은 소국 과민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노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임금이 백성을 덕으로써 다스리는 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다. 노자는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공자와 노자가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와 노자는 모두 백성들은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러한 도가 실현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공자는 궁정, 노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인과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공자는 부정, 노자는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④ 노자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자연적 본성에 따라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⑤ 노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인 예악(禮樂)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상덕(上德)이 실현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	12	#쪽	132	#번	002	#문항코드	25014-018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현대적 시민의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 즉 다른 계급들에 대한 한 계급의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품의 제조와 획득의 최종적인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 폐지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사회적 생산물을 취득할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 다만 그 것은 이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			∨	∨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의 소유에 따른 차별이 사라진다.					∨	∨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아도 재화가 충분히 생산된다.			∨		∨	∨
국가는 경제적 평등을 위해 일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		∨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불평등한 현실을 타파하고 사적 소유제를 폐지하여 모두가 평등한 공산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의 소유에 따른 차별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두 번째 입장.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도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에서는 인간은 창조적 노동자로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인간은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세 번째 입장.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과 국가가 모두 소멸된다고 보았다.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철학자들이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공부하여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한 이상 국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가 되어 현재 그 둘 중의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추구하고 있는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억지로 금지당하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들의 불행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을:**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똑같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같은 종류의 옷을 입는다. 이 옷은 보기도 아름답고 활동하기에도 편한데다가 추위와 더위에도 적합하다. 모두가 입는 이 옷은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입는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각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이상 사회에서는 선의 이데아를 바르게 인식한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여가 시간 활용은 자신의 재량에 달려 있다.
- ④ **을:** 이상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화에 대한 사치를 멀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플라톤과 모어의 이상 사회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은 선(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다스리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모어는 모든 인간이 소유와 생산에 있어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플라톤의** 이상 사회에서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는 각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을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는 선(좋음)의 이데아를 바르게 인식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나 낭비가 없어 겸소하게 살아간다고 보았다.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 < 보 기 >

- 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 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 ㄷ.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재화가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ㄹ.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롤스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롤스이다. 롤스는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롤스는 효율성이나 유용성이라는 가치보다 정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에 기초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모든 재화가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장	12	#쪽	134	#번	005	#문항코드	25014-0191
----	----	----	-----	----	-----	-------	------------

### [문제]

갑은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 주고, 그 뜻을 약하게 해 주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앓이 없고 욕심이 없게 한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을: 뉴 아틀란티스에서는 인공 우물이나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질을 넣어 실험한 결과, 천국의 물을 만들어 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된다. 또한 한번 먹고 나면 그다음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기나 빵, 음료수도 개발하였다.

### < 보기 >

- ㄱ. 갑: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통해 이상적인 삶이 실현된다.
- ㄴ. 갑: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와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 ㄷ. 을: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진다.
- ㄹ. 갑과 을: 문명의 이기(利器)를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활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노자와 베이컨의 이상 사회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노자, 을은 베이컨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하고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 통치할 때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은 과학 기술자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신비의 섬인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 ㄴ. 노자의 이상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와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 ㄷ. 베이컨은 이상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ㄱ. 노자는 이상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ㄹ. 노자는 이상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강	12	#쪽	134	#번	006	#문항코드	25014-019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기나 지혜는 나라의 중요한 덕이다. 용기의 덕은 나라를 용기 있는 나라로 만들며, 지혜의 덕은 지혜로운 나라로 만든다. 하지만 절제는 그렇지 못하다. 절제는 음(音)의 조화처럼 서로 다른 음정이 모여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마련된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덕을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가지 덕에 한 가지를 더 갖추어야 이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 ① 이상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② 이상 사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③ 이상 사회는 개인 간의 사회 계약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 ④ 이상 사회는 각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실현될 수 있다.
- ⑤ 이상 사회에서는 국가를 수호하는 계층도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플라톤의 이상 사회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는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계층이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른 일을 하며,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플라톤은 이상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다.

②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각자의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과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이상 사회가 개인 간의 사회 계약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⑤ 플라톤은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호자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40
04부	사회사상		
13강	국가와 시민		

#강	13	#쪽	140	#번	001	#문항코드	25014-019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경우는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恒心]도 없어지게 된다. 일정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방탕하고 치우치고 부정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 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군(明君)은 백성들의 생업을 관찰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준다. 그런 연후에 백성들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 ① 군주는 강력한 형벌에만 의존하여 통치해야 한다.
- ② 군주는 효제(孝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③ 군주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겨 정치를 해야 한다.
- ④ 군주는 백성을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 ⑤ 군주는 도덕 공동체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맹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들의 생업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한 후에 교화하면 백성들의 도덕적인 마음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맹자는 군주는 강력한 형벌에 의한 통치인 패도(霸道)가 아니라 덕에 의한 통치인 왕도(王道)를 바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맹자는 군주는 효제(孝悌)의 가족 윤리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를 실현하는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군주는 인륜을 강조하고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는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맹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군주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0	#번	002	#문항코드	25014-019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의 평등으로 인해 목적한 바를 얻고자 하는 똑같은 희망이 생기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만 양이 충분하지 못해 서로 만족할 수 없을 때 두 사람은 적이 된다. 따라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 <보기>

- ㄱ. 자연 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의한 상황이다.
- ㄴ.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 ㄷ.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라 형성되는 자연적 산물이다.
- ㄹ.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사회 계약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홉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인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투쟁하는 전쟁 상태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ㄴ. 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연권을 양도하여 주권자를 수립하는 계약을 맺어 절대 군주의 통치 아래 모두가 복종하기로 한다고 보았다.

ㄹ.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게 모두 양도되어야 사회 계약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홉스는 자연 상태는 공통의 규범과 객관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없으므로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ㄷ. 홉스는 국가는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	13	#쪽	140	#번	003	#문항코드	25014-0195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도는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그리고 그 공동 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 ① 국가는 인민의 동의 없이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소수 엘리트 간의 합의로부터 성립되어야 한다.
- ③ 입법권은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 권력이다.
- ④ 인민은 생명 보존을 위해 모든 자연권을 사회에 양도해야 한다.
- ⑤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인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로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형성하고자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로크는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과 같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권력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로크는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② 로크는 소수 엘리트 간의 합의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개인이 지닌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한다고 보았다.

⑤ 로크는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개인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0	#번	004	#문항코드	25014-019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성상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또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가족과 국가가 생긴다.
--

< 보기 >

- ㄱ. 국가는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 ㄴ. 국가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ㄷ.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지배 계급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이며, 개인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덕적 능력의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라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강	13	#쪽	141	#번	005	#문항코드	25014-0197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간섭이 없어도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간주된다. 간섭하지 않는 주인의 경우에서처럼 간섭이 없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다.
- ㄴ. 법은 자의적 권리의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 ㄷ.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
- ㄹ. 각 개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인에 의한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페팃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페팃의 주장이다. 페팃은 타인의 행동에 간섭이 있는 상태와 두려움을 갖고 움츠러들게 하는 예속적 상태를 구분하며, 진정한 자유를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았다.

{정답 찾기}

- ㄱ. 페팃은 진정한 자유는 주종적이고 예속적인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인 비지배적 자유라고 보았다.
- ㄴ. 페팃은 공공선의 실현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은 권리자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페팃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의적 권리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ㄹ. 페팃은 비지배적 자유를 위해 타인에 의한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는 사상의 자유, 취향과 추구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막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 ①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이다.
- ② 개인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신에게만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침범당할 수 없는 주권자이다.
- ④ 국가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타인의 행복을 위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밀의 주장이다. 밀은 개인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가 보장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② 밀은 개인이 사회에 책임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된 경우일 뿐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밀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고 보았다.
- ③ 밀은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침범당할 수 없는 주권자라고 보았다.
- ④ 밀은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가 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밀은 국가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종적 지배와 예속 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법의 제재를 두려워함이 없이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 보기 >

- ㄱ. 시민들은 개인선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 ㄴ. 인간의 권리는 시민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 ㄷ. 시민들은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 공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ㄹ. 시민들은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 타인의 자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비롤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비롤리의 주장이다. 비롤리는 법을 통해 타인과 권리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ㄷ. 비롤리는 시민들은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비롤리는 시민들은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 타인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비롤리는 개인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개인선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공동선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비롤리는 시민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자유는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가만히 두었다면 내가 할 수 있었을 일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못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내가 강제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어쩌면 노예가 된다는 서술이 가능하게 된다.

- ①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 ②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 ③ 개인의 자유는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질수록 증대되는가?
- ④ 자유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수록 증가하는가?
- 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가?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벌린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벌린의 주장이다. 벌린은 진정한 자유를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인 ‘~로부터의 자유’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④ 벌린이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벌린은 좋은 의도의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유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수록 증가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벌린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 ② 벌린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벌린은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벌린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벌린은 지나치게 많은 법에 의한 간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벌린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벌린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문제]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b>(가)</b></p> <p>갑: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을 통해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바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기꺼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여 그것이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그리고 공동체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합의하는 규칙에 따라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다.</p> <p>을: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p>	
---	--

- ① A: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공통의 기준이 존재하는가?
- ② B: 정치적 의무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 의무 중 하나인가?
- ③ B: 국가의 최고 권력은 시민의 자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 ④ C: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절대 권리에 양도해야 하는가?
- ⑤ C: 시민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주권자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가?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로크와 흉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로크, 을은 흉스이다. 로크는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 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흉스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흉스는 자연 상태를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공통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았다.
- ② 로크와 흉스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크와 흉스는 모두 정치적 의무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로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 시민의 자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⑤ 흉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흉스는 시민이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2	#번	002	#문항코드	25014-020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좋음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유품이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유품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		V			V	V
국가는 가족보다 앞서 형성되며 다른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		V	V		V	
국가는 개인의 생존 보장만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V	V		V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이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하며 인간은 가족과 촌락을 포함하는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 안에서만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은 자급자족적이지 않지만, 국가는 자급자족적 공동체라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훌륭한 삶을 위해서라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가족, 촌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두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가족과 촌락 등 다른 공동체를 포함하는 최고의 공동체이지만, 가족과 촌락보다 먼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문제]

사회사상가 갑과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선택된 권리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선택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을: 인(仁)을 파괴하는 사람을 도적[賊]이라 부르고, 의(義)를 파괴하는 사람을 강도[殘]라 부른다. 도적이나 강도는 일개 평민이라 부른다. 폭군을 죽이는 것은 일개 평민을 죽이는 것이지 군주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 <보기>

- ㄱ. 갑: 통치 권력은 구성원들이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선택한 권리이다.
- ㄴ. 갑: 통치자는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
- ㄷ. 을: 통치자는 덕 있는 정치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통치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로크와 맹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로크, 을은 맹자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입법부를 설립하고 법의 지배에 따르는 것을 통해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빼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로크는 통치 권력은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선택된 권력이라고 보았다.

ㄹ. 로크는 입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통해 입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의 뜻을 저버린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로크는 통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맹자는 통치자는 덕 있는 정치를 해야 하지만,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다고 보지 않았다.

#장	13	#쪽	143	#번	004	#문항코드	25014-0204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자유를 위협한 시민을 민회나 일정한 행정관 또는 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만큼 유용하거나 필요한 것을 달리 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화국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고발당할까 두려워서 국가에 반역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기도를 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사정없이 제압되어 버립니다. 둘째는 국가가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잡다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 보기 >

- ㄱ. 통치자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시민과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
- ㄴ. 공화국에서 고소와 고발권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ㄷ. 공화국은 합법적으로 당파적 증오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ㄹ. 시민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공화국의 권력을 소수가 독점해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마키아벨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마키아벨리이다. 마키아벨리는 소수가 공화국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당파나 사람이 있다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ㄴ.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에서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ㄷ.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에서는 합법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당파적 증오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ㄹ. 마키아벨리는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4	#번	005~006	#문항코드	
----	----	----	-----	----	---------	-------	--

### [05~06] [지문]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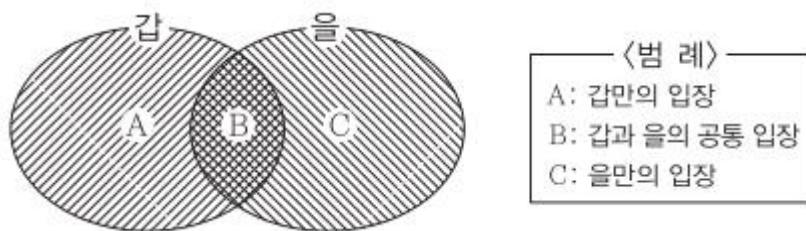
**갑:**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음과 그름의 관념,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을:**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는 곧바로 특정한 계약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낸다.

#강	13	#쪽	144	#번	005	#문항코드	25014-0205
----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은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 주권자인 절대 군주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 ㄴ. B: 공동선을 위해 주권은 일반 의지의 대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ㄷ. B: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성한 공동체이다.
- ㄹ. C: 인민의 동의가 국가의 주권적 권력에 복종할 의무의 근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홉스와 루소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전쟁 상태로 규정하고,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았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홉스는 주권은 절대 군주에게 있으며 절대 군주는 법을 제정할 권한과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ㄷ. 홉스와 루소는 모두 국가를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성한 공동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ㄴ. 홉스는 주권은 사회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절대 군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ㄹ. 홉스와 루소는 모두 인민의 동의를 국가의 주권적 권력에 복종할 의무의 근거라고 보았다.

#강	13	#쪽	144	#번	006	#문항코드	25014-020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척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파괴할 수 없으며,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살해할 수 없다. 자연 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 ①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자연 상태는 객관적 도덕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⑤ 어떤 사람이 국가의 영토를 일부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의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로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흉스는 자기 보존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양도받은 절대 군주의 통치 아래 모두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로크는 정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회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② 흉스는 자연 상태는 인간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는 전쟁 상태라고 보았다.

④ 흉스는 공통의 권리가 없는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다.

⑤ 로크는 어떤 정부의 영토를 일부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이 그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무시적 동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5	#번	007	#문항코드	25014-0207
----	----	----	-----	----	-----	-------	------------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대로 고른 것은?

갑: 내가 할 수 있었을 일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못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내가 강제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노예가 되었다는 서술이 가능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나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

을: 비지배 자유는 오직 지배에 의해서만 손상된다. 따라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 내 자유가 손상되지는 않지만, 이때의 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한계가 바로 내가 누리는 자유를 조건 짓기 때문이다. 타인에 의한 지배를 감소시킴으로써 우리는 비지배 자유의 강도와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보기>

- ㄱ. 갑: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 ㄴ. 갑: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선택이나 활동에 대한 간섭이 부재한 상태이다.
- ㄷ. 을: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ㄹ. 갑과 을: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간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별린과 페팃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별린, 을은 페팃이다. 별린은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라고 보았다. 페팃은 진정한 자유는 주종적이고 예속적인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별린은 삶에 대한 타인이나 국가에 의한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도 확대된다고 보았다.

ㄴ. 별린은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선택이나 활동에 대한 간섭이 부재한 상태인 소극적 자유라고 보았다.

ㄹ. 별린과 페팃은 모두 국가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간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별린은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법에 의한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페팃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ㄷ. 페팃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의 자의적 지배의 부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강	13	#쪽	145	#번	008	#문항코드	25014-020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라 사랑이라는 애착은 타락한 사회나 완벽한 사회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치 공동체가 가지는 자연적 해악들 중에서도 가장 말단의 것일 뿐이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만들어진 열정으로 이것은 넘쳐 흐를 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왕성한 힘을 보여 주기도 한다. 법과 정치의 지혜가 이것을 나타나게 하고,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팽창하게 하고, 왕성한 힘을 갖게 하는 반면, 그러한 지혜가 없는 경우, 그것을 약화시키고, 내쫓아 버리고, 금지시키게 된다.

- ① 애국심은 민족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 ② 애국심은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자발적 사랑이다.
- ③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애착에서 나오는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감정이다.
- ④ 애국심은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 ⑤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비롤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비롤리의 주장이다. 비롤리는 공공선의 실현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예속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법치 국가에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을 애국심의 본질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민족 국가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 가는 특정 공화국과 동료 시민에 대한 애착과 태도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민족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다.
- ②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유를 수호해 온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혈연, 지연에 기반하여 태어난 나라와 민족에 대해 갖는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감정인 애착을 애국심으로 보는 것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다.
- ④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유와 정의가 확립된 조국에 대한 인위적 열정으로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보았다.

#장	13	#쪽	146	#번	009	#문항코드	25014-0209
----	----	----	-----	----	-----	-------	------------

###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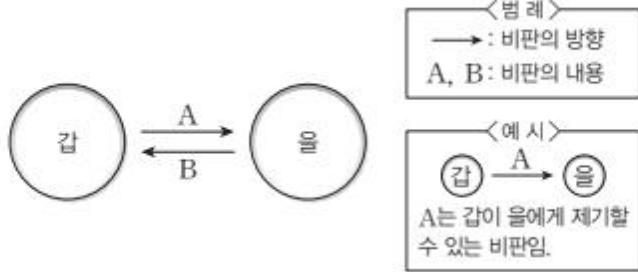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국가는 분명 자연의 산물이고 개인에 우선한다. 왜냐하면 고립되어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개인은 전체에 대해 다른 신체의 부분이 전체에 대해 갖는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들짐승이나 신일 것이다.

을: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사회 계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결합은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나)



- ① A: 국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국가는 인간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③ A: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임을 간과한다.
- ④ B: 국가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므로 소멸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루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생겨난 인간 간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사회적·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루소는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살던 인간이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② 루소는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 등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수단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시민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⑤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므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마르크스의 국가관이다.

#장	13	#쪽	146	#번	010	#문항코드	25014-0210
----	----	----	-----	----	-----	-------	------------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회는 한 사람의 행위 중에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한 권리로서 절대적이다.

을: 제약이 아닌 예속을 자유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법은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루이다. 그러한 법에 의한 지배는 시민 모두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을 타인들의 자의적 의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 보 기 >

- ㄱ. 갑: 개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 ㄴ. 갑: 공동체의 관습과 전통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 ㄷ. 을: 정의로운 공화국은 사람들에게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 ㄹ. 갑과 을: 법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과 공동선을 보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밀과 비롤리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밀, 을은 비롤리이다.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롤리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ㄱ. 밀은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위

에 대해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밀은 공동체의 관습과 전통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비롤리는 정의와 법의 지배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사람들에게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ㄹ. 밀과 비롤리는 모두 법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모두 보장한다고 보았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52
04부	사회사상		
14강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강	14	#쪽	152	#번	001	#문항코드	25014-0211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력의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한 행사로 인해 겪게 되는 자연 상태의 불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이 갖는 고유한 권리와 기원을 알게 된다.

- ① 자연법 집행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불가능하다.
- ②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재산권을 획득한다.
- ③ 시민에게는 권력의 신탁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 ④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의 공평한 재판관이다.
- ⑤ 입법부는 최고 권력으로서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로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③ 로크는 국가가 신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

민은 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로크는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 집행권을 정부에 양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타고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⑤ 로크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입법부가 시민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면 시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	14	#쪽	152	#번	002	#문항코드	25014-021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의 정체(政體)는 정치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에게 골고루 나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정이라 불린다.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 기회와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 때문에 이름도 없이 헛되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 한 사람은 독립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기>

- ㄱ.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ㄴ. 성별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ㄷ. 정치 공동체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직을 맡을 대표자는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에 대한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추도사 중 일부이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잘 드러나 있다.

### {정답 찾기}

ㄱ.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 권리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ㄷ.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민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이처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시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는 제한되었다.

ㄹ.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공직은 시민의 투표가 아니라 추첨 혹은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다.

#강	14	#쪽	152	#번	003	#문항코드	25014-021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인민’과 ‘통치’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분명한 의미에서 인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의미할 수도 없다. 인민은 자신들이 일단 어떤 개인을 선출하고 나면 정치 활동은 의원의 직무이고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정치를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타락하게 된다.  
ㄴ. 엘리트의 비합리적 충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ㄷ.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정치인의 통치를 뜻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슘페터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슘페터의 주장이다.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역할은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ㄷ.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정치가에 의한 통치라고 규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슘페터는 엘리트로서의 정치가를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슘페터는 시민은 엘리트로서의 정치가보다 비합리적인 편견과 충동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① 공적 정의관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에 한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이다.
- ③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폭력적 저항도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
- ④ 항의 수단의 비폭력성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모든 위법 행위를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만든다.
- ⑤ 정의의 원칙들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법에 대해서는 합법적 항의 이전에 시민 불복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롤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3	#번	005	#문항코드	25014-021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에서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의 부의 추구는 위험시된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육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은 것이다. 합리적 직업 노동이 바로 신이 원하는 바이다.

### < 보 기 >

- ㄱ.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에서의 성공이 신에 의한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프로테스탄트는 부의 축적 자체가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ㄷ. 부의 추구를 죄악시한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 ㄹ.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세속적 부의 추구와 종교 생활을 엄격히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베버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베버의 주장이다. 베버는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인식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직업적 성공에 따른 자본의 축적을 도덕적·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직업적 성공 및 그에 따른 부의 축적을 신에 의한 구원의 징표로 해석한다.

ㄴ.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은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이 아니라 신의 구원을 통한 내세에서의 완전한 행복이다.

#### {오답 피하기}

ㄷ. 베버는 직업적 성공에 따른 자본 축적을 긍정하고 성실함과 금욕을 강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ㄹ.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 부의 축적이 종교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3	#번	006	#문항코드	25014-021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과세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마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 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르는 경제 활동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시장 자체의 가격 조절 기능만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④ 완전 고용의 목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 ⑤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케인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케인스의 주장이다. 케인스는 과세 및 이자율 정책, 그리고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

자의 사회화 등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 고용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윤 추구 및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긍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케인스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개인의 이윤 추구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긍정하였다.

②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케인스는 시장의 자체적 가격 조절 기능만으로는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가 극복되기 힘들다고 보았다.

⑤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의 사회화 등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3	#번	007	#문항코드	25014-0217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주의는 경쟁이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자유주의의 주장은 인간의 노력들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것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의 일들입니다.



- ① 시장을 규제하는 법체계와 경쟁 원리의 효율적 작동은 양립 가능하다.
- ② 자원 분배의 효율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 ③ 경쟁 원리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도 정부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한다.
- ④ 경쟁 원리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厚生) 증진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바탕으로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① 하이에크는 경쟁 원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한 시장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② 하이에크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④, 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만으로 경쟁의 원리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3	#번	008	#문항코드	25014-021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가 되면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다. 그리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제1차적인 욕구가 된다. 그리하여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여 집단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흘러넘치게 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 ① 계급 간 대립이 사라진 국가 수립은 역사의 필연성인가?
- ② 사적 소유에 기반한 체제로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는가?
- ③ 이상 사회의 도래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한가?
- ④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로 계급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⑤ 계급 간 대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사라지는가?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②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강요된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노동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의 도래는 노동자의 폭력 혁명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를 설명하며 공산 사회에서는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장	14	#쪽	154	#번	001	#문항코드	25014-0219
----	----	----	-----	----	-----	-------	------------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오직 동료의 자비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제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의의 대부분을 얻어 낸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 고용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중앙 통제가 완전 고용에 실제 가능한 한 가장 근사하게 대응하는 총산출량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요소가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분석에 반대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 ① 갑: 공공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만이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 ② 갑: 국가는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 ③ 을: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부의 균등 분배를 목표로 해야 한다.
- ④ 을: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은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한다.
- ⑤ 갑과 을: 자유방임적 질서 안에서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스미스와 케인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미스, 을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부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소득 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 ④ 케인스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및 공공사업 등을 바탕으로 불황 및 실업과 같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스미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아닌 개인의 이익 추구 동기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이 국부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사상을 주장하였다.
- ③ 케인스는 사유 재산제를 긍정하였으며 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지 않았다.
- ⑤ 케인스는 시장의 자체 기능만으로는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4	#번	002	#문항코드	25014-0220
----	----	----	-----	----	-----	-------	------------

### [문제]

다음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동안 민주주의는 주로 투표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정치 과정 이전에 이미 고정된 일련의 선호를 지닌 존재로 간주되고, 투표는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들을 공적 결정으로 전환하는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 집약적 민주주의 모델은 단지 승자와 패자를 기계적으로 가르는 역할만을 하게 되고, 합의나 공적 여론 형성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이성적 토론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 즉,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목적에 대해 심의한 결과여야 하는 것이다.

#### < 보기 >

- ㄱ.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은 정치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ㄴ. 민주주의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총합을 의미할 뿐이다.
- ㄷ. 민주주의에서 정책 심의는 선출된 엘리트들의 독점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ㄹ. 민주주의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는 이성적 토론이 결부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심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이성적 토론 과정에 기반한 공적 심의의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엘리트 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정답 찾기}

- ㄷ.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전문가, 공직자 모두가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 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 ㄱ.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민의 역할이 정치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은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이다.
- ㄴ.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에 기반한 심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변경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b>(가)</b></p> <p>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따라서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이다.</p> <p>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침해와 공격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력을 갖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자연권의 행사를 중지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보호를 호소하는 모든 경우에 그를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곳. 오직 그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p>	<pre> graph TD     Q["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gt; A{A}     A -- 예 --&gt; B{B}     A -.- 아니요 -.-&gt; C{C}     B -- 예 --&gt; G["갑의 입장"]     C -- 예 --&gt; E["을의 입장"]     </pre> <p>Legend (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x: 출발 조건</li> <li>Diamond: 판단 내용</li> <li>Dashed arrow: 판단 방향</li> <li>Bowtie: 사상가의 입장</li> </ul>
---	---

< 보 기 >

- ㄱ. A: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의 행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 ㄴ. A: 국가 수립의 사회 계약은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체결되는가?
- ㄷ. B: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가?
- ㄹ. C: 시민의 선택을 위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루소와 로크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루소, 을은 로크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ㄷ. 루소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로크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 보장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정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루소와 로크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소는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 행사는 일반 의지를 통해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 행사가 공통의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루소와 로크 모두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소와 로크 모두 사회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5	#번	004	#문항코드	25014-022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그 제도 내에서 개인들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획득한다.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통치이며, 시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	∨		∨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와 정치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		∨	∨		∨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이다.		∨		∨		∨
정치 문제에 관해 대중은 정치가에 비해 편견에 빠지기 쉽다.				∨	∨	∨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시민의 의견을 대행하는 집행자이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슘페터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슘페터의 주장이다. 슘페터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두 번째 입장.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였다.

세 번째 입장. 슘페터는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시민은 엘리트로서의 정치가에 비해 비합리적인 충동과 편견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첫 번째 입장. 슘페터는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은 선출된 정치가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입장. 슘페터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가가 시민의 의견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았다.

#강	14	#쪽	156	#번	005	#문항코드	25014-0223
----	----	----	-----	----	-----	-------	------------

### [문제]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산주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유관계와 가장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 계급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갑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형태에서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중앙 집권 기관에서 경제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어떤 독재 정치 못지않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입니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 주장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을

- ① 갑: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후 새로운 계급 간 투쟁 시기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 ② 갑: 정치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 ③ 을: 의도가 선하다면 정부의 시장 통제는 사회적 효용과 무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을: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건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없다.
- ⑤ 갑과 을: 재화가 이상적으로 분배되는 상태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마르크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마르크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마르크스는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공산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의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마르크스는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여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모든 계급이 사라진 공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하이에크는 경쟁 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그 의도가 선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하이에크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및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⑤ 하이에크는 경쟁 원리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시장에서의 국가 역할을 인정하였다.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6	#번	006	#문항코드	25014-0224
----	----	----	-----	----	-----	-------	------------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을:** 민주적 법치 국가는 단순한 합법성을 토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 짓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아닌 조건부의 복종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적 법치 국가 내에서 합법적 규정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현대의 헌법 국가는 자신이 인정할 만한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을 경우에만 시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복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 정치적 다수가 지지하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
- ㄴ. 을: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ㄷ. 을: 민주적 법치 국가는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법에 대한 복종을 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롤스와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롤스, 을은 하버마스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은 비록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ㄷ. 하버마스는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법의 정당성은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와 하버마스 모두 시민 불복종은 법치 국가에서 성립 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적 법치 국가의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롤스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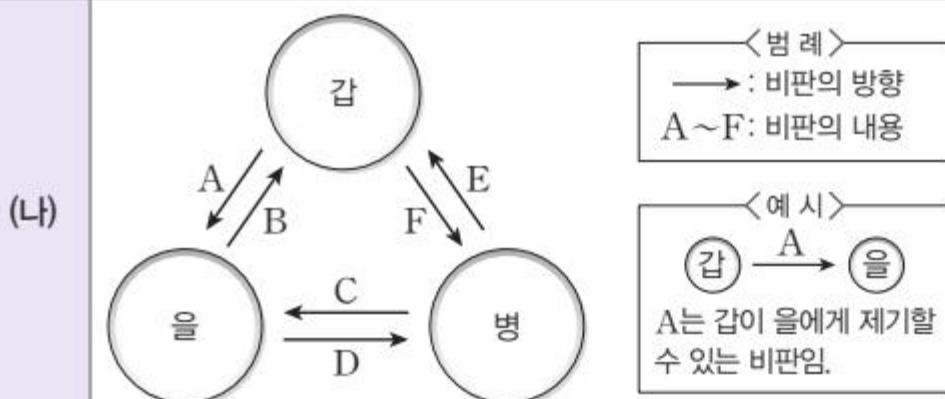
ㄴ. 하버마스는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날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장	14	#쪽	157	#번	007	#문항코드	25014-0225
----	----	----	-----	----	-----	-------	------------

## [문제]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갑: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 각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p> <p>을: 사회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산의 증진,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자유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p> <p>병: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개인의 창의성이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조건이다.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 사이의 조절을 위한 중앙 통제의 필요성을 별도로 한다면 지금 이상으로 경제생활을 사회화할 이유는 없다.</p>
--	---



- ① A: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는 민주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와 D: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완전 고용은 사회주의 이상을 바탕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④ E: 국부의 증진은 입법자의 이타적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⑤ F: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만으로는 불황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스미스, 민주 사회주의, 케인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스미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 사상가, 병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의해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사회의 이익 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불황,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케인스는 개인의 이윤 추구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바탕 위에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케인스가 민주 사회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 보장 제도 확대와 같은 정책은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케인스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의 사회화 등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 불황과 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윤 추구 행위가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케인스는 시장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강	14	#쪽	157	#번	008	#문항코드	25014-022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주권이란 오직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의지는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그 일부의 의지이다. 전자의 경우 그 의지는 주권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개별 의지이거나 행정 기관의 행위일 뿐이다.

### <보기>

- ㄱ. 일반 의지는 양도될 수 없지만 정부 권력은 양도될 수 있는가?
  - ㄴ. 사유 재산제의 폐지로 인한 불평등과 예속이 사회 계약으로 이어지는가?
  - ㄷ. 입법권은 사회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귀속된 권리로서 양도 불가능한가?
  - ㄹ. 주권은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인 정부에 의해서만 대표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 [해설]

### 루소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루소의 주장이다. 루소는 주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루소는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고 주권자는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되며, 정부는 주권자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루소는 정부 권력은 양도될 수 있지만 일반 의지는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ㄷ. 루소는 일반 의지의 표현인 입법권은 대표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니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유 재산의 확립 등으로 인해 불평등과 예속에 처하게 되고 사회 계약의 체결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과 예속에서 벗어나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루소는 주권은 정부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오직 집합적 존재로서의 주권자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된다.

#강	14	#쪽	158	#번	009~010	#문항코드
----	----	----	-----	----	---------	-------

## [09~10] [지문]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재무부 관리들이 낡은 병들에 지폐를 가득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갱을 지면까지 도시의 쓰레기로 덮은 후 사업으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 파급 효과에 의해 사회의 실질 소득과 자본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 버렸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강	14	#쪽	158	#번	009	#문항코드
----	----	----	-----	----	-----	-------

## [문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 ② 갑: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③ 을: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주의 이상의 달성을 상호 모순적인 관계이다.
- ④ 을: 자본주의의 병폐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이 동반된 혁명이 불가피하다.
- ⑤ 갑과 을: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전제하지 않아도 완전 고용이 실현 가능하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케인스와 민주 사회주의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케인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 사상가이다. 케인스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공공 투자 정책을 통해 실업과 불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급진적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 {정답 찾기}

⑤ 케인스는 사유 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바탕 위에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완전 고용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 수단의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 공업 등에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케인스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다.

② 케인스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긍정하였다.

③ 민주 사회주의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사적 소유도 일부 인정한다.

④ 민주 사회주의는 급진적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강	14	#쪽	158	#번	010	#문항코드	25014-0228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또 지배 계급으로서 넓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 및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마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넓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날 것이다.

- ① 갑에게: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갑에게: 시장 실패 예방을 위해 이상 사회에서는 국가 역할이 확대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③ 을에게: 의회에 기반한 개혁으로는 계급 간 대립이 해소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을에게: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전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갑과 을에게: 필요에 따른 분배는 노동을 통한 인간 본질의 실현을 저해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마르크스가 케인스와 민주 사회주의 입장에 제시할 수 있는 견해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와 르롤레타리아 간 계급 투쟁으로 붕괴되고 노동자 혁명을 거쳐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③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폭력 혁명을 통하여 공산 사회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이러한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민주 사회주의에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케인스는 불황,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는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일부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재명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Page	163
04부	사회사상		
15강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강	15	#쪽	163	#번	001	#문항코드	25014-0229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조그만 그릇된 짓을 하면 곧 그것을 알고서 비난하다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커다란 그릇된 짓에 대하여서는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칭송하면서 의로운 짓이라 말하고 있다. 남의 나라를 빼앗고 군인들을 죽이며 백성들을 해치고 학대하여 성인이 끼친신 일을 더럽히는 것은 위로는 하늘의 이익에, 아래로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만약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兼相愛]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 ① 겸애의 실천과 나라의 이익 실현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관계이다.
- ② 존비친소(尊卑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천하의 전쟁이 사라진다.
- ③ 국익 증진을 명분으로 하는 전쟁 개시는 이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의로운 일이다.
- ④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다.
- ⑤ 비공(非攻)의 실천을 위해서는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묵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존비친소를 구분해서 실천하는 차별적 사랑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고 겸애교리(兼愛交利)를 실천하면 전쟁과 같은 불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묵자는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묵자는 차별 없이 사랑하면[兼愛] 서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된다[交利]고 주장하였다.
- ② 묵자는 존비친소를 분별하는 사랑[別愛]이 전쟁과 같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묵자는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며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⑤ 묵자는 다른 나라의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반대하지 않았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인데 이는 중단 없는 전쟁의 위협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가 정초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①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을 무조건 환대할 것을 명령한다.
- ② 영구 평화 실현의 유일한 길은 세계 공화국의 출현이다.
- ③ 영구 평화는 평화 연맹이 아닌 평화 조약으로 보장된다.
- ④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 전쟁 결정의 과정도 달라진다.
- ⑤ 국가 간 적대 행위 중단만으로도 영구 평화가 완성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칸트는 전제정(專制政)과 달리 공화정 국가는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칸트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은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칸트는 영구 평화는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연맹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칸트는 개별 국가 간의 전쟁 종식 내용을 담은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 연맹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칸트는 전쟁의 가능성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만으로는 영구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3	#번	003	#문항코드	25014-0231
----	----	----	-----	----	-----	-------	------------

###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천하의 임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임금이 있다고 하면 천하의 백성이 기뻐하며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힘으로써 인(仁)을 행하는 패도(霸道)를 하는 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소유하여야 하지만, 덕(德)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는 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마지못해 복종하지만,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복종하게 됩니다.



- ① 군주는 패도를 통해서라도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어야 한다.
- ② 군주가 겸애(兼愛)로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의 전쟁이 잦아들 수 있다.
- ③ 군주가 인의(仁義)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된다.
- ④ 군주가 덕이 아닌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⑤ 군주가 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에야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맹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맹자이다. 맹자는 패도(霸道)가 아니라 왕도(王道)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진정으로 군주의 뜻에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맹자는 군주가 인의(仁義)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통치로 생각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맹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 ② 맹자는 군주가 겸애를 실천해야 천하의 평화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④ 맹자는 법령이나 형벌보다는 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 ⑤ 유교에서는 자신을 먼저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줄 것[修己以安人]을 강조한다.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신은 어떻게 한 손에 구원의 상징을 들고서, 당신의 형제를 죽이기 위해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가? 당신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이려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평화는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설교하고 찬양하며 전파해야만 한다.

#### <보기>

- ㄱ.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 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다.
- ㄷ. 평화를 위한 전쟁은 도덕적이지 않지만 불가피하다.
- ㄹ. 선(善)한 목적을 지닌 전쟁은 부당한 평화보다 낫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에라스뮈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에라스뮈스의 주장이다. 에라스뮈스는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에라스뮈스는 전쟁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ㄴ. 에라스뮈스는 전쟁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반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근. 에라스뮈스는 전쟁은 인간을 육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15	#쪽	164	#번	005	#문항코드	25014-0233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힘사는 포괄적 원리이다. 아힘사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는 그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자비심에 있기만 하면,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 지극히 작은 생명이라도 죽이지 않고 구해 주려고 애쓴다면, 그리하여 그 무서운 힘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는 변함없이 제 신앙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두 국가가 싸우고 있을 때 아힘사 신자의 의무는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자신과 그의 나라와 그의 세계를 전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아힘사의 원리는 생명 존중과 불살생의 실천을 내포하고 있다.
- ㄴ. 동정심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 아힘사의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 ㄷ.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자제력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아힘사를 실천할 수 있다.
- ㄹ. 아힘사의 원리는 불의(不義)에 맞서기 위해 힘사에는 힘사로 대응할 것을 명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간디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간디의 주장이다. 간디는 비폭력(아힘사)의 윤리를 바탕으로 동정심과 자제력을 통해 폭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ㄱ. 간디는 아힘사의 윤리에 따른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작은 생물의 살생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간디는 인간은 쉽게 폭력에 휩쓸릴 수 있는 무기력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정심을 바탕으로 자제력을 키우고 자비를 베풀어 아힘사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간디에 따르면 동정심은 아힘사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힘사를 실천하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

ㄹ. 간디는 힘사(폭력)에 맞서는 방법으로 힘사가 아닌 아힘사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4	#번	006	#문항코드	25014-0234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데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의 억압과 착취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서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느껴지게 만든다.

- 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가?
- ② 문화적 폭력과 달리 구조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하는가?
- ③ 모든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되어 다른 폭력으로 확산되는가?
- ④ 인간의 기본적 욕구 실현은 문화적 폭력이 아니라 직접적,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저해되는가?
- ⑤ 인간 안보 실현을 위해서라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 원칙은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갈퉁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갈퉁의 주장이다. 갈퉁은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억압과 착취 등을 구조적 폭력으로 정의하는 한편, 문화적 폭력에 의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① 갈퉁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부재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규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② 갈퉁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은 의도적으로도 발생하고 비의도적으로도 발생한다.

- ③ 갈퉁에 따르면 폭력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폭력으로 확산된다.
- ④ 갈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을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의해서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실현이 저해될 수 있다.
- ⑤ 갈퉁은 인간 안보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15	#쪽	164	#번	007	#문항코드	25014-0235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에게는 타인에 대한 의무, 즉 혈족의 유대나 심지어 더 형식적인 시민적 유대조차 넘어서는 더욱 확장된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을 저버리는 민족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고, 자신의 친구나 동료 시민을 냉담하고 공평무사하게 대우하는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편들 필요도 없다. 우리의 입장은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불릴 것이다.

### < 보 기 >

- ㄱ.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은 이방인들에 대한 의무의 실천을 명령한다.
- ㄴ. 세계 시민주의의 실천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배제할 때 가능하다.
- ㄷ. 지역에 대한 애착과 보편적 도덕의 실천은 양립 가능한 삶의 태도이다.
- ㄹ. 이방인에 대한 의무는 이방인과 자국민을 동등하게 사랑해야만 실천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애피아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애피아의 주장이다. 애피아는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살아가는 세계 시민주의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

다.

### {정답 찾기}

ㄱ. 애피아는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ㄷ. 애피아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도덕의 실천과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애피아는 세계 시민주의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근거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ㄹ. 애피아는 이방인에 대한 의무의 실천이 이방인과 자국민을 동등하게 사랑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강	15	#쪽	164	#번	008	#문항코드	25014-0236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 ① 모든 자원 빈곤국이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져야 할 의무이다.
- ③ 자원 분포의 우연성 조정은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④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아니다.
- ⑤ 빈곤층의 존재 여부가 원조 지속과 중단의 기준이 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롤스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돋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롤스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에 여전히 빈곤층이 존재하더라도

도 더 이상 원조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조 지속과 중단의 기준은 빈곤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인가 아닌가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롤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②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돋는 것은 자선이 아닌 의무라고 보았다.
- ③ 롤스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 조정을 통한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④ 롤스는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즉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5	#번	001	#문항코드	25014-0237
----	----	----	-----	----	-----	-------	------------

###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남의 나라 보기를 자기 나라 보듯 하고, 남의 집 보기를 자기 집 보듯 하며, 남의 몸 보기자를 자기 몸 보듯이 해야 한다.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들판에서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되고, 집안 우두머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빼앗는 일이 없게 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게 된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을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여야만 한다.

**을:**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많은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은 자기의 음식을 달게 여기며 자기 옷을 아름답게 여긴다. 또한 자기의 거처를 편안히 여기며 자기의 풍속을 즐긴다. 이웃 나라가 바라다보이고 닦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 ① **갑:** 침략 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도 거부할 때 겸애의 실천이 가능하다.
- ② **갑:**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자국에 해를 끼친다.
- ③ **을:** 문명의 이기(利器)를 멀리하고 인의의 덕을 실천하면 저절로 전쟁이 사라진다.
- ④ **을:** 본성을 변화시켜 무지(無知), 무욕(無欲)의 덕을 쌓을 때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 ⑤ **갑과 을:** 평화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실천할 때 실현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묵자와 노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묵자, 을은 노자이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통해 천하의 혼란

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으며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이기에 무관심한 소국 과민(小國寡民)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하였다.

### {정답 찾기}

② 묵자는 침략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묵자는 적국의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방어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노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 규범이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노자는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긍정하였다.

⑤ 묵자는 통치자의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주장하지 않았다.

#강	15	#쪽	165	#번	002	#문항코드	25014-0238
----	----	----	-----	----	-----	-------	------------

### [문제]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것을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마라. 모든 생명은 즐거움을 즐기나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임으로써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후세에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 자기가 지은 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계(戒)가 있고, 정(定)이 있고, 혜(慧)가 있으면 모든 괴로움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 ① 연기(緣起)의 법(法)에 근거하여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 ② 자타불이(自他不二)를 통해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음을 강조한다.
- ③ 자비(慈悲)는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실천이 가능한 도덕적 덕목임을 강조한다.
- ④ 불살생(不殺生)을 위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 무명(無明)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⑤ 삼독(三毒)을 없앨 때 존재의 불변성 보존을 위한 비폭력의 실천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불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여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 {정답 찾기}

②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의 법에 따른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를 주장한다.

### {오답 피하기}

① 불교에서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④ 불교에서 무명(無明)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무상(無常)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⑤ 불교에서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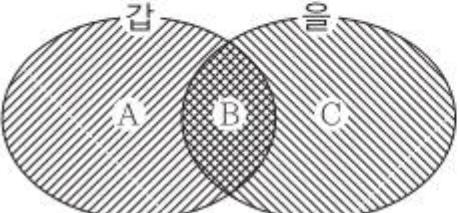
#쪽 166

#번 003

#문항코드 25014-0239

### [문제]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전쟁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폭력일 뿐이다. 평화를 전쟁의 반대로 보는 것은 매우 편협한 것이다. 여기에는 폭력 유형 간의 중요한 상호 연결성이 누락되어 있다. 폭력은 사회 구조 속에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평화는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합쳐진 것이다. 을: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항들이 지켜져야 한다.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동안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p>〈범례〉</p><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div>

### <보기>

- ㄱ. A: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ㄴ. B: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정체(政體)는 진정한 평화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 ㄷ. C: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영속적인 체류권을 포함한 우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갈퉁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갈퉁, 을은 칸트이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칸트는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ㄴ. 갈퉁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 같은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전제 정치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화 정체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갈퉁과 칸트 모두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칸트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 받지 않을 권리인 환대권의 보장을 강조하였지만, 이방인의 영속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강	15	#쪽	166	#번	004	#문항코드	25014-0240
----	----	----	-----	----	-----	-------	------------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만일 우리의 지성이 공통적이라면, 이성도 또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하는 이성도 또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같은 시민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느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이다. 우리는 너그러움과 정의로써 동포와 형제의 자연법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을: 우리의 특수한 애정과 정체성을, 그것이 민족적인 것이든, 사회적 성에 기초한 것이든, 혹은 종교적인 것이든 간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 일부로 만들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동심원을 유념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① 갑: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② 갑: 우주 만물의 본질은 이성이며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③ 을: 출생 공동체에 대한 특수한 애정과 보편적 인류애는 공존 가능하다.
- ④ 을: 인류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 원천은 출생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이다.
- ⑤ 갑과 을: 모든 인류를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아우렐리우스와 누스바움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을은 누스바움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인간은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누스바움은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④ 누스바움은 출생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하는 보편적 인간애가 인류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을 우주 만물의 본질로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으로 규정하고,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누스바움은 인간은 출생한 지역 공동체에 속한 주민인 동시에,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세계 시민주의적 공동체에 속한 주민이라고 보았다.
- ⑤ 아우렐리우스와 누스바움 모두 세계 시민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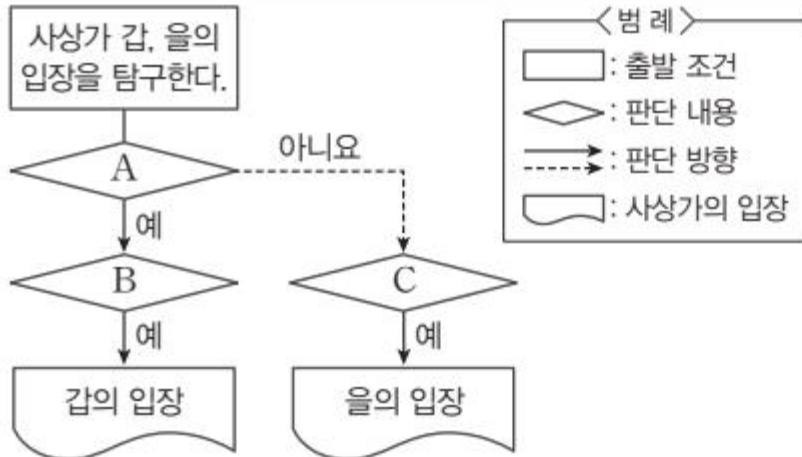
#장	15	#쪽	167	#번	005	#문항코드	25014-0241
----	----	----	-----	----	-----	-------	------------

### [문제]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공평한 방식으로 시험해 볼 때,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는 거의 없다.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리에게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 보기 >

- ㄱ. A: 국내 부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 ㄴ. A: 해외 원조 중단이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는가?
- ㄷ. B: 원조 주체의 이익과 손해는 원조의 의무 이행 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요소인가?
- ㄹ. C: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원조 대상국의 빙곤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싱어와 롤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돋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ㄱ. 싱어는 궁정, 롤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해외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국내 부조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와 다르게 해외 원조의 경우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ㄷ. 싱어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원조 시 원조 대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원조 자체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원조를 통해 얻는 인류의 이익이 원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때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ㄴ. 롤스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그 사회에 대한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이 원조의 직접적 목적은 아니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결과적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7	#번	006	#문항코드	25014-0242
----	----	----	-----	----	-----	-------	------------

###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 공화국은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공화국은 영토의 상실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정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국은 군주정보다 훨씬 더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 계몽된 이성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력에 의존하는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는 분열과 전쟁의 체제로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항구적이고 충분히 강력한 통합과 평화의 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과 평화의 체제에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 < 보 기 >

- ㄱ. 전쟁의 예방은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의해 실현되는가?
- ㄴ. 세계 평화는 주권 국가 간 세력 균형을 넘어선 단일 국가를 통해 달성되는가?
- ㄷ.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따를 때 가능한가?
- ㄹ.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항구적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생피에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생피에르의 주장이다. 생피에르는 공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전쟁으로 인한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이해에 기반하여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ㄷ. 생피에르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따라 이익 실현을 추구할 때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ㄹ. 생피에르는 전쟁으로 인한 불이익과 평화로 인한 이익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경우 인간은 평화를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ㄱ. 생피에르는 종교나 도덕성보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생피에르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 항구적 평화 실현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8	#번	007	#문항코드	25014-0243
----	----	----	-----	----	-----	-------	------------

### [문제]

가상 대화의 선생님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⑦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 ② 국제법은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 ③ 불가능한 목표로서의 평화 연맹 창설 대신 국가 간 적대 행위 중단을 지향해야
- ④ 모든 국가는 전쟁 개시 결정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정치 체제를 갖추어야
- ⑤ 어떤 국가도 내정 간섭을 통해 다른 국가의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야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선생님은 칸트이다. 칸트는 전쟁은 인간을 국가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평화 실현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③ 칸트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은 전쟁의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불과하므로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의 창설을 통해 영구 평화를 달성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는 상비군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도록 고용되는 것

- 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면 상비군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② 칸트는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연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연방 체제 수립을 통하여 영구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칸트는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전쟁 개시에 있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공화 정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칸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	15	#쪽	168	#번	008	#문항코드	25014-0244
----	----	----	-----	----	-----	-------	------------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갑,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부려지기 위해 강제로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었다. 수 세기를 거친 이 같은 직접적인 폭력은 주인이자 사회적 강자로서의 백인과, 노예이자 사회적 약자로서의 흑인이라는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종주의적 이념과 함께 대규모의 문화적 폭력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였다.

**을:**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거나 정벌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거나 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하의 해가 되겠는가, 천하의 이익이 되겠는가? 천하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말을 따져본다면 그들을 차별[別]을 두는 사람들이라 할 것인가, 모두를 아우르는[兼] 사람들이라 할 것인가? 그러니 서로 아우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천하의 큰 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 ① 갑: 소극적 평화와 달리 적극적 평화는 폭력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 ② 갑: 직접적 폭력이 부재하는 곳에서도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 ③ 을: 어진 군주는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기준으로 전쟁의 개시를 결정해야만 한다.
- ④ 을: 천하의 혼란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
- ⑤ 갑과 을: 전쟁으로 인한 손익을 기준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갈퉁과 묵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갈퉁, 을은 묵자이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을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를 강조하며,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非攻)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② 갈퉁은 직접적 폭력이 부재하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에서도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존

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갈퉁은 평화는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묵자는 백성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묵자는 존비친소를 구분하는 차별적 사랑이 천하의 혼란 원인이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묵자는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롭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